

東草文化

1989 / 第5號



東草文化院

유·암·문·화·재·단

복지사회에서의 만남



유암문화재단은 신체장애자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획득을 위해
延 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사장
정재철



文化의식 높이는 8만 市民의 전당

현대식 市民文化會館 연내 완공

속초문화회관신축조감도



新進建設(株)

대표이사 심 상 호

전기공사 **光波電業社**

회 장尹 昌 烈
대표이사 高 慶 助

소방공사 **보 성 상 사**

대표이사 金 基 龍



素東草文化院 昌達



素東青雲
文藝復興

己巳年仲夏 青林



素東青雲 文藝復興
青林 史相詰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 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 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 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東草文化

1989/ 第5號

차례

■ 권두사	池一權	8
■ 祝刊辭	崔正植	10
■ 論 壇		
• 東草沿革考	주상훈	14
• 설악산의 환경과 생물	홍문표	29
■ 現場을 찾아서		
• 떠도는 청호동	편집부	45
• 雪嶽山 神興寺의 由來(5)	金慧法	53
• 국립공원 설악산	박익훈	57
■ 내고장 인물		
• 前 대구고등법원장 崔龍式	이건석	60
• 雪嶽山과 崔九鉉	고영화	63
■ 그리운 내고향		
• 추억속의 그날들	金斗萬	66
■ 時 論		
• 勸 善	鄭鍾勳	70
• 물려줄 유산	윤중국	71
• 항만개발에 따른 제언	속초수협	73
• 청호 새마을금고의 오늘	황화수	75
• 성화봉송의 영광을 다함께	최경순	77
• 金剛山 開發과 雪嶽圈의 기능	임덕수	79
• 傳統과 설날의 是非	김보한	85
■ 靑草湖 매립 찬반 誌上논의 / 정화나 매립이나		
• 매립반대 / 靑草湖를 살리자	동문성	92
• 매립찬성 / 東草에 신항을 건설하자	전상기	94
■ 東草文藝		
• 초대詩 / 朴明子, 김영준, 張承鎭, 지영희		98
• 독자투고 / 이덕수, 장운식		102
■ 학생문예		
• 제21회 설악제 학생백일장 입상작		104
● 東草文化院 임원명단		112
東草文化院 회원명단		113

제 자 : 김 철 홍
표지화 : 김 광 수
취 호 : 사 상 철
 이 창 섭
권두시 : 이 상 국

속초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며



池一權/
東草文化院長

『텃세없어 살기 좋다』는 우리 고장 東草…… 지금 이곳은 약간의 원주민을 비롯 咸鏡도민등 이북 5도민 嶺·湖南·忠清, 심지어 濟州도민들까지 살고 있어 소위 축소판 韓國땅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이질적인 多道民들이 혼합하여 살면서 지역감정없이 이웃처럼 다정스럽게 그리고 사돈(査頓)까지 맺고 있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흔히들 東草는 전래된 전통문화나 향토 문화유산이 빈약하다지만 불교문화를 비롯 천혜의 관광문화, 해양문화등 유산이 많아 전망이 밝다.

文化란 『인간 삶의 총체』라고 정의 하는데 모든 인간 행위는 다 文化的 행위임으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文化를 역사적인 면에서 발굴 또는 창출해서 장점을 다듬어 정립해 우리가 향유하자는 것이다.

본인은 제7대 문화원장으로 피선되면서 『多道 文化』론을 펴려한 바 있는데 그 다양한 색채의 文化를 하나의 색깔로 나타내는 일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예술인·학자·종교인등의 文化창출 기능을 적극적으로 돕고, 문화원부설로 향토사연구소, 문화토론회, 청소년문화서클, 민속보존회등 각 분야의 하부조직을 구성하여 文化전달 기능의 확산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준공될 속초문화회관을 활용, 각종 공연, 전시, 상설문화강좌개설 등의 속초의 「문예부흥」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향토문화』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여 『변방문화』정도로 인식하는 듯 하는데, 지역문화란 중앙문화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특성을 논하는 것이지 문화적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특성 그 자체엔 우열(優劣)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

束草는 이제 바야흐로
문예중흥 시대를 맞게 되었다.
束草文化院은 앞으로 이러한
시대적 부름의 선두에서
혼신의 정열을 다 할 것이다.

”

고장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성격에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더욱 향상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있어야 한다. 그런 주인의식의 발판 위에 지역문화가 진흥될 수 있는 것이다.

향토축제가 주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향토축제조차 官에 의지하면서 지방자치를 거론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런 주인의식의 확대를 위해서는 또 현 상황에 대한 기록에 충실해 질 필요도 있다.

취임직후 본인이 피력했던 『기록문화론』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어 졌으면 한다. 文化誌, 市誌 편찬사업에 각별한 정력을 쏟고 싶은 것도 그 때문이다. 같은 시대, 같은 고장에서 살았던 모든 이들의 기록을 분명하게 남겨 지역과 시대에 책임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 후세에 부끄럼없이 남기자는 것이다.

『속초문화』誌는 앞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며 꾸준히 성장해 나가리라 확신한다. 『로마의 문화는 하루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향토문화”를
“변방문화”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고장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멋과 恨이 어우러진 束草文化

『束草文化』 제5호 發刊에 붙여



崔正植 /
國會議員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또 한 世代가 지나가고 또 때로는 한 나라가 세워지고 滅亡할 때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이외의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다.

먹고 살면서 生計를 維持하기 위한 經濟的 活動의 結果는 文明(civilization)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文明이란 世界 어느 곳에서나 그 時期만을 달리하면서 共通되어 나타날 수 있는 時間的인 차원의 問題이다. 또한 이 文明은 그 전달속도가 무척이나 급속하여 交通과 通信이 發達한 現代의 기계문명시대에 와서는 全世界的인 것이 되고 있다. 그것은 現代 기계문명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가 美國의 大企業 사무실에서나 우리 韓國의 어느 中小企業의 사무실에서나 모두 使用되고 있음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文化(culture)는 적어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文化는 文明과는 달라서 時間的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空間的인 차원의 問題인 것이다. 즉 文化는 時間을 달리하여 다른 地域에 同一하게 나타나지 않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文化라는 單語앞에는 항상 어디의, 예를 들면 「韓國의」, 「江原道の」, 또는 「束草의」 등과 같은 위치에 관한 수식어가 붙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價値를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文明, 특히 現代文明은 자동장치와 기계화로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공할 核폭발에 대한 공포, 수많은 교통사고 등과 같은 많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반면 文化는 어느 特定地域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흐름으로서 특히 韓國의 文化는 잔잔하고도 끈기있는 恨과 애잔한 정서, 부드럽고 유유 자적하는 풍류의 멋을 지니고 있다. 또한 文化는 愛國心과 愛鄉心의 발로이다. 韓國의 文化와 정서를 사랑할 때 愛國心은

“

우리가 지키고 아껴야 할 것은
바로 이 자랑스런 東草의
文化이지, 관광객들의
그 소비적인 향락이
아니다.

”

절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또 우리 東草의 文化를 아끼고 사랑할 때 항상 東草를 생각하는 愛鄉心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東草文化의 멋은 그 수려한 自然環境으로 부터 비롯된다. 예로부터 우리 東草는 東海의 깨끗한 바다를 마주보는 명산 雪嶽을 背景으로 그 풍경으로 비롯된 풍류의 멋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기잡이의 文化이다. 고기잡이는 바다의 農事이다. 고기잡는 어부의 마음은 계절과 기후에 따라 그 收穫이 달라 울고 웃는 農民의 순박한 마음과 비슷하면서도 언제 어느 때 닥칠지도 모르는 폭풍우에 生命을 내맡겨야 하는 긴장되기도 恨스런 文化를 가지고 있다. 또 그런 만큼 고기잡이 어부의 문화는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져주는 共同體의인 面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自然, 고기잡는 어부의 恨, 신선한 바다고기들이 만들어내는 깨끗하고 정성이 어린 음식, 풍류,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 등, 이들이 어우러져 우리의 東草文化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키고 아껴야 할 것은 바로 이 자랑스런 東草의 文化이지, 觀光客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더미속에서 發見할 수 있는 消費的이고 利己的인 都市의 文化가 아니다.

이러한 東草의 멋을 새로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하면서 또 그 文化를 發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東草文化』도 역시 重要的한 우리 東草文化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이제 제5호가 발간된 만큼 앞으로 그 內容과 체제에 더욱 큰 發展이 있어 地方文化의 계승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文化는 공간적 차원의 문제이다. 즉 文化는 시간을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설악 아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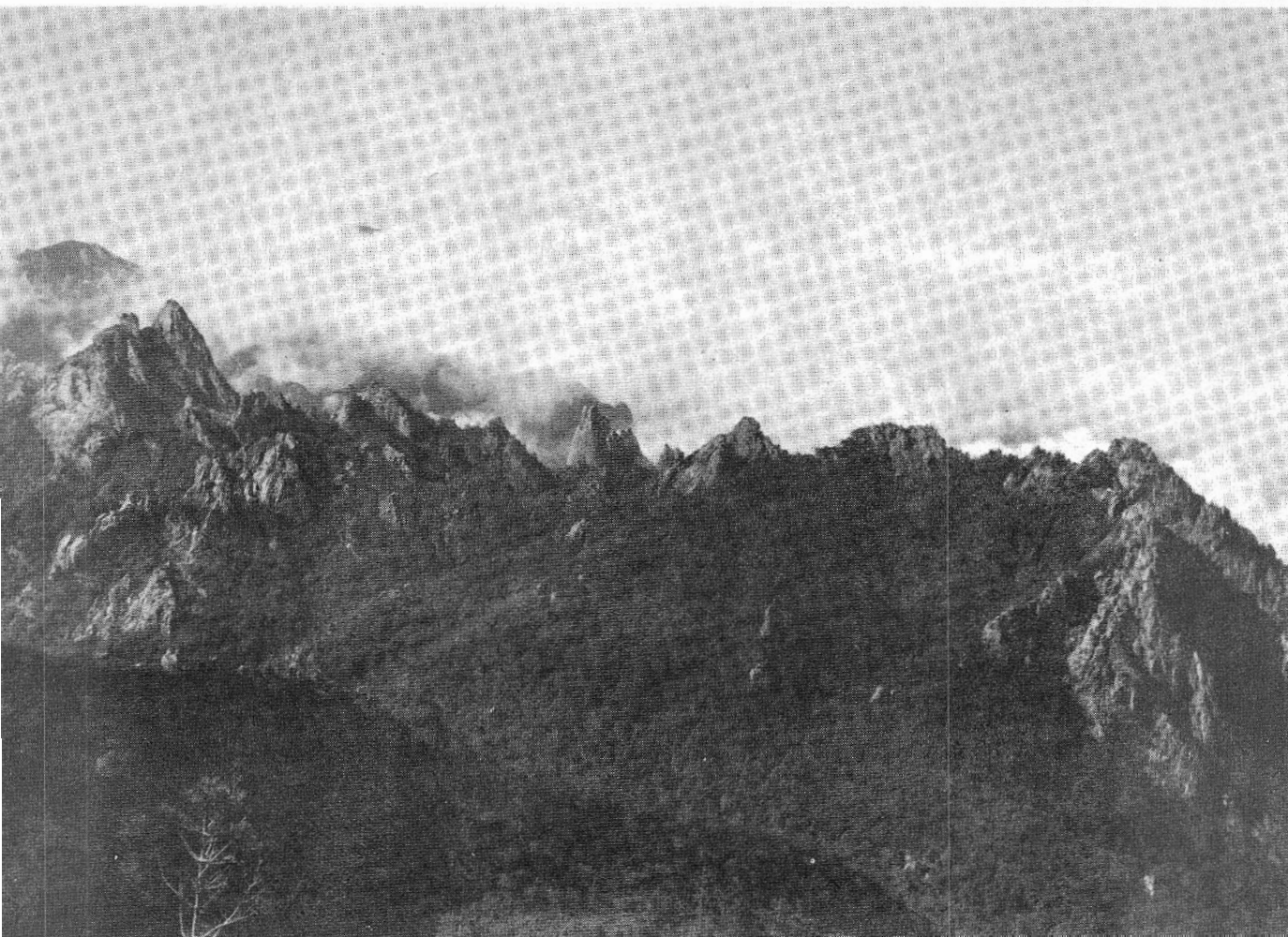


이 상 국

한 해에도 수만명씩 올라가면
산이 아파하지는 않을까
은밀한 곳까지 들춰내고 함부로 더럽혀서
산신이 거처를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큰산 아래 살며 나는 그제 늘 마음에 걸린다.
사람들 잠든 사이에도
산은 물을 만들고
깨끗한 아침을 내려 보내는데
우리가 산 섬기는 일에 너무 소홀하지는 않았을까
천불동 해 떨어지는 고요 속이나 사시 설화 피는 대청봉 천화대 가야동
짐승의 소리 가는골 하늘벽 바람 폭포속
어디쯤 산신은 계시는지
인간 동티 피해
백두대간 타고 금강산이나 백두산 쯤 가시고
설악산은 이미 비어 있거나 않을까
이내의 어둠 속으로 큰산 아아라히 잠겨가는 저녁마다
나는 조용히 저무는 봉우리들을 바라본다.

論 壇

東草沿革考/주상훈
설악산의 환경과 생물/홍문표



속초 연혁 고(東草沿革考)

주상훈 (朱尙勳)

〈속초향토사연구소연구위원〉

1. 머릿말

사람에게 역사가 필요한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그 역사도 우선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 그리고 세계의 역사로 나아가야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국사, 세계사에는 있어도 향토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더욱더 향토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본인이 속초(東草) 지방의 역사에 대하여 고찰한 내용을 ‘속초 연혁 고(東草沿革考)’로 정리하여, 본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속초 고등 학교 교지 《설악(雪嶽)》 제7호(1988년)에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하니, 이것을 계기로 하여 속초(東草) 향토사에 대한 내용 중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널리 알려지고, 잘못 전해

지고 있는 내용은 정정되었으면 좋겠다.

2. ‘속초(東草)’지명의 유래

1987년 속초문화원에서 향토사료 제2집으로 간행한 《속초(東草)의 민속(民俗)》중에 ‘속초(東草)’지명 전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속초(東草)는 ‘뭍을 속(東)’자, ‘풀 초(草)’자라고 써서 이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영금정(靈琴亭)과 연관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영금정(靈琴亭)옆에 술산¹⁾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 보면 그 술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속초(東草) 지형이 와우형(臥牛型)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을 묶어서 소가

1) 영금정(靈琴亭)옆의 술산에 대하여, 1982년 속초시(東草市)에서 발행한 《설악(雪嶽)의 뿌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속초(東草)동대 밑 동쪽 바닷가에 3면이 바다와 잇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잇닿은 석산(石山)이 있었는데, 이 석산(石山)이 영금정(靈琴亭)이라 부르던 곳이다. 이 영금정(靈琴亭)은 누대(樓臺)나 정자가 있어서 영금정(靈琴亭)이라 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석산(石山) 꼭대기에는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음곡(音曲)이 들리는데, 석산(石山)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靈琴亭)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남몰래 하강하여 목욕도 하고 신비한 음곡조(音曲調)를 읊으며 즐기는 곳이라 하여 비선대(秘仙臺)라고도 한다. 현재 그 석산(石山)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다.」

비선대(秘仙臺)는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도 표기되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비선대(秘仙臺)는 부(府) 북쪽 50리 쌍성호(雙成湖, 오늘날의 靑草湖) 동쪽에 있다. 돌봉우리가 가파르게 빼어났고 위에 노송(老松)두어 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 같다. 그 위에는 앉을 만 하며, 실같은 길이 육지와 통하는데, 바다 물결이 사나와지면 건널 수 없다.(秘仙臺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峯峭拔上有虬松數株望之如畫其上可坐有徑如線通陸海惡則不得渡)」



먹도록 해야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도 전한다.]

또 1983년 뿌리 깊은 나무 발행 《한국의 발견》 강원도 속초시 편에 보면, 울산바위 전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속초(東草)’지명 유래를 그것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조물주가 금강산의 경관을 빼어나게 빛으려고 잘 생긴 바위는 모두 금강산에 모이도록 불렀다. 경상남도 울산 땅에 있던 큰 바위도 그 말을 듣고 금강산으로 길을 떠났는데, 워낙 덩치가 크고 몸이 무거워서 느릿느릿 가다보니 설악산에 이르렀을 때 이미 금강산은 다 빛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속초시 땅인 설악산의 한쪽에 눌러 앉고 말았다는 바위가 둘레가 4km에 이르는 울산 바위이다.

이 바위 때문에 속초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전설이 있다. 그에 따르면 설악산에 구경하러 왔던 울산 고을의 원이 울산 바위에 얽힌 전설을 듣고 울산 바위 아래에 있는 절인 신흥사의 중에게 울산 바위는 제 고을의 바위이니 남의 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댓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금을 받아 갔는데, 어느 해에 신흥사의 어느 동자승이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울산 고을의 원이 이 바위를 재로 쪼개기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동자승이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 곧 지금의 속초 시가지가 자리잡은 땅에 많이 자라고 있는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 바위를 동여맨 뒤에 새끼를 불에 태워 재로 쪼개쳐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자 울산 고을의 원은 이 바위를 가져갈수도 없었으려니와 세금을 내라는 말도 더는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가 한자(漢字)로 ‘묶을 속(東)’자와 ‘풀 초(草)’자로 적는 속초(東草)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것은 모두 속초(東草)라는 한자(漢字) 지명의 뜻에 입각하여 풀을 묶은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편자들도 이미 지적하였듯이, 그것은 모두 전설적인 얘기로 신빙성이 희박하다.

1967년 한글학회에서 발행한 《한국 지명 총람》 2 강원도 속초시 편에 보면 「속초(東草)를 일명 속새, 또는 속진(東津)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홍천군(洪川郡) 동면(東面)에도 속초리(東草里)가 있는데, 앞에 인용한 《한국 지명 총람》에 보면 「속초리(東草里)는 속새울, 속새골이라고도 했는데, 속새가 많은 데서 유래했었다」라고 되어 있다. 평창군(平昌郡) 도암면(道岩面) 병내리(屏內里)에도 속새골 일명 속상동(東上東)이 있는데, 《한국 지명 총람》에 「속새 풀이 많이 있

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추정하여 볼 때, 속초(東草)는 속새라는 풀을 한자(漢字)로 기록한 데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986년 이 영택(李泳澤)이 지은 《한국(韓國)의 지명(地名)》- 한국(韓國) 지명(地名)의 지리(地理), 역사(歷史)적 고찰(考察)- 음운(音韻) 지명(地名)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속사(東沙):속취(木賊), 속새(銼草, 어육새)를 이두(吏讀)로 속사(東沙)라 표기한다. 황무지, 원야(原野)등에 나는 속새과(木賊科) 식물을 말하는데, 사근(沙斤)이나 원야(原野)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속새 지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속사곶리(東沙串里):김포군(金浦郡) 금단면(黔丹面) 왕길리(旺吉里)

속사리(東沙里):진양군(晉陽郡) 금산면(琴山面)

속사동(東沙洞):김화군(金化郡) 원북면(遠北面) 당현리(堂峴里), 회양군(淮陽郡) 상북면(上北面) 신명리(新明里), 회양군(淮陽郡) 내금강면(內金剛面) 병이무지리(竝伊武只里), 곡산군(谷山郡) 이녕면(伊寧面) 추진리(楸田里), 고원군(高原郡) 운곡면(雲谷面) 운흥리(雲興里)

동속사동리(東東沙洞里):회양군(淮陽郡) 내금강면(內金剛面)

속사참(東沙站):영원군(寧遠郡) 대흥면(大興面) 사창리(社倉里), 강계군(江界郡) 입관면(立館面) 운송동(雲松洞)

속사리(東沙里):평창군(平昌郡) 용평면(龍平面), 문천군(文川郡) 운림면(雲林面) 마한리

(馬汗里), 장진군(長津郡) 상남면(上南面), 장진군(長津郡) 동문면(東門面), 삼수군(三水郡) 금수면(襟水面)」

이것을 보면 속새라는 풀이 많은데서 유래된 지명이 적지 않은 수효인 것을 알 수 있고, 속초(東草)도 속새가 많으므로 황무지, 원야(原野)의 의미로 속새 또는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속초(東草)라고 하여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東草)라는 지명만 남고 속새는 사라져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

그렇다면 언제부터 속초라고 불리었는가? 정확한 것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것으로는, 조선(朝鮮) 영조(英祖) 36년, 즉 1760년에 발행된 지리지(地理志)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양양도호부(襄陽道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東草里)에 대하여

「속초리(東草里)는 관문(官門)으로 부터 북쪽 35리 거리에 있다. 호(戶)수는 86호(戶)이고, 인구는 남자 90명, 여자 182명이다.(東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八十六男九十口女一百八十二口)」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전부터, 적어도 230년전부터는 속초리(東草里)라는 지명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조선시대(朝鮮時代)까지의 속초(東草)

속초(東草)가 1963년 시(市)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양양(襄陽)에 속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朝鮮時代)까지 양양(襄陽)의 연혁은 곧 속초(東草)의 연혁이 된다. 양양(襄陽)의 연혁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겠다.

2) 이창복(李昌福)이 지은 《대한 식물 도감(大韓 植物 圖鑑)》에 속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속새 Equisetum hyemale L.[속새과]

제주도와 강원도 이북의 숲속 습지에서 자라는 상록다년초로서, 높이 30~60cm이다. 지하경(地下莖)은 옆으로 뻗으며, 지면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개로 갈라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 줄기가 총생(叢生)하는 것 같이 보이고, 질은 녹색이며 가지가 없고, 뚜렷한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10~18개의 능선(稜線)이 있다. 퇴화된 비늘 같은 잎은 서로 붙어 마디 부분을 완전히 둘러싸서 엽초(葉鞘)로 되며, 끝이 톱니 모양이고 각 능선과 교대로 달린다. 엽초(葉鞘) 밑 부분과 톱니는 막질(膜質)로서 길이 3~6mm이다. 포자낭수(孢子囊穗)는 원줄기 끝에 곧추 달리고, 원추형(圓錐形)이며 끝이 뾰족하고 길이 6~10mm로서, 처음에는 녹색이지만 황색으로 된다. 원줄기의 능선에는 규산염(硅酸鹽)이 축적되어 딱딱하기 때문에 나무를 가는데 사용했으며, 그것 때문에 목적(木賊)이란 이름이 생겼다. 전초(全草)를 장출혈(腸出血)과 치질의 지혈제로 사용한다.」

이 울산바위 때문에 束草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설적인 얘기로 신빙성이 희박하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에 오늘날의 양양(襄陽)인 익령현(翼嶺縣)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高句麗) 때에는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으로 불리어지다가,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익령현(翼嶺縣)으로 고쳐졌고, 수성군(守城郡, 오늘날의 高城郡 소재지인 杆城)의 영현(領縣³⁾, 거느리는 현, 속하는 현)이 되었다.⁴⁾」

그렇다면 고구려(高句麗)에 속하고 있던 양양(襄陽)이 신라(新羅)에 속하게 되는 것은 언제인가? 진흥왕(眞興王) 12년(551년)에 신라(新羅)가 고구려(高句麗)의 10군(郡)을 취한다는 기사⁵⁾와, 진흥왕(眞興王) 17년(556년)에 비렬홀주(比列忽州, 咸鏡南道 安邊)를 설치한다는 기사⁶⁾로 미루어 진흥왕(眞興王) 12년(551년) 부터는, 늦어도 진흥왕(眞興王) 17년(556년) 부터는 신라(新羅)에 속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익령현(翼嶺縣)으로 고쳐졌는데, 이것



은 의심할 바 없이 경덕왕(景德王) 16년(757년) 9주(州)와 그 밑의 군(郡), 현(縣)의 명칭을 우리 고유식 명칭에서 한자식 명칭으로 고쳤을 때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전기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 地理志)》 《고려사 지리지(高麗史 地理志)》 《신증 동국 여지승람(新增 東國 輿地 勝覽)》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 地理志)》

「양양도호부(襄陽道護府)는 본래 고구려(高句麗)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었다. 신라(新羅)에서 익령(翼嶺)으로 이름을 고쳐 수성군(守城郡)이 거느리는 현(縣)

- 3) 양양군(襄陽郡)에서 발행되는 양양(襄陽)의 연혁에 대한 문헌에는 양양(襄陽)의 신라(新羅)때 이름이 수성령(守城領)이라고 기록된 것이 많이 있고, <양양(襄陽)의 노래>에도 이것이 인용되어 '수성령 옛 터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현(領縣)에 대한 해석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성령현(守城領縣)'이란 기록은 현(縣)의 이름이 수성령(守城領)이란 것이 아니고, 수성군(守城郡)이 거느리는 현(縣)이라는 의미의 수성군영현(守城郡領縣)에서 군(郡)이 생략된 것이다.
- 4) 앞서 인용한 《속초(束草)의 민속(民俗)》에는 속초(束草)의 고구려(高句麗) 때 이름이 속토현(束土縣), 신라(新羅)때 이름이 목속제현(木束堤縣)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에 기록되어 있는 명주(溟州) 영현(領縣) 중 속토현(束吐縣), 또는 東吐縣이라고도 했음), 축제현(楛隄縣, 또는 楛隄縣이라고도 했음)의 오류도 생각되고, 무슨 근거로 이것을 속초로 비정했는지 알 수 없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 편찬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도 당시 어느 곳인지 미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날의 양양(襄陽)인 익령현(翼嶺縣)이 오늘날의 간성(杆城)인 수성군(守城郡)의 영현(領縣)인데, 양양(襄陽)보다 북쪽에 위치한 속초(束草)를 오늘날 강릉(江陵)인 명주(溟州)의 영현(領縣)으로 보는 생각할 수 없겠다.
- 5)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흥왕(眞興王) 12년
「왕은 거칠부(居柒夫)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高句麗)를 쳤는데 그는 크게 이겨서 10군(郡)을 공취하였다.(王命居柒夫等侵高句麗乘勝取十郡)」
- 6)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新羅本紀) 진흥왕(眞興王) 17년
「7월에 비렬홀주(比列忽州)를 설치하고, 사찬(沙飡) 성종(成宗)을 그 군주(軍主)로 삼았다.(秋七月置比列忽州以沙飡成宗爲軍主)」

1760년에 발행된 지리지인 《輿地圖書》에 「束草里」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230년 전부터 이 지명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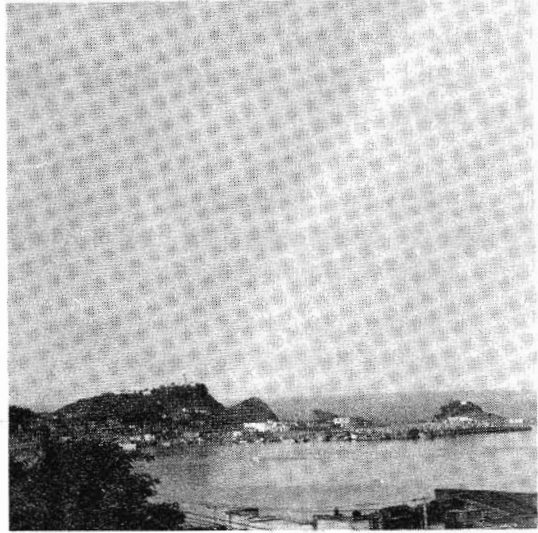
고려(高麗) 고종(高宗) 8년 신사(辛巳)년에 거란병(契丹兵)을 잘 방어하였으므로 승격하여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로 고쳤다. 44년 정사(丁巳)년에는 적에게 항복하였으므로 덕녕감무(德寧監務)로 강등했다. 원종(元宗) 원년(元年) 경신(庚申)년에는 지양주사(知襄州事)로 회복되었다. 본 왕조 태조(太祖) 6년 정축(丁丑)년에는 외가 고을이므로 부(府)로 승격되었다. 태종(太宗) 13년 계사(癸巳)년에는 예에 따라 도호부(都護府)로 고쳤다. 16년 병신(丙申)년에는 양양(襄陽)으로 고쳤다. (襄陽都護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改名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高宗八年辛巳以能禦丹兵陞改襄州防禦使四十四年丁巳以降賊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庚申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丁丑以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癸巳例改都護府十六年兵申改襄陽)」

《고려사 지리지(高麗史 地理志)》

「익령현(翼嶺縣)은 본래 고구려(高句麗)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었다.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이 오늘날 이름으로 고쳐 수성군(守城郡)이 거느리는 현(縣)으로 만들었다. 현종(縣宗) 9년에 현령(縣令)을 설치했다. 고종(高宗) 8년에 거란병(契丹兵)을 잘 방어하였으므로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되었다. 41년에 현령(縣令)으로 강등되었다. 44년에 적에게 항복하였으므로, 또 덕녕감무(德寧監務)로 강등되었다. 원종(元宗) 원년(元年) 지양주사(知襄州事)로 승격되었다. (翼嶺縣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景德王改今名爲守城郡領縣顯宗九年置縣令高宗八年以能禦丹兵陞襄州防禦使四十一年降爲縣令四十四年以降賊又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陞知襄州事)」

《신증 동국 여지 승람(新增 東國 輿地 勝覽)》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는 본래 고구려(高句麗)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었다. 신라(新羅)에서 익령(翼嶺)으로 고쳐 수성군(守城郡)이 거느리는 현(縣)으로 만



들었다.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설치했다. 고종(高宗) 8년에 거란병(契丹兵)을 잘 방어하여 공이 있으므로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되었다. 44년에는 적에게 항복하였으므로 덕녕감무(德寧監務)로 강등되었다. 원종(元宗) 원년(元年)에는 지양주사(知襄州事)로 회복되었다. 본 왕조 태조(太祖) 6년에 임금님의 외가 고을이므로 부(府)로 승격되었다. 태종(太宗) 13년 예에 따라 도호부(都護府)로 고쳤다. 16년에 오늘날 이름으로 고쳤다. (襄陽都護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名)」

이상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 고구려(高句麗)에서는 익현현(翼峴縣), 또는 이문현(伊文縣)이라고 불리어지다가,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 때 익령현(翼嶺縣)으로 고쳐져 수성군(守城郡)이 거느리는 현(縣)이 되었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와서는 현종(顯宗) 9년에 현령(縣令)이 설치되었고, 고종(高宗) 8년에는 거란병(契丹兵)을 잘 방어한 공으로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고종(高宗) 41년에는 현령(縣令)으로 떨어졌고, 다시 고종(高宗) 44년에는 적(蒙古兵)에게 항복한 사실로

인하여 덕녕감무(德寧監務)로 떨어졌다.⁷⁾ 그리다 원종(元宗) 원년(元年)에는 지양주사(知襄州事)로 회복되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들어와서는 태조(太祖) 6년에 임금의 외가 고을이므로⁸⁾ 부(府)로 승격되었고, 태종(太宗) 13년에는 예에 따라 도호부(都護府)로 되고, 태종(太宗) 16년에는 양주도호부(襄州都護府)에서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후의 기록은 어떠한가? 조선(朝鮮) 후기 현종(顯宗) 때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동국 여지지(東國輿地志)》와 영조(英祖) 36년(1760년)에 나온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조선(朝鮮) 전기 지리지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정조(正祖) 때 나온 《증보 문헌 비고(增補文獻備考)》 여지고(輿地考) 군현 연혁(郡縣沿革)에 보면 새로운 사실로 「정조(正祖) 7년 계묘(癸卯)년에 현(縣)으로 강등되었다가, 정조(正祖) 16년 임자(壬子)년에 회복되었다.(正祖七年癸卯降縣十六年壬子復舊)」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한일합방(韓日合邦)직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양양읍지(襄陽邑誌) 《현산지(峴山誌)》에는 앞의 정조(正祖) 때 기사보다 앞서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광해군(光海君) 무오(戊午)년에 역란으로 호칭을 강등하여 현(縣)으로 하였다. 인조(仁祖) 원년(元年) 계해(癸亥)년에 부(府)로 승격되었다. 인조(仁祖) 무진(戊辰)년에 역란으로 호칭을 강등하여 현(縣)으로 하였다. 인조(仁

祖) 정축(丁丑)년에 부(府)로 승격되었다.(光海戊午以逆亂降號爲縣仁祖元年癸亥陞府戊辰以逆亂降號爲縣丁丑陞府)」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양양(襄陽)은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태종(太宗) 16년 이래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였지만, 일시적으로 3차례, 즉 광해군(光海君), 인조(仁祖), 정조(正祖)때 현(縣)으로 강등되었다가 곧 복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근대화의 분수령을 이룬 갑오경장(甲午更張)때 그 일환으로 1895. 5. 26 칙령(勅令) 제98호로 종래의 8도(道)제가 폐지되고 23부(府)제가 실시됨에 따라, 강원도(江原道)에서 강릉부(江陵府)에 속하게 되고, 종래의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이 군(郡)으로 통일되어 336군(郡)이 됨에 따라⁹⁾ 양양군(襄陽郡)으로 고쳐졌다. 갑오경장(甲午更張)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日本)의 강압이 많이 작용하였으므로 일본(日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고, 곧 얼마 안되어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가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이 발생하여 친러내각이 수립되자, 갑오경장(甲午更張) 내용의 일부가 바뀌어졌는데, 그 때인 1896. 8. 4 칙령(勅令) 제 36호로 23부(府)는 다시 한성부(漢城府)와 13도(道)로 되고, 13도(道) 밑에는 7부(府), 1목(牧), 331군(郡)으로 고쳐졌다.¹⁰⁾ 이에 따라 양양군(襄陽郡)은 다시 강원도(江原道)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부분적인 변화

7) 고종(高宗) 41년 기사는 《고려사 지리지(高麗史地理志)》에만 기록되어 있고, 강등된 이유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고종(高宗) 44년과 마찬가지로 적(蒙古兵)에게 항복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가 몽고(蒙古)와의 항쟁기이고, 《고려사 절요(高麗史節要)》, 《동사강목(東史綱目)》 등을 보면, 「고종(高宗) 40년 10월에 몽고병(蒙古兵)이 양주(襄州)를 함락시켰는데, 오늘날의 양양(襄陽)이다.(高宗四十年十月蒙古兵陷襄州今襄陽)」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몽고(蒙古)에게 항복한 사유로 1차로 고종(高宗) 41년에 현령(縣令)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2차로 고종(高宗) 44년에 감무(監務)로 강등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겠다. 감무(監務)란 수령 중 최하급이고,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오면 현감(縣監)으로 명칭이 바뀐다. 그리고 1차로 현령(縣令)으로 강등될 때에는 현(縣)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마 이전 이름인 익령현(翼嶺縣)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8) 후에 나온 《읍지(邑誌)》들을 보면 임금님이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의 4대조인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로 기록되어 있다.

9) 국사 편찬 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한국사(韓國史)》 17 p.295
뿌리 깊은 나무, 《한국의 발견》 강원도 p.50

10) 국사 편찬 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 《한국사(韓國史)》 18 p.64

가 있기는 하였지만 강원도(江原道) 양양군(襄陽郡)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양(襄陽)의 연혁

국 가	연 대			고 을 명 칭	수령(守令)직위
	왕	간지(干支)	서기		
고구려(高句麗)				익현(翼峴),이문(伊文)	현령(縣令)?
신라(新羅)	진흥왕(眞興王)12~ 경덕왕(景德王)16~	신미(辛未) 정유(丁酉)	551 757	" 익령(翼嶺)	" "
고려(高麗)	태조(太祖) 1~	무인(戊寅)	918	"	없었음
	현종(顯宗) 9~	무오(戊午)	1018	"	현령(縣令)
	고종(高宗) 8~	신사(辛巳)	1221	양주(襄州)	방어사(防禦使)
	고종(高宗)41~	갑인(甲寅)	1254	익령(翼嶺)?	현령(縣令)
	고종(高宗)44~ 원종(元宗) 1~	정사(丁巳) 경신(庚申)	1257 1260	덕녕(德寧) 양주(襄州)	감부(監務) 지사(知事)
조선(朝鮮)	태조(太祖) 6~	정축(丁丑)	1397	"	부사(府使)
	태종(太宗)13~	계사(癸巳)	1413	"	도호부사(都護府使)
	태종(太宗)16~	병신(丙申)	1416	양양(襄陽)	"
	광해군(光海君)10~	무오(戊午)	1618	"	현감(縣監)
	인조(仁祖) 1~	계해(癸亥)	1623	"	도호부사(都護府使)
	인조(仁祖) 6~	무진(戊辰)	1628	"	현감(縣監)
	인조(仁祖)15~	정축(丁丑)	1637	"	도호부사(都護府使)
	정조(正祖) 7~	계묘(癸卯)	1783	"	현감(縣監)
	정조(正祖)16~	임자(壬子)	1792	"	도호부사(都護府使)
	고종(高宗)32~	을미(乙未)	1895	"	군수(郡守)

그렇다면 속초(束草)는 어떠했는가? 이전의 것은 잘 알 수 없고,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속초(束草)는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였다. 조선시대(朝鮮時代)부터 면(面)·리(里)제가 실시되었는데,¹¹⁾ 양양(襄陽)의 면(面)·리(里)에 대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영조(英祖) 36년(1760년)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이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면(面)·리(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내면(府內面):남문리(南門里), 성내리(城內里), 구향교동리(舊鄕校洞里), 청곡리(靑谷里), 연창역리(連倉驛里)

동면(東面):고송개리(古送介里), 금강리(金剛里), 송전리(松田里), 불성리(佛城里), 수산진리(水山津里), 굴포진리(屈浦津里)

부남면(部南面):서문리(西門里), 문선왕리(文宣王里), 화일리(禾日里), 거말리(巨末里), 임천리(林泉里), 영혈사(靈穴寺)

서면(西面):공수전리(公須田里), 영덕리(盈德里), 서림리(西林里), 청대리(靑臺里), 오색리(五色里), 상평리(上平里), 장생리(長生里), 수동리(水洞里), 웅전리(熊田里)

남면(南面):삼존리(插存里), 와동리(瓦洞里), 양혈리(陽穴里), 판교리(板橋里), 여운포리(如雲浦里), 상운역리(祥雲驛里)

현북면(縣北面):도동리(陶洞里), 말곡리(末谷里), 광정리(廣汀里), 대치리(大峙里), 어성리(魚城里), 원일전리(元日田里), 면비치리(綿飛峙里), 법수치리(法水峙里), 초진리(草津里), 명주사(明珠寺)

현남면(縣南面):월내리(月乃里), 견불리(見佛里), 원당리(元堂里), 북분리(北盆里), 양야진리(陽也津里), 인구역리(鱗丘驛里)

위산면(位山面):감동리(甘洞里), 진수동리(眞水洞里), 포월리(浦月里), 사천리(士川里)

사현면(沙峴面):소근교리(小斤橋里), 북동리(北洞里), 물감리(勿甘里), 노동리(魯洞里), 장산리(長山里), 침교리(砧橋里), 북진리(北津里), 낙산사(洛山寺)

11) 국사 편찬 위원회(國史 編纂 委員會), 《한국사(韓國史)》 10 p.48,pp.65~66

강선면(降仙面):둔전동리(屯田洞里), 상복동리(上福洞里), 석교리(石橋里), 물치진리(勿緇津里)

도문면(道門面):상도문리(上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 물치리(勿緇里), 대포리(大浦里), 웅진리(甕津里), 신흥사(神興寺)

소천면(所川面):논산리(論山里), 부월포리(扶月浦里), 속초리(束草里), 속진리(束津里)

이 중에서 현재의 속초시(束草市) 지역에 해당하는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에 대한 동리별 기록 사항은 다음표와 같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속초(束草)의 동리별 호(戶)수와 인구(I)

면(面)	동 리	부(府)소재지로 부터의거리(리수)	호(戶)수	인 구		
				남	여	계
도문면 (道門面)	상도문리(上道門里)	30	20	33	33	66
	하도문리(下道門里)	25	35	44	82	126
	물치리(勿緇里)	20	18	19	33	52
	대포리(大浦里)	25	34	35	69	104
	웅진리(甕津里)	25	78	107	131	238
	신흥사(神興寺)	40	20	승(僧)49		승(僧)49
	계		205	287	348	635
소천면 (所川面)	논산리(論山里)	30	20	39	58	97
	부월포리(扶月浦里)	30	18	48	38	86
	속초리(束草里)	35	86	90	182	272
	속진리(束津里)	35	58	79	96	175
	계		182	256	374	630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함

그후 《읍지(邑誌)》에서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된다.

조선시대(朝鮮時代) 속초(束草)의 동리별 호(戶)수와 인구(II)

면 (面)	내 용 동리	읍지(邑誌)						1870년경 추정(관동읍지(關東邑誌))						1887년경 추정(양양읍지(襄陽邑誌))						1809년(襄陽郡邑誌)		현일합방(1910)직후(현안지)			
		부(府)로 부터의 거리(리수)	호 (戶) 수	인 구			부(府)로 부터의 거리(리수)	호 (戶) 수	인 구			호(戶)수	호 (戶) 수	인 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도 문 면	상도문리(上道門里)	30	61	96	145	240	25	57	112	111	223														
	하도문리(下道門里)	25	24	33	58	91	20	24	28	42	70														
	물치리(勿緇里)	20	21	25	41	66	20	41	69	92	161														
	대포리(大浦里)	25	23	24	42	66																			
	웅진리(甕津里)	25	35	53	74	127	25	29	49	37	86														
	신흥사(神興寺)	50	21	승38		승38	50	22	승48		승48														
계		185	268	360	628	173	306	282	588	155	165	227	347	584											
所 川 면	논산리(論山里)	30	38	51	54	105	30	16	22	57	79														
	부월포리(扶月浦里)	35	52	72	105	177	35	51	71	88	159														
	속초리(束草里)	35	47	99	111	210	35	77	103	153	256														
	속진리(束津里)	35	51	70	106	176	35	35	40	57	97														
	계		188	282	376	688	179	236	355	591	201	182	265	374	639										

《읍지(邑誌)》에 의함

여기에서 다음 몇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과거에는 대포(大浦)가 속초(束草)보다 컸었다고 흔히들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에 언급하게 될 일제시대(日帝時代) 전 반기에 한정된 것이지,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대포(大浦)도 조그마한 동리였고, 어느 기

록을 보더라도 대포(大浦)는 속초(東草) 혹은 영의 웅진(襄津, 오늘날의 외옹치)보다 인구가 적은 동리였다.

둘째, 흔히들 속초(東草)를 예전에 속진(東津)이라고도 불렀다고 하여 속진(東津)은 속초(東草)의 과거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것이다. 어느 《읍지(邑誌)》를 보더라도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분명히 속초리(東草里)와 속진리(東津里)가 구분되어 있었다. 물론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 부터의 거리도 35리(里)로 같았고, 속진(東津)이란 이름은 속초(東草)의 ‘속(東)’자와 나룻가를 뜻하는 ‘진(津)’자의 결합인 것으로 미루어 속진리(東津里)는 속초리(東草里)에 인접한 나룻가 동리였던 것을 알 수 있다.¹²⁾ 그러다가 다음에 일제시대(日帝時代)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일제시대(日帝時代)면(面)·리(里) 폐합 때 속초리(東草里)와 속진리(東津里)로 통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외옹치(外甕峙)의 조선시대(朝鮮時代) 명칭은 웅진(襄津)이었다.

넷째, 부월리(扶月里)의 명칭이 가장 오래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부월포리(扶月浦里)로 기록되어 있고 그후 《읍지(邑誌)》에서 부터는 부월리(扶月里)로 기록되어 있다.

다섯째, 물치(勿淄)의 ‘치(淄)’자가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치(緇)’자 였다.

4. 대포영(大浦營) 문제

속초시(東草市)에서 발행되는 거의 모든 문헌에서 속초(東草)의 연혁을 설명할 때, 속초(東草)는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대포영(大浦營)에 속했고, 대포영(大浦營)이란 해군 부대는 오늘날의 대포(大浦)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³⁾ 즉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오늘날의 대포(大浦)에 대포영(大浦營)이란

해군부대가 있었고, 속초(東草)도 그 부대장인 수군만호(水軍萬戶)의 관할 하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시대(朝鮮時代) 대포영(大浦營)의 위치에 유의하지 않고 이름이 같은 것만 생각한 데서 온 오류이다. 더우기 이렇게 생각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일제시대(日帝時代)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일제시대(日帝時代) 전반기에 속초리(東草里)가 속했던 도천면(道川面) 소재지가 대포(大浦)였으므로 과거에 속초(東草)는 대포(大浦)에 속했었다는 발상에서 연유한다. 그리고 설사 대포영(大浦營)이 오늘날의 대포(大浦)에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여도, 그 부대장인 수군만호(水軍萬戶)는 수령(守令), 즉 지방관이 아니므로¹⁴⁾ 속초(東草)가 대포영(大浦營)에 속했다고 말할 수 없겠다.

대포영(大浦營)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인 《신증 동국 여지 승람(新增 東國 輿地 勝覽)》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포영(大浦營)은 부(府) 동쪽 12리(里)에 있다. 성종(成宗) 21년(1490년)에 강릉(江陵) 안인포(安仁浦)에서 여기로 옮겨 왔다. 수군만호(水軍萬戶) 1명이 있다. 정덕(正德, 중국 명나라 武宗 때의 연호) 경진(庚辰)년(조선 中宗 15년, 1520년)에 돌로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1,469척(尺)이고 높이가 12척(尺)이다.(大浦營在府東十二里成宗二十一年自江陵安仁浦移泊于此水軍萬戶一人正德庚辰築石城周一千四百六十九尺高十二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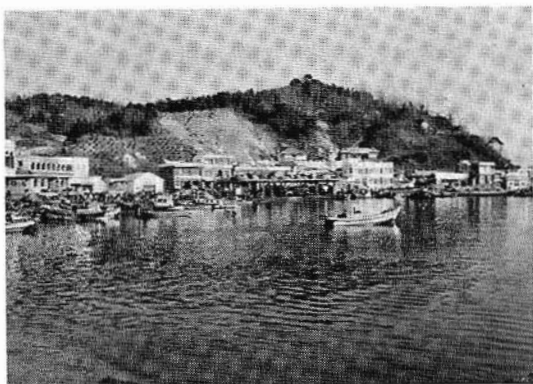
그 후의 기록인 《동국 여지지(東國 輿地志)》, 《여지도서(輿地圖書)》, 《증보 문헌 비고(增補 文獻 備考)》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끝 부분에 ‘금폐(今廢)’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에는 폐해진 것을 알 수

12) 명주군(溟州郡) 강동면(江東面)에도 안인리(安仁里)와 인접하여 안인진리(安仁津里)가 있다.

13) 속초 문화원, 《속초(東草)의 민속(民俗)》 p.11
 속초 문화원, 《속초문화(東草 文化)》 제3호 p.34, p.36
 속초 문화원, 《속초 문화(東草 文化)》 제4호 p.44
 한글 학회, 《한국 지명 총람》 2(강원도) p.172
 속초시, 《설악(雪嶽)의 뿌리》 p.8

14) 국사 편찬 위원회(國史 編纂 委員會), 《한국사(韓國史)》 10 p.102

조선시대에 東草가 大浦營에 속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다. 각종 문헌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이때의 大浦營은 오늘의 襄陽郡 造山里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있다.

그러면 정확히 언제 폐해졌는가? 앞에서 인용한 3기록중 시대가 가장 앞선 것이 《동국 여지지(東國輿地志)》인데, 《동국 여지지(東國輿地志)》는 현종(顯宗, 1659~1674)때 나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어도 현종(顯宗) 때에는 폐해진 것을 알 수 있다. 1976년 양양문화원 발행 《향토지(鄉土誌)》에는 광무(光武) 5년(1901년) 《양양읍지(襄陽邑誌)》의 기록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인조(仁祖) 4년 병인(丙寅) 1626년에 방위지가 못 된다 하여 혁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부(府)로 부터 동쪽 12리(里)지점인 대포영(大浦營)은 오늘날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날의 양양군(襄陽郡) 양양읍(襄陽邑) 조산리(造山里) 속칭 조산호수가 그곳이다. 속칭 조산호수, 예전부터의 명칭 대포(大浦)에 대하여 1976년 양양문화원에서 발행한 《향토지(鄉土誌)》 자연환경, 하천과 호소(湖沼)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포(大浦):일명 황포(黃浦)라고 한다. 양양면(襄陽面) 조산리(造山里) 전방 남대천(南大川) 하류구(下流口)에 있다. 파도가 심하면 하구가 막혀서 호수(湖水)가 조산리(造山里) 앞까지 차오른다. 호(湖)의 서북에 대포성(大浦城)이 있었으므로 그 뜻을 따서 대포(大浦, 한개목)라 명칭하였다고 한다.¹⁵⁾ 후포(後浦)는 대포(大浦)와 연결하여 동해묘(東海廟) 구지(舊址) 아래에 있으며, 해송이 주위를 싸고 명사(明沙)가 그 밖을 연(連)하여 한쪽의 활화

(活畫)를 이루고 있다.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주둔하였다.」

이것으로 보아도 조산호수를 예전부터 대포(大浦)라고 하였으며, 그 서북에는 대포성(大浦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지명총람》에도 조산리(造山里)에 성(城) 안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의 '성안말', 북쪽 문 뒷편 마을이란 의미의 '북문뒤' 등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또 거의 모든 《양양읍지(襄陽邑誌)》에도 조산리(造山里)에 유허비(遺墟碑)만 남아 있다가, 최근에 복원된 동명서원(東溟書院)이 대포성중(大浦城中)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朝鮮時代)에 해군부대였던 대포영(大浦營)이 양양군(襄陽郡) 양양읍(襄陽邑) 조산리(造山里)에 위치했던 것은 틀림이 없다. 막연히 이름이 같은 것만 생각하여 대포영(大浦營)이 오늘날의 대포(大浦)에 위치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배가 정박했던 속칭 조산호수는 지금도 마을과 낙산 해수욕장 D지구 사이에 남아 있으나 현재 상태는 과거와 다르다. 후포(後浦)는 최근 7, 80년대에 완전히 매립되어 버렸고, 대포(大浦)도 일부는 매립되어 버렸다. 그러나 남대천(南大川)과 연결되어 있고,

15) 실체는 반대로 그곳 지명이 대포(大浦, 한개 또는 한개목)였으므로 대포영(大浦營)이라고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87년 속초문화원에서 발행한 《속초문화(東草文化)》 제3호에 실린 윤홍열(尹弘烈)의 <대포항(大浦港)> 기사에 보면 「이 대포항(大浦港)이란 밑물이 드나드는 큰 포구라는 뜻일진대, 우리의 옛말로는 '한개'였으리라」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같은 지명이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대포(大浦)뿐만 아니라, 대포(大浦)의 다른 이름인 황포(黃浦) 역시, 고성군(高城郡) 죽왕면(竹旺面) 삼포리(三浦里)에도 남아 있다.

또 과거에는 남대천(南大川)의 유로가 지금보다 북쪽이었음을¹⁶⁾ 감안하면 충분히 균형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혹자는 오늘날 대포(大浦)에 성(城)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朝鮮時代) 대포영(大浦營) 성(城)터이고, 그러므로 조선시대(朝鮮時代) 대포영(大浦營)은 오늘날의 대포(大浦)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시대의 성(城)일 것이다. 이 부근에는 시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성(城)터가 여러개 남아 있다. 우선 권금성(權金城), 토왕성(土旺城), 양양읍성(襄陽邑城)은 물론이고, 194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나온 《조선 보물·고적 조사 자료(朝鮮 寶物·古蹟 調査 資料)》에 의하면, 양양군(襄陽郡, 당시에는 東草市 포함)에만 성(城)터가 8개 기록되어 있다.¹⁷⁾ 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면, 오늘날의 청초호(靑草湖)인 쌍성호(雙成湖) 설명 중 「예전에는 만호영(萬戶營)을 설치하여 병선이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라고 기록되어 있

는데, 이것이 조선시대(朝鮮時代) 이전의 사실이라면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사실일 가능성이 많고,¹⁸⁾ 실제로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등의 문헌에 의하면,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동해안에 동여진(東如眞)과 왜구(倭寇)가 수차례 침입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만호영(萬戶營)일 가능성이 많다. 혹은 더 이전의 사실인지도 모르겠다. 오늘날의 대포(大浦)에 남아 있는 성(城)터도 조선시대(朝鮮時代) 이전 어느 시대의 성(城)일 것이다.

5. 일제시대(日帝時代) 이후의 속초(束草)

속초(束草)의 역사가 바뀌는 것은 일제시대(日帝時代) 부터이다. 일제(日帝)는 한일합방(韓日合邦) 후 1914. 3. 1부령(府令) 제111호로 지방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기존의 13도(道)는 그대로 두고, 도(道) 밑의 군(郡)은 317개에서 220개로, 군(郡) 밑의 면(面)도 4,338개에서 2,521개로 통합하였다.¹⁹⁾ 이 때 양양군(襄陽郡)도 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통합하여

- 16) 과거에 남대천(南大川)의 유로는 현재보다 북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지금은 농경지 정리 사업으로 없어졌지만, 포월리(浦月里), 청곡리(靑谷里) 일대에 6·70년대까지 과거의 유로였던 우각호(牛角湖)가 많이 남아 있었고, 또 남대천(南大川) 하류 북쪽 땅의 일부가, 남대천(南大川)의 북쪽이니까 양양읍(襄陽邑)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도상으로는 계속 손양면(巽陽面)으로 있다가, 1989. 1. 1부터 양양읍(襄陽邑)으로 바뀐 것이 그 증거다.
- 17) ① 현남면(縣南面) 견불리(見佛里) 성(城)터:부락에서 북서쪽으로 약 400간(間, 1간은 1.818m)떨어진 산봉우리에 있는데, 길이가 약 300간(間)이고 토석축(土石築)으로 되어 있는데 불완전하다. ② 현남면(縣南面) 광진리(廣津里) 성(城)터:부락에서 서쪽 방향 해안에 있는 봉우리에 있는데, 길이가 약 200간(間)이고 토석축(土石築)인데 불완전하다. ③ 현북면(縣北面) 상광정리(上光丁里) 성(城)터:부락에서 서북쪽으로 약 150간(間) 떨어진 작은 구릉상에 있는데, 길이가 약 200간(間)이고 토축(土築)이며 불완전하다. ④ 양양면(襄陽面) 임천리(林泉里) 성(城)터:부락에서 서쪽으로 약 300간(間) 떨어진 남대천(南大川) 절벽에 있는데, 길이가 약 300간(間)이고 토축(土築)이며 불완전하다. ⑤ 양양면(襄陽面) 조산리(造山里) 성(城)터:부락에 근접하고 있는 서쪽 봉우리에 있는데, 주위가 약 300간(間)이며 토축(土築)인데 일부는 석축(石築)이고 불완전하다. ⑥ 도천면(道川面) 대포리(大浦里) 성(城)터:부락에서 북쪽으로 몇 정(町, 1정은 60間으로 약 109m)떨어진 산봉우리에 있는데, 주위가 약 70간(間)이며 토축(土築)이고 불완전하다. ⑦ 도천면(道川面) 장항리(獐項里) 성(城)터:신흥사(神興寺)에서 남쪽으로 10여 정(町) 떨어진 암벽 위에 있는 토왕성(土旺城) 및 권금성(權金城) 성(城)터를 말하는데 일부는 석축(石築)이고 주위는 각각 약 200간(間)이며 불완전하다.
- 18) 앞에서 인용한 《속초(束草)의 민속(民俗)》에는 「속초(束草)에 고려(高麗) 때에는 척(尺)을 설치하여, 수군만호(水軍萬戶)를 두어 방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사료에 의거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빙할 수 없고, 또 척(尺)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 19) 국사 편찬 위원회(國史 編纂 委員會), 《한국사(韓國史)》 21 p.32



東津里는 지금의 동명항 부근이었을 것이며, 束草里는 현재의 시청 부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천면(道川面)이 되었다.²⁰⁾ 이 때의 상황에 대하여 《한국 지명 총람》에는,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겠지만 「본래 양양군(襄陽郡) 소천면(所川面)이라 하여 논산(論山), 부월(扶月), 노동(蘆洞), 속초(束草), 외옹치(外甕峙)의 5개 리(里)를 관할하다가, 1914년 면(面) 폐합 때 도문면(道門面)의 장항(獐項), 상도문(上道門), 중도문(中道門), 하도문(下道門), 대포(大浦), 내물치(內勿淄)의 6개 리(里)를 병합하여 11개 리(里)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조선시대(朝鮮時代)와 비교하여 보면 첫째, 웅진리(甕津里)가 외옹치리(外甕峙里)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도문면(道門面) 소속이 아니라 소천면(所川面)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 지명 총람》의 오류로 생각된다.

둘째, 속진리(束津里)가 없어졌는데, 이것은 속초(束草)를 과거에는 속진(束津)이라고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인접한 속초리(束草里)에 병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속진리(束津里)와 속초리(束草里)는 각각 어디에 위치했었는가? 속진리(束津里)는 그 이름에 나룻가를 뜻하는 ‘진(津)’자가 들어 있

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등대 부근인 ‘마짜개(마작)’, ‘삼짜개(새작)’로 추정되고,²¹⁾ 속초리(束草里)는 속진리(束津里)와 인접한 서쪽 마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물치리(勿淄里)가 대포(大浦)를 중심으로 하여 외옹치리(外甕峙里)와 짝을 맞춰 내물치리(內勿淄里)로 변하였고, ‘치(淄)’자도 ‘치(淄)’자로 변하였다.

네째, 상도문리(上道門里)와 하도문리(下道門里) 사이에 중도문리(中道門里)가 신설되었다.

다섯째, 노동리(蘆洞里, 또는 蘆里)가 신설되었는데, 그 전에는 논산리(論山里)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신흥사(神興寺) 부근이 장항리(獐項里)로 변하였다.

당시 대포리(大浦里)는 도천면(道川面)의 소재지였고, 근대화에 따라 외지와외의 교통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한 상당히 큰 항구였다.

그러다 일제시대(日帝時代) 후기에 오면 청초호(靑草湖)가 항구로 개발됨에 따라 청초호(靑草湖)에 인접한 속초(束草)가 커져서, 1937. 7. 1 면(面) 소재지가 대포리(大浦里)에서 속초리(束草里)로 옮겨지고, 면(面)의 명칭도 도천면(道川面)에서 속초면(束草面)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1942. 10. 1 부령(府令) 제104호로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束草里)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뉘지며, 노리(蘆里)에서

20) 이것에 대하여, 1982년 속초시(束草市)에서 발행한 《설악(雪嶽)의 뿌리》에서는 1908년, 1983년 뿌리 깊은 나무 발행 《한국의 발견》과 1987년 속초문화원 발행 《속초(束草)의 민속(民俗)》에서는 1912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914. 3. 1로 정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21) ‘마작’, ‘새작’은 뱃사람들의 말로 남쪽과 동쪽을 뜻하는 말이고, ‘마짜개(마작)’, ‘삼짜개(새작)’는 남쪽 마을, 동쪽 마을을 뜻하는 말이다. 두 마을은 현재 속초(束草) 등대가 있는 산등성이를 경계로 하여 ‘마짜개(마작)’는 동명동(東明洞), ‘삼짜개(새작)’는 영랑동(永郎洞)에 소속되어 있다. 양양군(襄陽郡) 현남면(縣南面) 동산리(銅山里)에도 ‘마작’, ‘새작’ 마을이 있다.



靑草湖가 항구로 개발됨에 따라 靑草湖에 인접한 束草가 커져서 1937년 면소재지가 大浦里에서 束草里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道川面에서 束草面으로 바뀌었다.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가 분리되어 14개 리(里)가 되었다.

1945. 8. 15 해방 이후 공산치하에 있다가, 6. 25 사변으로 수복되어 1951년 부터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²²⁾ 다시 속초읍(束草邑)이 되었다. 이어서 1951년 10월에는²³⁾ 양양군(襄陽郡) 토성면(土城面)²⁴⁾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를 편입하였다. 그러다 1954. 11. 17²⁵⁾ 법률 제350호인 '수복 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에 의거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

양되었다. 이 때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는 다시 토성면(土城面)으로 넘겨 주고, 부월리(扶月里)에서 온정리(溫井里), 논산리(論山里)에서 청대리(靑垜里)가 분리되었고, 속초리(束草里)는 5구와 6구가 신설되어²⁶⁾ 속초읍(束草邑)은 16개 리(里)가 되었다.

1963. 1. 1²⁷⁾ 법률 제1176호로 시(市)로 승격되었고, 1966. 1. 1 동(洞)제 실시에 따라 1구는 영랑동(永郎洞), 2구는 동명동(東明洞), 3구는 중앙동(中央洞), 4구는 금호동(琴湖洞), 5구는 청호동(靑湖洞), 6구는 청학동(靑鶴洞)과 교동(校洞)으로²⁸⁾ 명칭이 변경되었고, 한편 부월리(扶月里), 온정리(溫井里), 논산리(論山里), 청대리(靑垜里)는 합쳐져서 조양동(朝陽洞)으로, 노리(蘆里), 도리원리(桃

- 22) 수복되어 군정이 시작된 날짜에 대하여, 《한국의 발견》은 1951. 1. 8, 《속초(束草)의 민속(民俗)》은 1951. 7. 5, 《설악(雪嶽)의 뿌리》는 그냥 1951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 23) 《한국 지명 총람》과 《속초(束草)의 민속(民俗)》에만 정확한 날짜 없이 1951년 10월로 기록되어 있다.
- 24) 토성면(土城面)은 원래 간성군(杆城郡)에 속했는데, 1914. 3. 1 간성군(杆城郡)과 고성군(高城郡)이 합쳐져서 간성군(杆城郡)이 되었던 것이 1919. 5. 15 부령(府令) 제88호로 고성군(高城郡)으로 바뀌면서 군청 소재지가 고성(高城)으로 옮겨지고, 동시에 고성군(高城郡)의 토성면(土城面)과 죽왕면(竹旺面)이 양양군(襄陽郡)에 편입되어 1962년 말 까지 양양군(襄陽郡)에 속했었다.
- 25) 《한국 지명 총람》, 《설악(雪嶽)의 뿌리》, 《속초(束草)의 민속(民俗)》에는 모두 1954. 11. 17로 기록되어 있으나, 《한국의 발견》에는 1954. 10. 21로 기록되어 있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아마 법률이 공포된 날짜는 1954. 10. 21, 법률이 시행된 날짜는 1954. 11. 17인 것으로 생각된다.
- 26) 5구는 3구에서, 6구는 4구에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되나, 본인이 고찰한 자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확신하지는 못하겠다. 혹시 5구는 그전에 부월리(扶月里)에 소속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오래된 사실이 아니므로 확실한 것을 아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런 분의 정확한 지적을 바란다.
- 27) 이것 역시 《한국 지명 총람》과 《속초(束草)의 민속(民俗)》에는 1962. 11. 21로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을 못하였지만, 아마도 1962. 11. 21 법률이 공포되어 1963. 1. 1 부터 시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 28) 이것 역시 본인이 고찰한 자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확신하지는 못하겠다. 혹시 2개 이상의 동리에서 일부씩 합쳐져서 새로운 동(洞)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확실한 것을 아는 분의 정확한 지적을 부탁한다. 특히 청학동(靑鶴洞)이 3구, 4구 혹은 5구 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청학시장(靑鶴市場)의 이전 이름이 6구시장이었으므로 타당하지 못하겠고, 교동(校洞)이 6구였으니까 청학동(靑鶴洞)은 6구가 아닌 다른 동리에서 생겨났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된 오류일 것이다. 이와 같은 오류는 6구가 동(洞)제 실시 때 청학동(靑鶴洞)과 교동(校洞)으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束草는 속새가 많음으로
인하여 「束草」로 불리웠다.
조선시대까지는 襄陽郡 所
川面 束草里였는데 일제시
대 때 道川面 束草리로 되
었다가 훗날 束草市로 승격
되었다.

6. 맺 음 말

‘속초(束草)’라는 지명은 속새가 많음으로 인하여 황무지, 원야(原野)의 의미로 속새 또는 그 한자어인 속초(束草)로 불리다가 속초(束草)라는 한자어만 남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1개 마을에 불과했고, 또 속진리(束津里)는 속초리(束草里)의 다른 이름이 아니고,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분명히 속초리(束草里)와는 별도로 속진리(束津里)로 있다가 일제시대(日帝時代)에 속초리(束草里)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대포영(大浦營)이란 해군 부대는 오늘날의 양양군(襄陽郡) 양양읍(襄陽邑) 조산리(造山里)에 있었다. 막연히 이름이 같은 것만 생각하여 대포영(大浦營)이 오늘날의 속초시(束草市) 대포(大浦)에 있었고, 속초(束草)가 대포영(大浦營)에 속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하루 바삐 시정되어야 하겠다.

일제시대(日帝時代)에 와서 1914. 3. 1 소천면(所川面)과 도문면(道門面)이 합쳐져 도

천면(道川面)이 됨에 따라, 양양군(襄陽郡) 도천면(道川面) 속초리(束草里)로 불리워졌다. 일부 문헌에 1914년이 1908년 또는 1912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하루바삐 시정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청초호(靑草湖)의 항구 개발에 따라 청초호(靑草湖)에 인접한 속초리(束草里)가 커지면서, 1937. 7. 1 면(面) 소재지가 대포리(大浦里)에서 속초리(束草里)로 옮겨지고, 면(面) 이름도 도천면(道川面)에서 속초면(束草面)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1942. 10. 1 부터는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되었고, 속초리(束草里)는 1구에서 4구 까지로 나뉘진다. 그러다 수복 후에는 피난민들의 정착으로 인구가 더욱 증가되어 5구, 6구가 신설되며, 드디어 1963. 1. 1 시(市)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으로 속초(束草)의 연혁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그동안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바르게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지 못하였고, 또 논리상 모순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의 지적을 바랄 뿐이다.

필 자 : 주 상 훈

- 속초고등학교 교사
- 속초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설악산의 환경과 생물

홍 문 표

I. 설악산의 개관

설악산은 지리적으로 북위 38°5'25"~38°12'36"동경 128°18'16"~128°26'43"의 범위에 있으며, 행정구역상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위치하고 있다.

설악산의 최고봉은 대청봉으로 표고 1708m로 남한에서는 한라산, 지리산 다음이고, 태백산맥 중의 최고봉이다.

설악산은 험준하고 웅장한 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식물로서는 1,000여종, 동물로서는 430종을 넘는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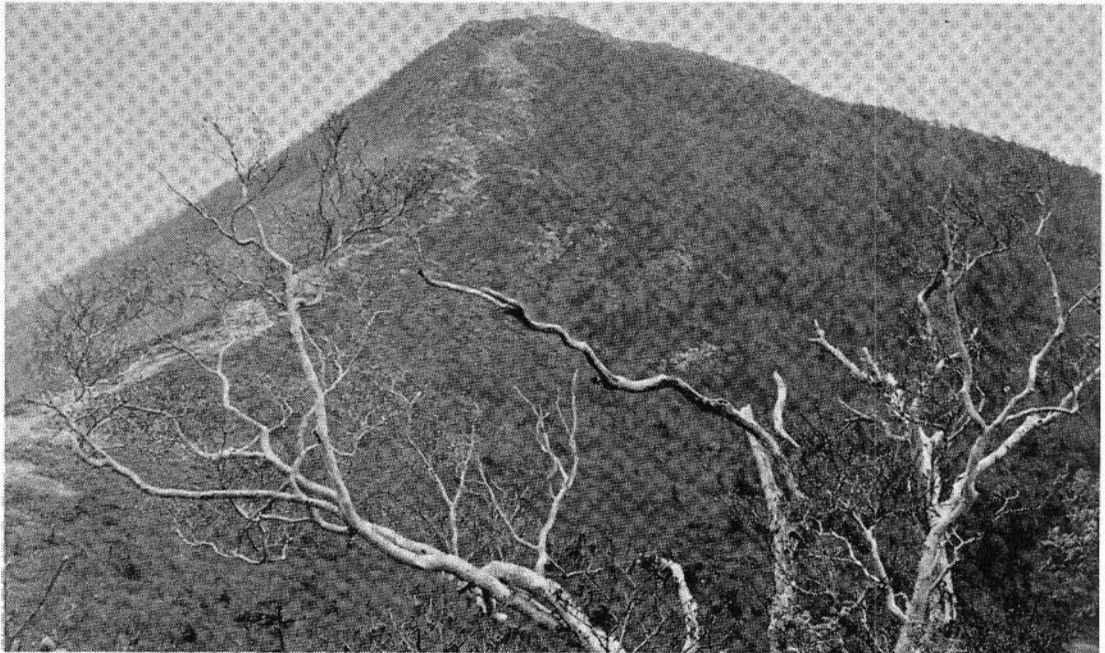
설악산의 연중 평균 기온은 남한에서 가장 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겨울에는 비교적 저온지대에 속하는 편이며, 산아래와 정상과의 기온차이는 대략 12~13°C정도이고 동해와 인접한 관계로 연중 강수량은 많은 편이다.

*설악산의 기후

설악산은 동해쪽으로 치우쳐서 남북으로 달리는 태백산맥의 연봉중에서 거의 북동쪽에 위치하므로 동쪽은 동해에 근접되어, 내륙으로 연속되는 서쪽과는 기후 양상이 다르다.

속초의 연평균 기온(표1)은 11.9°C로 인제의 9.7°C보다 2.2°C나 높고 최한월(1월)의 평균 기온은 속초가 인제보다 5.1°C 높은 데 반하여 최난월(8월)의 평균 기온은 속초가 인제보다 0.8°C정도밖에 높지 않는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속초와 인제의 연평균 강수량(표1)은 역시 속초가 234mm가량 많다. 특히 겨울철 적설량은 속초에서 적설량이 훨씬 많다. 이것은 설악산에서 가장 높은 대청봉의 응기에 의해 고도에 따른 기괴의 단열 팽창으로 기온은 내려가고 강수량이 증가하므로 동쪽에서는 외설악을 포함하여 겨울에 눈을 내리게 하기 때문이다.



<표 1> 설악산 부근의 기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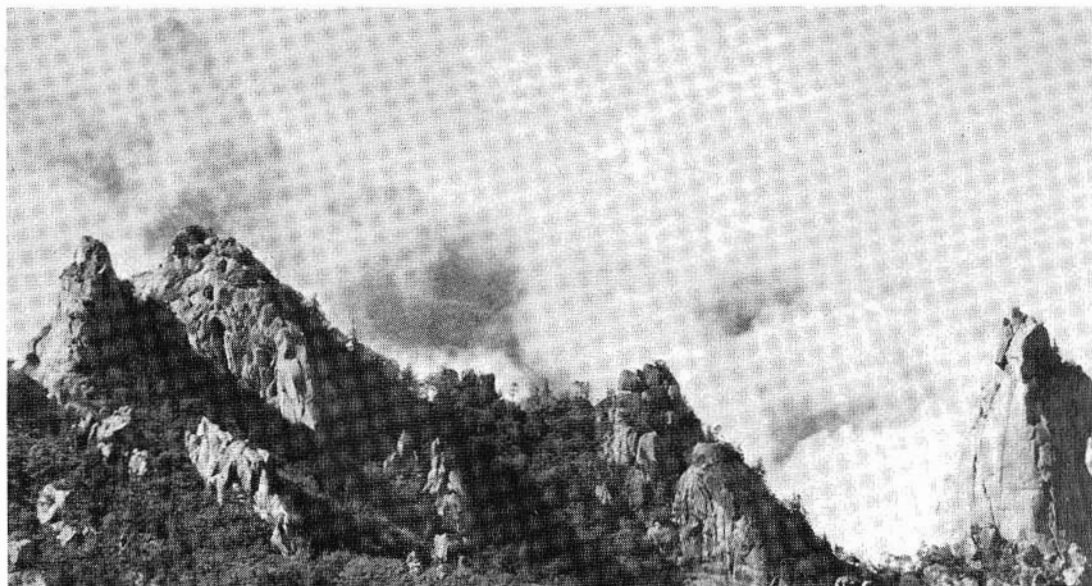
구분 \ 지소	강 룡	속 초	인 제
연평균 기온	12.4°C	11.9°C	9.7°C
연평균 최고기온	17.0°C	15.4°C	16.1°C
연평균 최저기온	8.5°C	8.6°C	4.2°C
연평균총강수량	1,382.8mm	1,291.2mm	1,057.2mm
일일최고기온	39.4°C 42년 7월 25일	35.8°C 83년 8월 4일	37.8°C 88년 8월 1일
일일최저기온	-20.2°C 15년 1월 13일	-16.2°C 81년 2월 6일	-25.9°C 81년 1월 6일
최한월(1월)평균기온	-0.4°C	-0.2°C	-5.3°C
최난월(8월)평균기온	24.3°C	23.7°C	22.9°C
신적설최심	67.2cm 56년 2월 28일	89.6cm 69년 2월 20일	41.9cm 71년 1월 20일
적설최심	130.2cm 23년 1월 27일	123.8cm 69년 2월 21일	47.0cm 72년 1월 23일

※ 1951년부터 1980년 까지의 통계자료

* 설악산의 지형

1. 산계(山系)

설악산맥의 지리적 위치는 서해안에서 약 200km이고 동해안까지는 약 15km이어서



이 두거리의 비는 약 13:1이다. 따라서 설악산의 서측의 산지는 저각도로 기울어져 황해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측의 산지는 급경사 면을 이루게 된다.

설악산맥의 능선을 경계로 하여 그 서측은 내설악이라고 불리우며, 동측은 외설악이라고 호칭한다.

설악산맥은 대청봉을 기점으로 하여 북북서로 향한 소위 공통능선이 있는데 무내미고개(표고 1,060m), 연화대(표고 1,275m), 마동령(표고 1,326.7m), 저항령(표고 1,110m), 황철봉(표고 1,381m), 미시령(표고 760m)로 이어진다.

서쪽으로는 서북주능이 있는데 1,459m봉을 지나 귀떼기 청봉(표고 1,377.6m), 1,408m봉, 대승령(표고 1,109m)으로 이어진다.

북동쪽으로는 화채봉(표고 1,325m)에 이르고 여기서 북북동 및 동방으로 연장된 능선은 관모봉(표고 890m)을 지나 동해에 이른다.

2. 수계(水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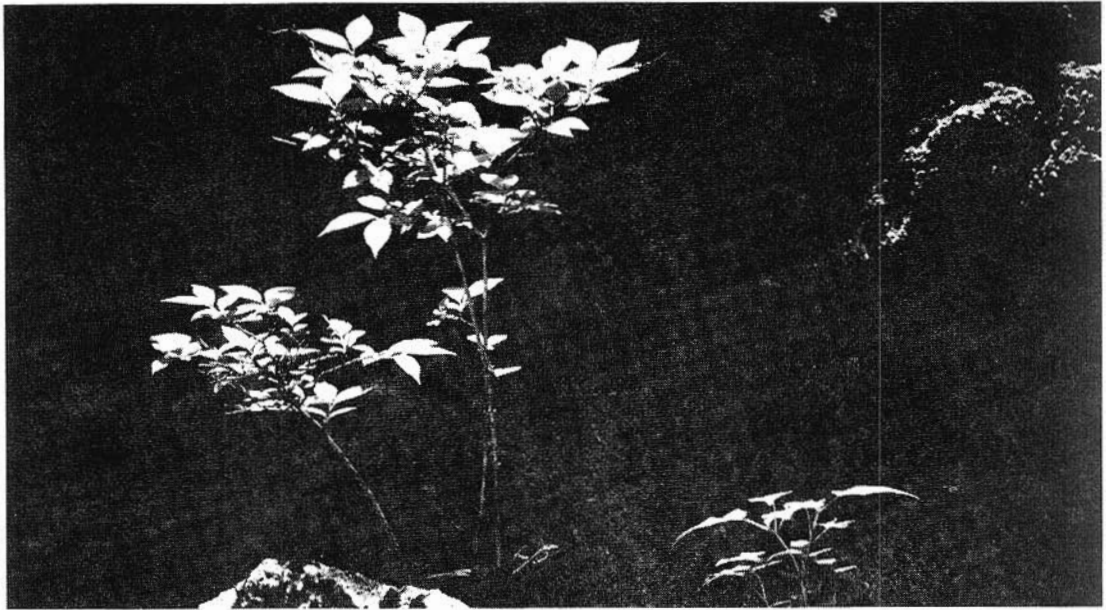
설악산 수계는 황해로 흘러드는 한강의 상지류들과 동해로 유입하는 여러 소하천들이다.

북한강의 상류인 소양강은 원통 부근에서 북지류인 북천과 한계천으로 갈라진다. 북천은 용대리에서 동남쪽으로 작은 지류가 갈라져 백담사를 지나 소청봉(표고 1,666m)에 이르고 이 계류는 하류에서 상류로 백담사계, 수렴동계 및 구곡담계로 명명되어 있다.

한계천은 한계령(표고 917m)에서 서북서류하여 장수대를 지나 북천과 합류한다. 설악산맥의 동사면은 북에서 남으로 쌍천, 물치천, 남대천 상지류가 흐르고 있다.

* 설악산의 식물상

설악산의 식물구계는 중·일 식물구계중 온대아구의 한국구에 속하고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원시림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이 원시림은 낙엽활엽수와 상록침엽수의 혼합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부분적으로 단순림을 형성한 것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정상부근에 발달한 고산식물 군락은 과거 지질시대의 기후 변천에 따른 식물 이동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설악산의 관속식물은 정태현·이일구(1959)에 의해 642종이 조사되었고, 정태현·이우철(1963)에 의해 758종 181변종 14품종이 조사되었으며, 설악산 학술조사 보고서(1967, 문교부)에는 855종류가 보고되었고, 설악산 학술조사 보고서(1984, 강원도)에는 882종류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이 본 지역에서 자라는 관속식물의 전부라고는 볼 수 없고 앞으로 조사에 의해 더더욱 많은 수자가 첨가될 것이므로 1,000종류 내외의 관속식물이 자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특산식물의 총수는 407종류인데, 이 중에서 65종류가 설악산에 자라고 있으며, 특히 설악산에서만 자라는 종류는 15종류에 달한다. 그리고 희귀식물 56종류가 자라고 있다.

특산 식물 목록

주목 科, Taxaceae

설악눈주목, *Taxus caespitosa* Nakai, 설악산 특산.

소나무 科, Pinaceae

금강소나무, *Pinus densiflora* for. *erecta* Uyeki, 本地域 特産品種.

사초 科, Cyperaceae

애기감동사초, *Carex fusanensis* Ohwi, 우리나라 特産種.

지리대사초, *Carex okamotoi* Ohwi, 우리나라 특산종의 分布 北限地.

백합 科, Liliaceae

여우꼬리풀, *Aletris fauriei* Lev. et Vut., 우리나라 特産種.

버드나무 과, Salicaceae

떡버들, *Salix hallaisanensis* Lev., 우리나라 특산종

긴잎떡버들, *Salix hallaisanensis* var. *longifolia* Nakai, 우리나라의 특산變種.

호랑버들, *Salix hulteni* Floderus, 北方因子로서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稀貴種.

좀호랑버들, *Salix hulteni* var. *elongata* Nakai, 基本種보다 북쪽에서 자란다.

미나리아재비 과, Ranunculaceae

홀아비 바람꽃, *Anemone koraiensis* Nakai, 본 지역의 특산종.

요강나물, *Clematis fusca* var. *coreana* Nakai, 본 지역의 특산종.

할미밀망, *Clematis trichotoma* Nakai, 우리나라의 특산종.

모데미풀, *Megaleranthis saniculaefolia* Ohwi, 우리나라의 특산屬이다.

연잎쟁의다리, *Thalictrum coreanum* Lev., 우리나라 특산종.

금쟁의다리, *Thalictrum rochebrunianum* var. *grandisepalum* Ohwi, 우리나라의 특산變種.

매자나무 과, Berberidaceae

매자나무, *Berberis koreana* Palibin, 우리나라 특산종.

십자화 과, Cruciferae

꽃황새냉이, *Cardamine amaraeformis* Nakai, 우리나라 특산種.

범의귀 과, Saxifragaceae

참바위취, *Saxifraga oblongifolia* Nakai, 우리나라 특산식물.

매화말발도리, *Deutzia coreana* Lev., 우리나라 특산종.

지리말발도리, *Deutzia coreana* var. *triadiata* Hatus, 우리나라 특산變種.

장미 과, Rosaceae

터리풀, *Filipendula galaberima*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금강배나무, *Pyrus ussuriensis* var. *diamantica* Uyeki, 우리나라 특산變種의 분포 남한지.

백운배나무, *Pyrus ussuriensis* var. *hakunensis* T. Lee, 우리나라의 특산變種.

설악아구장나무, *Spiraea pubescens* var. *lasiocarpa* Nakai, 本地域 특산變種.

콩 과, Leguminosae

주엽나무, *Gleditsia japonica* var. *koraiensis*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풀싸리, *Lespedeza thunbergii* var. *intermedia* T. Lee, 우리나라 특산종.

광릉갈퀴, *Vicia venosa* var. *cuspidata* Maxim., 우리나라 특산종.

노랑갈퀴, *Vicia venosissima*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갈매나무 과, Rhamnaceae

털갈매나무, *Rhamnus koraiensis* Schneider, 우리나라 특산종.

피나무 과, Tiliaceae

염주나무, *Tilia megaphylla* Nakai, 雪嶽山 地域의 특산종.

털피나무, *Tilia rufa*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뽕잎피나무, *Tilia taquetii* Schenider, 우리나라 특산종.

제비꽃 과, Violaceae

금강제비꽃, *Viola diamantica*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두릅나무 과, Araliaceae

지이오갈피, *Acanthopanax chiisanensis*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맛두릅, *Oplopanax elatus* Nakai, 우리나라 특산식물.

산형 과, Umbelliferae

등대시호, *Bupleurum euphorbioides* Nakai, 우리나라 특산종의 분포 남한지.

진달래 과, Ericaceae

산앵도, *Vaccinium koreanum*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앵초 科, Primulaceae

금강봄맞이, *Androsace cortusaefolia* Nakai, 雪嶽山 以北에서 자라는 특산종.

물푸레나무 科, Oleaceae

만리화, *Forsythia ovata* Nakai, 外雪嶽에서 자라는 특산종.

용담 科, Gentianaceae

큰용담, *Gentiana axillariflora* var. *coreana* kudo, 우리나라 특산종.

꿀풀 科, Labiatae

참배암차즈기, *Salvia chanroenica*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현삼 科, Scrophulariaceae

봉래꼬리풀, *Pseudolysimachion kiusiana* var. *diamanticum* Yamazaki, 우리나라 특산종.

산꼬리풀, *Pseudolysimachion rotundum* var. *subintegrum* Yamazaki, 우리나라 특산종.

큰산꼬리풀, *Pseudolysimachion rotundum* var. *coreanum* Yamazaki, 우리나라 특산종.

토현삼, *Scrophularia koraiensis*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꼭두선이 科, Rubiaceae

갈퀴아제비, *Asperula lasiantha*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인동 科, Caprifoliaceae

길마가지나무, *Lonicera coreana*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흰둥 피불나무, *Lonicera okamotoana* Ohwi, 우리나라 특산종.

병꽃나무, *Weigela subsessilis* Bailey, 우리나라 특산종.

마타리 科, Valerianaceae

금마타리, *Patrinia saniculaefolia* Hemsley, 우리나라 특산종.

산토끼꽃 科, Dipsacaceae

채꽃, *Scabiosa mansenensis* for. *pinnata*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초롱꽃 科, Campanulaceae

도라지 모싯대, *Adenophora grandiflora*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흰 도라지 모싯대, *Adenophora grandiflora* for. *alba* T. Lee, 우리나라 특산품종.

흰 두메잔대, *Adenophora lamarckii* for. *albiflora* T. Lee, 본 지역 특산품종.

금강초롱, *Hanabusaya asiatica* Nakai, 우리나라 특산屬.

흰 금강초롱, *Hanabusaya asiatica* for. *alba* T. Lee.

실악 금강초롱, *Hanabusaya asiatica* for. *albescens* T. Lee, 설악산 특산품종.

오색 금강초롱, *Hanabusaya asiatica* for. *rubescens* T. Lee.

붉은 금강초롱, *Hanabusaya asiatica* for. *rubropurpurea* T. Lee.

국화 科, Compositae

정영경귀, *Cirsium chanroenicum*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솜다리, *Leontopodium coreanum* Nakai, 특산종.

금강 분취, *Saussurea diamantica*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긴잎 금강분취, *Saussurea diamantica* var. *longkfolia* Nakai, 우리나라 특산변종.

당분취, *Saussurea nutans* Nakai, 우리나라 특산종.

국화 방망이, *Senecio koreanus* Kom., 우리나라 특산종.

희귀 식물 목록

면마 科, Aspidiaceae



설설 고사리, *Phegopteris decursive-pinnata* Fee, 北方 分布 限界.

측백나무 科, Cupressaceae

눈 측백나무, *Thuja koraiensis* Nakai, 東亞地域 特産種의 分布 南限地.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Henry, 高山性 稀貴種.

사초 科, Cyperaceae

난사초, *Carex lasiolepis* Franchet, 分布 南限地로서 稀貴種.

작은황새풀, *Eriophorum gracile* Koch, 分布 南限地로서 稀貴種.

백합 科, Liliaceae

두메부추, *Allium senesceas* L., 北方因子의 分布 南限地로서 稀貴種

산마늘, *Allium victorialis* var. *platyphyllum* Makino, 北方因子의 分布 南限地로서 稀貴種.

솔나리, *Lilium cernuum* Kom., 北方因子의 分布 南限地로서 稀貴種.

말나리, *Lilium distichum* Nakai, 北方因子의 分布 南限地로서 稀貴種.

큰연령초, *Trillium tschonoskii* Maxim., 北方因子로서 滅種 危機 線上에 놓여있는 稀貴種.

붓꽃 科, Iridaceae

꽃창포, *Iris ensata* var. *spontanea* Nakai, 生育地의 破壞로서 사라져 가는 稀貴種.

노랑붓꽃, *Iris koreana* Nakai, 生育地의 逸失로서 사라져 가는 稀貴種.

각시붓꽃, *Iris rossii* Baker, 生育地의 逸先로서 사라져 가는 稀貴種

난장이붓꽃, *Iris uniflora* var. *carina* Kitagawa, 高山性 特殊 立地에서 자라는 北方因子이며 分布 南限地로서 稀貴種.

버드나무 科, Salicaceae

쪽버들, *Salix maximowiczii* Kom., 北方因子로서 이 지역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稀貴性으로 취급한다.

새양버들, *Chosenia bracteosa* Nakai, 北方因子로서 分布 南限地이며 극히 드물다.

자작나무 科, Betulaceae

덤불오리나무, *Alnus fruticosa mandshusica* Callier,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로서 重要視 된다.

석죽 科, Caryophyllaceae

가는다리장구채, *Silene jeniseensis* Willd.,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로서 중요하다.

끈끈이장구채, *Silene koreana* Kom., 안면도에서 수집된 바 있으나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로서 중요하다.

미나리 아재비 科, Ranunculaceae

백부자, *Aconitum koreanum* Reymond, 減種 危機에 처한 희귀종.

한라돌쩌귀, *Aconitum napiforma* Lev. et Vnt.,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종.

바이칼바람꽃, *Anemone glabrata* Juzepc.,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로서 중요하다.

너도바람꽃, *Eranthis stellata* Maixm.,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로서 중요하다.

나도바람꽃, *Ipsopyrum raddeamum* Maxim.,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로서 중요하다.

백작약, *Paeonia japonica* Miyabe et Takeda, 減種 危機 植物.

매자나무 科, Berberidaceae

한계령풀, *Leontice microrhyncha* S. Moore,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로서 중요하다.

세모래덩굴 科, Menispermaceae

털세모래덩굴, *Menispermum davuricum* var. *pilosum* Schneider, 分布 南限地로서 중요하다.

십자화 科, Cruciferae

노랑장매, *Sisymbrium luteum* Schulz, 그리 많지 않으므로 減種 危機에 가까와 오고있다.

범의 귀 科, Saxifragaceae

톱바위취, *Saxifraga punctata* L.,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

장미 科, Rosaceae

이노리나무, *Crataegus komarovi* Sargent,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로서 중요하며 減種 危機에 처해있다.

좀양지꽃, *Potentilla matsumurae* Wolf, 고산성 다년초이며 드물다.

인가목, *Rosa acicularis* Lindley, 고산성 灌木이며 드물다.

흰인가목, *Rosa koreana* Kom.,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이며 數가 적다.

붉은인가목, *Rosa marretii* Lev.,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로서 중요하다.

나도양지꽃, *Waldsteinia ternata* Fritsch,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로서 중요하다.

콩 科, Leguminosae

흰싸리, *Lespedeza bicolor* for. *alba* Ohwi, 희귀품종.

꽃나비나물, *Vicia unijuga* var. *apoda* Maxim., 고산식물이며 분포가 좁다.

쥐손이풀 科, Geraniaceae

산쥐손이, *Geranium davuricum* Dc., 고산성 희귀식물.

털쥐손이, *Geranium eriostemon* Fischer, 고산성 희귀식물.

대극 科, Euphorbiaceae

사랍주나무, *Sapium japonicum* Pax. et Iloffm., 分布의 北限이 自生地.

단풍나무 科, Aceraceae

털고로쇠, *Acer mono* var. *ambiquum* Rehder, 雪嶽洞 以外에서는 드물다.

산형 科, Umbelliferae

참당귀, *Angelica gigas* Nakai, 減種 危機에 처한 種.

- 개회향, *Cnidium tachiroei* Makino, 환경의 파괴로 줄어들기 시작한 종류.
- 진달래 科, *Eriaceae*
 홍월굴, *Arctous ruber* Nakai, 北方 高山植物의 分布 南限地로서 중요하다.
 노랑만병초, *Rhododendron aureum* Georgi,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
 만병초, *Rhododendron fauriei* for. *rufescens* T. Lee, 고산성 희귀종.
 들쭉, *Vaccinium uliginosum* L., 고산식물의 분포 남한지.
- 용담 科, *Gentianaceae*
 칼잎용담, *Gentiana uchiyamai* Nakai, 희귀종.
- 가지 科, *Solanaceae*
 미치광이풀, *Scopolia japonica* Maxim., 멸종위기 식물.
- 현삼 科, *Scrophulariaceae*
 만주송이풀, *Pedicularis manshurica* Maxim.,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
 새머느리밥풀, *Melampyrum setaceum* var. *nakaianum* Yamazaki, 희귀 변종.
 구름송이풀, *Pedicularis verticillata* L.,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
- 박 科, *Cucurbitaceae*
 산외, *Schizopepon bryoniaefolia* Maxim., 희귀종.
- 초롱꽃 科, *Campanulaceae*
 두메잔대, *Adenophora lamarckii* Fischer, 북방분자의 분포남한지.
- 국화 科, *Compositae*
 두메분취, *Saussurea triangulata* Fr. et Meyer, 희귀종.
 덩불취, *Saussurea triangularis* subsp. *manshurica* Kitagawa, 北方因자의 分布 南限地.

* 설악산의 동물

동물분포를 보면 포유류, 조류 등에서 만주, 몽고, 시베리아 및 북한 등에 분포하는 한 지성, 고지성 종들이 설악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시베리아 아구의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지형상 북한의 고지대와 연결하는 태백산맥의 북쪽에 위치하는 비교적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시베리아 아구의 동물들이 남하하여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류는 내·외설악산의 환경조건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양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어류의 분포상 내설악에는 중국아지구의 대표적인 종류(돌고기, 버들치)들이 나타나지만 외설악에서 북방종(송어, 연어)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아몰아지구와 중국아지구의 중간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설악산이 일찍부터 분수령 역할을 해온 탓이라고 생각한다.

1. 포 유 류

지금까지 조사된 포유류는 39종인데 이 중 호랑이와, 대륙사슴은 절종되었고 표범은 절종 위기에 처해 있고, 사향노루, 산양, 곰, 하늘다람쥐, 늑대, 여우, 수달은 사라져가고 있는 희귀종이다.

포유류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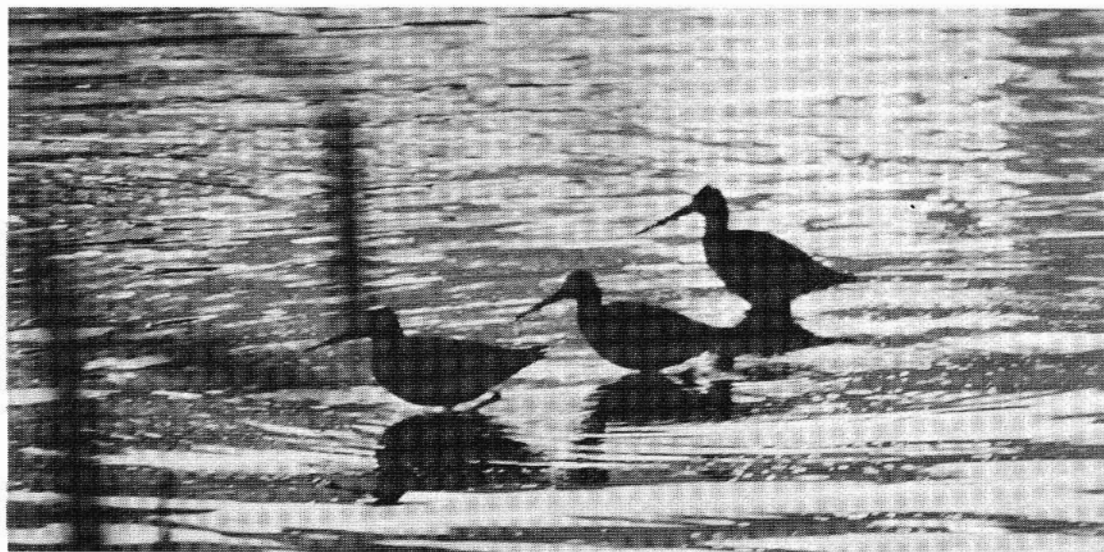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1	멧 돼 지	<i>Sus scrofa</i>
2	사 향 노 루	<i>Moschus moschiferus</i>
3	노 루	<i>Capreolus capeolus</i>
4	고 라 니	<i>Hydropotes inermis</i>
5	산 양	<i>Naemorhedus goral</i>
6	오 소 리	<i>Meles meles</i>
7	목 도 리 담 비	<i>Charronia flavigula</i>
8	족 제 비	<i>Mustela sibirica</i>
9	곰	<i>Selanarctos thibetanus</i>
10	너 구 리	<i>Nyctalus procyonoides</i>
11	삿	<i>Felis bengalensis</i>
12	표 범	<i>Panthera pardus</i>
13	멧 토 끼	<i>Lepus sinensis</i>
14	청 설 모	<i>Sciurus vulgaris</i>
15	다 람 쥐	<i>Tamias sibiricus</i>
16	날 다 람 쥐	<i>Petaurista leucognys</i>
17	대 륙 박 쥐	<i>Clethrionomy rufocanus</i>
18	비 단 털 쥐	<i>Cricetulus triton</i>
19	등 줄 쥐	<i>Apodemus agrarius</i>
20	흰넓적다리붉은쥐	<i>A. speciosus</i>
21	곰 쥐	<i>Rattus rattus</i>
22	집 쥐	<i>R. norvegicus</i>
23	생 쥐	<i>Mus musculus</i>
24	애 금 쥐	<i>Rattus rattus alexandrinus</i>
25	집 박 쥐	<i>Pipistrellus abramus</i>
26	멧 박 쥐	<i>Myotis lasiopetera</i>
27	두 더 쥐	<i>Talpa micrura</i>
28	고 습 도 치	<i>Erinaceus europaeus</i>
29	늑 대	<i>Canis lupus</i>
30	여 우	<i>Vulpes vulpes</i>
31	하 늘 다 람 쥐	<i>Pteromys volans</i>
32	호 랑 이	<i>Panthera tigris</i>
33	대 륙 사 습	<i>Cervus nippon hortulorum</i>
34	우 수 리 박 쥐	<i>Myotis daubentonii ussuriensis</i>
35	멧 밭 쥐	<i>Micromys minutus</i>
36	갈 밭 쥐	<i>Microtus fortis</i>
37	뒤 쥐	<i>Sorex minutus</i>
38	땃 쥐	<i>Crocidura lassiuira</i>
39	수 달	<i>Lutra lutra</i>

2. 조 류

설악산에서 관찰된 조류는 62종으로 이 중 텃새 32종, 여름새 23종, 겨울새 3종, 통과조 1종, 미조 1종, 미확인 2종으로 가장 흔한 것이 박새이며 다음으로 쇠박새, 동고비, 곤줄박이 노랑할미새 순으로 많이 관찰된다.

조류목록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1	검은댕기해오라기	<i>Butorides striatus amurensis</i> (Schrenck)
2	원 양 이	<i>Aix galericulata</i> Linnaeus
3	붉 은 배 새 매	<i>Accipiter soloensis</i> (Horsfield)
4	말 뚱 가 리	<i>Buteo buteo japonicus</i> (Temminck & Schlegel)
5	황 조 룡 이	<i>Falco tinnunculus interstinctus</i> Horsfield
6	매 의 일 종	<i>Falco</i> sp.
7	들 꿩	<i>Tertrastes bonasia vicinitas</i> Riley
8	멧 비 들 기	<i>Streptopelia orientalis orientalis</i> (Latham)
9	매 사 춘	<i>Cuculus fugax hyperythrus</i> Gould
10	검은줄박이빠꾸기	<i>Cueulus micropterus micropterus</i> Gould
11	빠 꾸 기	<i>Cuculus canorus telephonus</i> Heine
12	병 어 리 빠 꾸 기	<i>Cueulus saturatus horsfieldi</i> Moore
13	소 짝 새	<i>Otus scops stictonotus</i> (Sharpe)
14	속 뚝 새	<i>Caprimulgus indicus jotaka</i> Temminck & Schlegel
15	칼 새	<i>Apus pacificus pacificus</i> (Latham)
16	호 반 새	<i>Halcyon coromanda major</i> (Temminck & Schlegel)
17	물 총 새	<i>Alcedo atthis bengalensis</i> Gmelin
18	청 딱 다 구 리	<i>Picus canus griseouridis</i> (Clark)
19	까 딱 딱 다 구 리	<i>Dryocopus martius</i> (Linnaeus)
20	오 색 딱 다 구 리	<i>Dendrocopus major hondoensis</i> (Kuroda)
21	큰 오 색 딱 다 구 리	<i>Dendrocopus leucotos leucotos</i> (Bechstein)
22	쇠 딱 다 구 리	<i>Dendrocopus kizuki ijimae</i> (Taka- Tsukasa)
23	딱다구리의 일종	<i>Dendrocopus</i> Sp.
24	노 랑 할 미 새	<i>Motacilla cinerea robusta</i> (Brehm)
25	알 락 할 미 새	<i>Motacilla alba leucopsis</i> Gould
26	직 박 구 리	<i>Hypsipetes amaurotis hensoni</i> Stejneger
27	때 까 치	<i>Lanius bucephalus bucephalus</i> Temminck & Schlegel
28	노 랑 때 까 치	<i>Lanius cristatus lucionensis</i> Linnaeus
29	물 까 마 귀	<i>Cinclus pallasii pallasii</i> Temminck
30	굴 뚝 새	<i>Troglodytes troglodytes dauricus</i> Dybowski & Taczanowski
31	딱 새	<i>Phoenicurus aureus aureus</i> (Pallas)
32	흰 눈 썩 지 빠 귀	<i>Turdus sibiricus davisoni</i> (Hume)
33	호 랑 지 빠 귀	<i>Turdus dauma aureus</i> Holandre
34	돼 지 빠 귀	<i>Turdus hortulorum</i> Sclater
35	흰 배 지 빠 귀	<i>Turdus pallidus</i> Gmelin
36	개 뚱 지 빠 귀	<i>Turdus naumanni eunomus</i> Temminck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37	숲 새	<i>Cettia squameiceps</i> (Swinhoe)
38	휘 파 랍 새	<i>Cettia diphone borealis</i> Campbell
39	산 솔 새	<i>Phylloscopus occipitalis coronatus</i> (Temminck & Schlegel)
40	솔 새 의 일 종	<i>Phylloscopus</i> Sp.
41	큰 유 리 새	<i>Cyanoptila cyanomelana cyanomelana</i> (Temminck)
42	딱 새 의 일 종	Flycatchers sp.
43	오 목 눈 이	<i>Aegithalos candatus magnus</i> (Clark)
44	쇠 박 새	<i>Parus patustris hellmayri</i> (Bianchi)
45	진 박 새	<i>Parus ater amurensis</i> (Buturlin)
46	곤 줄 박 이	<i>Parus varius varius</i> Temminck & Schlegel
47	박 새	<i>Parus major minor</i> Temminck & Schlegel
48	박 새 의 일 종	<i>Parus</i> sp.
49	동 고 비	<i>Sitta europaea amurensis</i> Swinhoe
50	나 무 발 발 이	<i>Certhia familiaris orientalis</i> Domaniewski
51	멧 새	<i>Emberiza cioides castaneiceps</i> Moore
52	흰 배 멧 새	<i>Emberiza tristrami</i> Swinhoe
53	쭈 새	<i>Emberiza rustica latifascia</i> Portenko
54	노 랑 턱 멧 새	<i>Emberiza elegans</i> Temminck
55	촉 새	<i>Emberiza spodocephala spodocephala</i> Temminck
56	멧 새 의 일 종	<i>Emberiza</i> sp.
57	검은머리방울새	<i>Carduelies spinus</i> (Linnaeus)
58	피 꼬 리	<i>Oriolus chinensis diffusus</i> Sharpe
59	어 치	<i>Garrulus glandarius brandtii</i> Eversmann
60	까 치	<i>Pica pica sericea</i> Gould
61	잣 까 마 귀	<i>Nucifraga caryocatactes macrorhynchos</i> Brehm
62	까 마 귀	<i>Corvus corone orientalis</i> Eversmann

3. 파충류

설악산에는 도마뱀류가 1과 1속 3종, 뱀류가 2과 4과 8속 10종이 서식하고 있다.

파충류 목록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유인목	Squamata
	도마뱀목	Lacertilia
	장지뱀목	Lacetridae
1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 Fischer
2	장지뱀	Takydromus auralis Doi
3	아무르장지뱀	Takydromus amurensis Peters
	뱀목	Serpentes
	뱀목	Colubridae
	유혈목이목	Natricinae
4	대육유혈목이	Natrix vibakari ruthveni Van Dembuger
5	유혈목이	Rhabdophis tigrina tigrina(Boie)
	뱀목	Colubrinae
6	구렁이	Elaphe schrenckii Strauch
7	누룩뱀	Elaphe dione(Pallas)
8	능구렁이	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Cantor)
9	실뱀	Zamenis spinalis(Pepers)
	물뱀목	Homalopsiinae
10	무자치	Enhydris rufodorsata(Cantor)
	살모사목	Viperidae
11	살모사	Agkistrodon blomhoffii brevicaudus Stejneger
12	까치살모사	A. Saxalilis Emelianov
13	쇠살모사	A. Caliginosus Gloyo

4. 양서류

설악산에는 2목 5과 10종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다.

양서류 목록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도롱뇽목	Caudata
	도롱뇽목	Hynobiidae
1	도롱뇽	Hynobius leechii Boulenger
2	꼬리치레도롱뇽	Onychodactylus fisheri Boulenger
	개구리목	Salientia
	두꺼비목	Buforidae
3	두꺼비	Bufo bufo gargaizans Cantor
4	물두꺼비	Bufo stejnegeri Schmidt
	무당개구리목	Discoglossidae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5	무당개구리	Bombina orientalis Boulenger
	청개구리科	Hylidae
6	청개구리	Hyla arborea japonica Gunther
	개구리科	Ranidae
7	청개구리	Rana nigromaculata Hallowell
8	산개구리	Rana dybowskii Gunter
9	아무르산개구리	Rana amurensis coreana Okada
10	옴개구리	Rana rugosa Schlegel

5. 어 류

설악산 수계에는 총 61종 및 아종이 확인되고 있다.

어류목록

Korean name	Species Rivers	1	2	3	4	5
칠성장어	Lampetra japonica			+	+	+
다목장어	Lampetra reissneri	+				
전어	Cluonodon punctatus			+	+	+
뱀장어	Anguilla japonica	+	+	+		+
열목어	Brachymystax lenok	+	+			
송어 (산천어)	Onachymystax masou			+		+
연어	Oncerhynchus keta			+		
빙어	Hypomesus olidus			+	+	+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	+	+
뱡장어	Salangichthys microdon			+		
황어	Tribolodon hakonensis			+	+	+
대황어	Tribolodon brandti					+
버들개치	Moroco lagouskii			+	+	+
버들치	Moroce oxycephalus	+				
※ 금강모치	Moroco sp.	+	+			
피라미	Zacco platypus	+	+	⊕		
갈겨니	Zacco temmincki	+	+			
꼬리	Opsariichthys bidens	+				
모래무지	Pseudogobio esocinus	+	+			
※ 어름치	Gonoprokropterus mylodon	+	+			
새미	Ladislavia taczanowskii	+	+			
※ 쉬리	Corcoleuciscus splendidus	+	+			
돌고기	Pungtungia herzi	+	+			
※ 가늌돌고기	Pseudopungtungia tenuicorpus	+	+			
누치	Hemibarbus labeo	+				
참마자	Hemibarbus longirostris	+	+			
잉어	Cyprinus carpio			+		+
붕어	Carassius auratus	+	+	+	+	+



Korean name	Species Rivers	1	2	3	4	5
※ 목 납 자 루	<i>Acheilognthus signifer</i>	+				
※ 돌 상 어	<i>Gobiobotia brevibarba</i>	+	+			
※ 돌 마 자	<i>Microphysogobio yaluensis</i>	+	+			
※ 배 가 사 리	<i>Microphysogobio longidrsalis</i>	+	+			
미 꾸 리	<i>Misgurnus anguillicaudatus</i>	+	+	+	+	+
※ 참 중 개	<i>Cobitis koreensis</i>	+	+			
북 방 중 개	<i>Cobitis granoei</i>			+		+
※ 새 코 미 꾸 리	<i>Cobitis rotundicaudata</i>	+	+			
중 개	<i>Barbatula toni</i>		+	+	+	+
쌀 미 꾸 리	<i>Lefua costata</i>	+		+	+	+
동 자 개	<i>Pelteobagrus fulvidraco</i>	+				
대 농 쟁 이	<i>Pseudobagrus ussuriensis</i>	+	+			
※ 눈 동 자 개	<i>Pseudobagrus sp.</i>	+	+			
※ 통 가 리	<i>Liobagrus andersoni</i>	+	+			
매 기	<i>silurns asotus</i>	+	+			
※ 미 유 기	<i>silurus microdorsalis</i>	+	+	+		
학 쯤 치	<i>Hemirhamphus sajori</i>			+		+
송 사 리	<i>Olizias latipes</i>	+		+		+
큰 가 시 고 기	<i>Gasterosteus aculealus</i>			+	+	+
가 시 고 기	<i>Pungitius sinensis</i>			+		+
독 중 개	<i>Cattus poecilopterus</i>	+	+			
한 독 중 개	<i>Cotlus hangiongensis</i>			+	+	+

Korean name	Species Rivers	1	2	3	4	5
※ 꺾 지	Coreoperca herzi	+	+	⊕		+
쏘 가 리	Siniperca Scherzeri	+	+			
승 어	Mugil cephalus			+	+	+
※ 동 사 리	Odontobutis platycephala	+	+			
※ 얼 룩 동 사 리	Odontobutis obscurainterrupta	+				
검 정 망 독	Tridentiger obscurus			+	+	+
밀 어	Rhinogobius brunneus	+	+	+	+	+
꼭 저 구	Chaenogobius annularis			+	+	+
미 끈 망 독	Luciogobius guttatus					+
복 섬	Fugu niphobles			+		+
뱅 에 둠	Criella punctata					+

1: 한계천, 2: 백담사계, 3: 양양남대천, 4: 물치천, 5: 쌍천

※: 특산종, ⊕: 도입종



홍문표(洪文杓)

1952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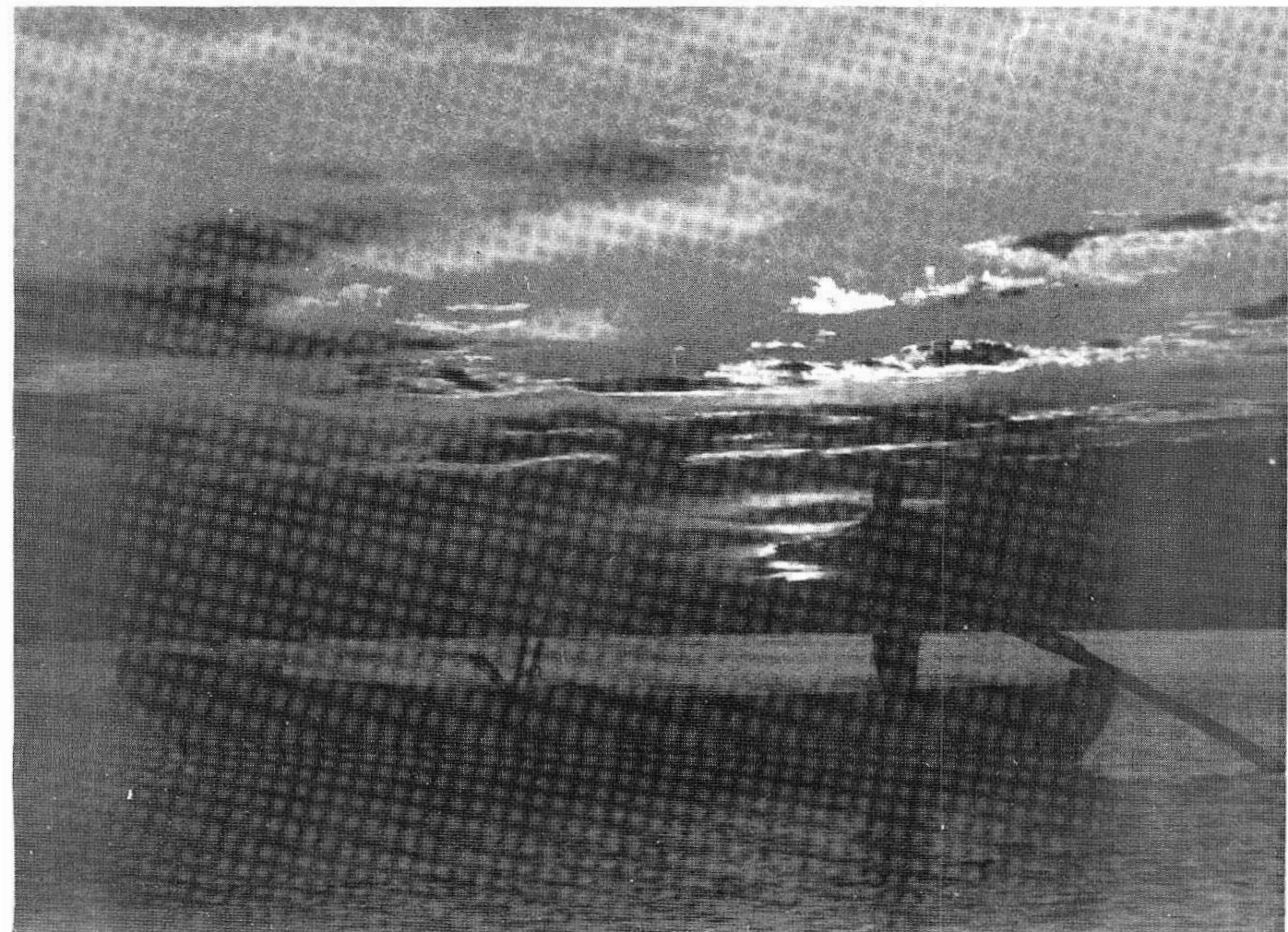
건국대학교 생물학과 졸

논문, “송지호의 식생” 식물분류학회지 제10권, 1980

현, 속초여자고등학교 교사

現場을 찾아서

떠도는 청호동
雪嶽山 神興寺의 由來(5)
국립공원 설악산(5)



떠도는 섬
청호동



청호동 갯배

우리는 뱃길 북쪽으로 돌릴 수 없어
우리 힘으로는 이 무거운 청호동 끌고 갈 수 없어
와이어 로프에 복장 껴인 채 더러운 청초호를 헤맬 뿐
가로막은 철조망 넘어 동해에서
청진 원산 물이 가자고
신포 단천 물이 들어 가자고
날래 따라 나서라고 날마다 아우성인데
우리는 동력도 키도 없어...

(이상국의 “청호동 갯배”에서)



(사진제공 연합통신)



청호동 새섬

청호동 방파제너머 떠다니는 섬이 있다는 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장화를 신은 채 청호동 사람들마저 잠들고
홍남이나 청진물이 속초물과 쓰린 속으로
새섬 근처에서 캄캄한 소주를 까다가 쓰러지면
북쪽으로 날아가는 새 섬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이상국의 “청호동 새섬”에서)



(사진제공, 월간 2000년)

청호동 아바이

이 땅에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뜰 앞 꽃땀볼도
해 마다 줄기를 키우는데
술 깨는 아침이면
동전만한 크기로 가물대는 땅
고개 돌려 따라가면
무더기로 내다버린 눈동자들 뿐인 바다
바람만 드나드는 눈자위에
하나 가득 다시 해장술을 따르며
아바이 아바이 고향이 어디요
아바이 아바이 타향은 어디메요
갈매기 끼룩대는 소리에
새로 듣는 하루가 물살로 감긴다.

(장승진의 “청호동 아바이”에서)

청호동 무녀

질긴 사슬에 끌려가는
여인(女人)의 속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는 바람
고쳐 주시오
늘 열이 있는 날 고쳐주시오
자신없는 큰 소리로 부르는
토막난 음절 사이로
파고 드는 바람

(채재순의 “청호동 바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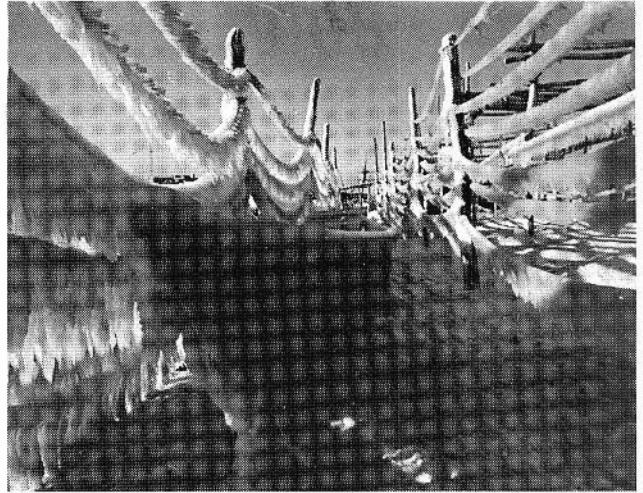


청호동 덕장

겨울 덕장 근처엔
햇살보다 더 푸른
동해바다 파도소리
공공언 바람 한 점
물살로 걸어두고
얼마나 우리르면 이 몸이 하늘될까

죽어서 끝이 아니라면
삶보다 더 큰 생애
눈뜨고 입 벌리고
부르는 사랑 노래

(장승진의 “명태를 위한 서시”에서)



청호동 붉은 대게

이 세상 한복판 낯선 땅에서
날아온 가지들이 비린 안개와 모래바람 속에서
그렇게 쓰디 쓴 수액을 나누는 일은 신기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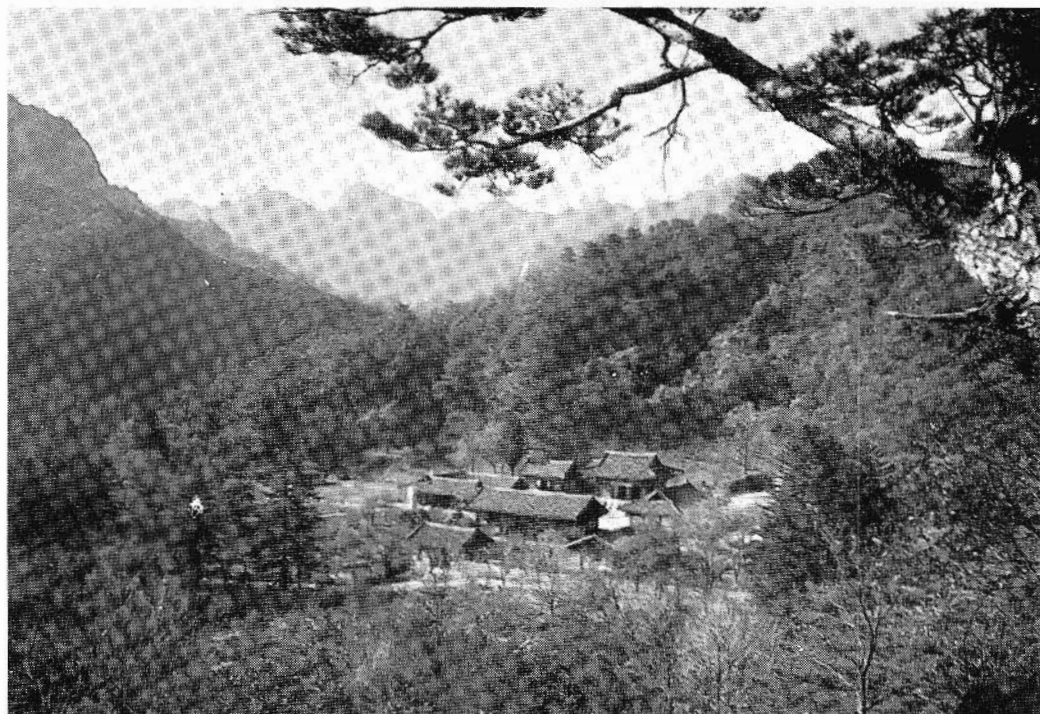
(김춘만의 “청호동 나무”에서)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

雪嶽山神興寺

주지 金 慧 法 스님 (法學博士)



神 興寺는 新羅 眞德女王 6年 (652) 慈藏律師께서 創建 하여 香城寺라 이름하였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22年 (1644)에 靈瑞, 惠元, 蓮玉 세 스님이 중건하여 神興寺라 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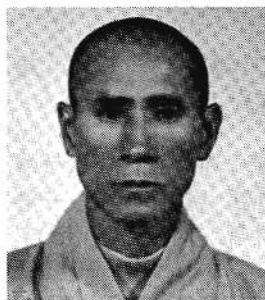
神興寺에는 創建 당시 주조한 대종과 조선 순조께서 하사하신 청동시루, 극락 보전 (指定文化財14號), 경관 (指定文化財 15號), 보제루 (지정문



화재 104호) 및 香城寺址 三層石塔 (寶物 第443號) 이 보존되어 있다.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 신홍사 극락보전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 신홍사 경관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04호 신홍사 보제루 지정문화재이외의 문화재 제11호 신홍사 (계조암·내원암·안양암·부도 포함) 동산문화재등록 : 신홍사 아미타 3존좌상외 9점

雪嶽山 神興寺의 由來(5)



金慧法(法博)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神興寺住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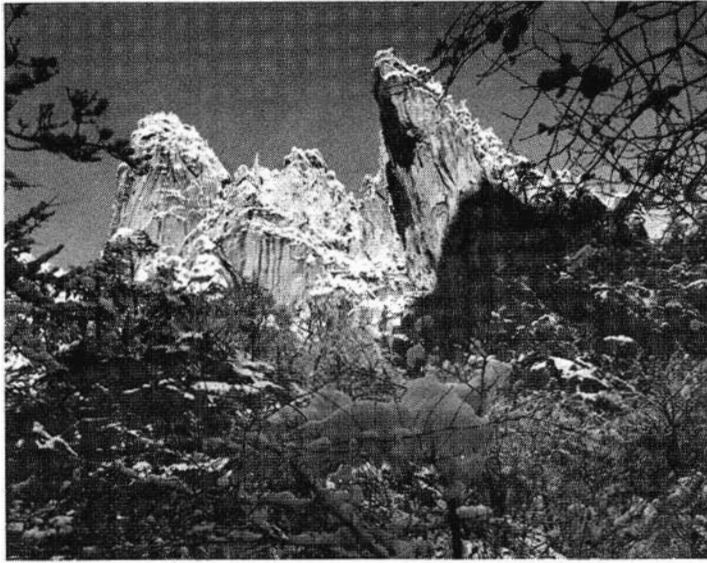
(19) 수렴동(水廉洞) 계곡(溪谷)

雪嶽山의 主峰인 大靑峰에서 中靑峰을 거쳐 龍의 齒牙같이 생긴 산 연봉(連峰)인 용아장성(龍牙長城)을 끼고 두 갈래의 골짜기를 형성(形成)한다. 한 골짜기는 가야동(伽耶洞) 골짜기라고 하고 또 하나는 구곡담(九曲潭) 골짜기라고 한다. 이 수렴동 골짜기는 영시암(永矢菴) 앞 계곡에서 쌍폭(雙瀑)까지의 골짜기를 일컫는 것으로 내설악(內雪嶽)의 대표적인 절경지(絶景地)이다. 이 수렴동 골짜기는 옥류청석(玉流靑石)이 절대적(絶對的)인 가경(佳境)을 이루고 있다. 천태만상(千態萬象)의 계상석(溪床石) 골짜기에 깔려 있는 돌은 끝없이 연속되었고 흐르는 물은 흐르다가 잠시 쉬어 간다. 깊이를 모를 깊은 탕(盪)을 형성하는가 하면 담(潭)을 이루고 때로는 늪같은 소(沼)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억센 폭포(瀑布)로 변하여 경치를 만든다. 정말 내설악의 으뜸가는 골짜기이다. 구담

일명 귀담(龜潭)이라는 「거북못」은 수렴동의 첫 못인 담(潭)이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흐르는 골짜물에 靑石과 溪石이 서로 혼합되어 그야말로 미끄럽기 그지없고 위험하기 비길 데 없다. 물은 고막을 찢는 듯이 도도히 흐르고 수풀의 냄새는 바람에 실려 코를 찌른다. 오르다가 보면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탑같은 괴석(怪石)이 우뚝 서 있다. 자연으로 형성된 기암괴석(奇岩怪石)이라 하지만 황홀할 정도로 그 형상(形狀)이 신기하다. 인공적인 힘을 기울인다면 최고의 예술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 백운동(白雲洞) 계곡

백운동(白雲洞)은 이름만 들어도 백운이 하늘 높이 감도는 골짜기인 것 같다. 이 백운동에는 수렴동 골짜기에서 쌍폭(雙瀑)에 도착하기 전에 좌편에 龍牙長城의 연봉이 있고 그 용아장성의 연봉 가운데 옥녀봉과 칠형제봉(七兄弟峰)이 있다. 이 칠형제봉을 끼고 龍潭瀑布



에서 다시 남쪽으로 귀매기 천봉(天峰)이 있는 귀매기 골 한계령(寒溪嶺)의 능선(稜線)과 서북 주능이 서로 부딪치는 계곡을 백운동계곡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오른쪽이 굽은 백운을 曲白雲이라 호칭하고 왼쪽이 굽은 곧은 백운을 直白雲이라고 한다. 더욱 끝은 제단곡(祭壇谷)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세갈래의 골짜기에는 이름도 없는 작은 폭포와 담이 수없이 있고 그야말로 물소리가 요란하고 물줄기는 좌충우돌하면서 흐른다. 그러다가 첫번째로 나타나는 폭포가 용손폭(龍孫瀑)이다. 그 위로 용아폭(龍兒瀑)이 있고 또 나아가면 쌍용폭(雙龍瀑)이 있다.

(21) 상용폭(雙龍瀑)

쌍용폭포는 수렴동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영시암 터를 지나간다. 그러다가 왼

쪽에 골짜기가 있으니 이것이 가야동 골짜기며 오른쪽은 수렴동과 구곡담 골짜기이다. 이 수렴동과 구곡담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디딜방아 같이 Y字形으로 떨어지는 곳에 우리나라에서 이름 높은 쌍용폭포가 나타난다. 흔히 쌍폭(雙瀑)이라 부르기도 한다. 쌍폭 가운데 오른쪽의 폭포 높이는 150尺이나 되며 이것은 대청봉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다. 왼쪽편의 폭포는 높이가 약 70尺인데 봉정동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다. 건너편 높은 병풍같은 바위가 치마바위라고 하는 장암(裳岩)이라 한다.

(22) 십이폭(十二瀑)

쌍용폭포에서 오른쪽 폭포를 넘어서서 청봉골(靑峰谷)로 들어가면 十二瀑이라는 곳에 이르른다. 이곳의 아름다움은 천석(泉石)의 美가 극치(極致)를 이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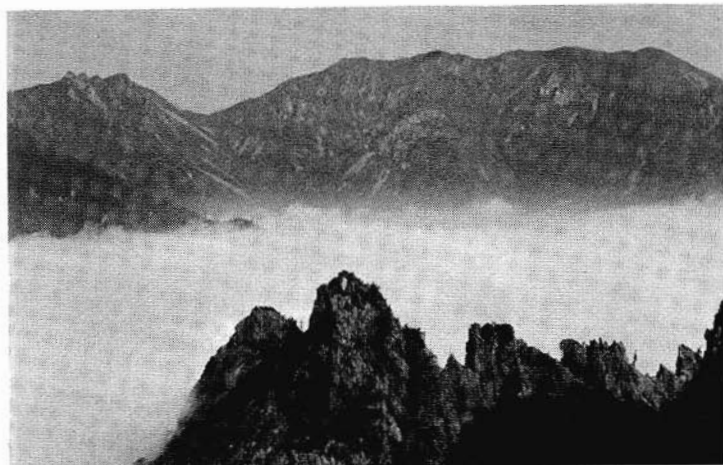
있다. 十二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까닭은 東國名山記에 이 고을 사람들이 十二瀑이라 하므로 十二瀑이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렇듯 십이폭은 청봉골 즉 靑峰谷을 十二瀑이라고 하는데 골짜기에 흐르는 계류가 大小의 폭포를 형성하면서 흐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하겠다.

(23) 가야동(伽倻洞) 계곡(溪谷)

가야동 계곡은 백담사에서 영시암 터를 거쳐 수렴동 골짜기의 첫머리가 된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골짜기가 둘로 갈라지는데 왼쪽의 골짜기를 가야동 골짜기라 부른다. 이 가야동 계곡은 청아(淸雅)한 곳이므로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다. 가야동 계곡은 내설악 가운데 이름 높은 절경(絶景)이 많다. 가야동 계곡에서 이름 높은 名所로는 천왕문(天王門)이라는 석벽(石壁)이 있다. 이 천왕문 석벽 안에 숨어서 떨어지는 천왕瀑은 이 계곡의 다시 없는 절경이다. 가야동 계곡에서 四方을 살피면 北으로 공룡능선(恐龍稜線)이 보이고 南으로 龍牙長城의 連峰이 보인다. 가야동 계곡 上流쪽에 희운각(喜雲閣)이라는 山莊이 있어 알피니스트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다.

(24) 오세암(五歲庵)

오세암을 옛날에는 관음



암이라고 불렀다. 이 오세암은 新羅 善德女王 12年(서기 643년)에 慈藏律師가 창건한 절이다. 그때 부르던 이름이 관음암이다. 그후 李朝時代 仁祖 21년(서기 1643년)에 당시의 高僧 雪淨禪師가 관음암을 다시 重建하여 五藏庵이라 改稱하였다. 그후 高宗 25年(서기 1888년)에 白下스님이 중건하였다. 그러나 6.25動亂때 불타버리고 옛 모습은 찾을 길이 없고 요즘 있는 건물은 근래에 세워진 건물들이다. 이 五藏庵에는 아래와 같은 傳說이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에 설정(說淨)이라는 고명하신 큰스님이 계셨다. 설정큰스님에게 다섯살(五藏)되는 조카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일찌기 양친을 여의고 이 절에 와서 있었다. 그때는 낮시간이 몹시 짧은 늦은 가을 10월이었는데 설정스님이 영동(嶺東 강릉쪽)에 무슨 불일이 있어 조카에게 부탁하기를 너는 관세음보살(觀世音

菩薩)만 부르면서 오늘밤 혼자서 자면 날이 밝는 내일이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고 암자를 떠나 영마루를 넘고 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날 밤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밤이 새도록 내려서 길도 골짜기도 눈에 쌓여 분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눈이 태산같이 쌓여 길이 막히고 보니 설정스님은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 해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기 시작하여 봄이 된 후에 스님이 돌아오니 죽은줄만 알았던 조카가 승방에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있었다. 스님은 놀란 나머지 조카에게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조카는 대답하기를 “인자한 어머니가 와서 먹을 밥과 젖을 주어 죽지않고 살았습니다.”고 하였다. 설정스님은 신기하게 여겼다. 그러나 조금 있으니 어디서인지 바람소리같이 희하는 소리와 함께 白衣夫人이 관음봉(觀音峰)에서 내려와 조카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난 후 스님에게 보리기(菩

提記)를 주고 다시 靑鳥로 化해서 어디로 날아가 버렸다. 그때 조카 나이가 다섯살이었다. 五藏童子가 得道하였다고 믿어 이 암자를 東國第一禪院이라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화(說話)는 오세암 사적기(史蹟記)에 적혀 있다. 또 다른 설화(實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저 有名한 生六臣의 한 분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에 대한 전설이다.

즉 端宗이 왕위에서 물러나자 매월당은 현 세상을 떠날 생각으로 방랑(放浪)을 하기에 이르렀다. 全國의 名山大川을 두루 周遊(周遊)하면서 오직 自然과 벗하며 마음의 울분을 씻었다. 그가 江原道의 山勢를 좋아하며 설악산 한계령을 비롯하여 양양(襄陽) 강릉(江陵)등 名勝地를 끌고루 찾았다. 이 때에 관음암에 들러 조석으로 오른편에 솟아있는 만경대(萬景台) 922m와 왼편에 솟아있는 기룡대(起龍台)의 절경에 심취하였다. 오세암 뒤에 솟은 관음봉과 동자봉(童子峰)은 그야말로 산수의 妙를 여지없이 나타냈었다. 김시습에게는 天才의인 材質이 있었다.

즉 그는 本貫이 江陵이고 字는 悅卿(悅卿)이며 호(號)는 梅月堂, 東峰, 淸寒子, 碧山淸隱(碧山淸隱)등 여러이 있었다. 梅月堂은 世宗 7년(서기 435년 乙卯)에서



울에서 태어나 成宗 24年 (서기 1493년) 五十六歲로 충청도 무량사(無量寺)에서 세상을 떠나니 그는 불우하고도 기구한 一生을 보냈다. 그런데 梅月堂은 이 세상에 태어난지 8개월만에 스스로 글 뜻을 알았다 한다. 三歲 때에 漢詩를 능히 지을줄 알았으니 세상이 놀랐다. 그러나 그가 五歲때에는 中庸, 大學을 능히 읽고 해석하여 통달하니 世人들이 그를 五歲神童이라 하였다. 그의 名聲이 인근에 알려지자 世宗 大王께서 이 所聞을 들으시고 承政院에 分부를 내려

그를 불러 재주를 시험하게 하였다. 世宗大王은 “童子의 學問하는 態度가 흰 학이 푸른 하늘 끝에서 춤추는것 같구나(童子之學白鶴舞靑空之末)”하는 詩句를 불러 對句를 짓게 했더니 金時習은 곧 “성스러운 임금님의 덕은 누런 용이 푸른바다 속에서 굽틀거리는 것 같습니다(聖王之德黃龍翻碧海之中)”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세종대왕께서는 감탄한 나머지 후하게 큰 상을 내렸다한다. 이래서 오세신동이라는 그의 별칭 때문에 이 관음암을 오세암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설이 있다.』

그래서 앞서 설정조사(雪淨祖師)의 조카 동자로 인해서 오세암이라 하였는지 또는 金時習의 “오세신동”으로 인해서 오세암이라 하였는지 異論들이 있으나 雪淨禪師의 조카인 五歲童子說이 有力한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 金時習이 雪嶽山에 入山한 動機와 그의 名所는 紙面관계로 다음號로 미루기로 한다.

국립공원 설악산(5)



박익훈/노인학교장

停庫坪 (丁庫坪)

雪嶽山 小公園에서 약 1 km가량 飛仙臺쪽으로 가노라면 잡목이 우거진 산기슭에 “이름모를 自由勇士의 碑”가 우뚝 솟아있다. 이 碑야 말로 이름도 계급도 군번도 누구하나 아는 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無名勇士들의 비다. 6.25때 이 땅을 지키려고 鮮血을 뿌려가며 꽃다운 靑春을 불사라버린 崇高한 衞國의 忠魂을 기리기 위해 이 地域內 國民學生들을 비롯하여 뜻있는 人士들의 誠金으로 세워진 값진 마음의 記念碑이다. 1965年 10월 30일 韓國 日報社 江原支社가 주동이 되어 세운 것이다.

碑의 右側에 靑雲亭이 있는데 靑雲亭 자리가 바로 옛날 酒幕이 있던 곳이고 그 주위에는 지금도 오래된 밤나무그루와 밤나무가 있고 땅 속에서 기와조각이 나타나다가 하면 앞개울 한복판에 섬(島)이 있어 사람이 살던 터가 있고 그때 집 주위에 심었던 것으로 보이는 밤나무, 배나무도 남아있다.

수십년전만 해도 雪嶽山

登山客들이 野營場으로 쓰기도 했으나 지금은 잡목이 우거진 樹林으로 변하고 말았다. 거기서 “權金城”으로 가는 좁은 오솔길이 있는데 길 있는 그 골짜기를 “시근골”이라고 한다. “시근”은 숨이 가빠 시근거린다는 뜻이다.

自由勇士의 碑 뒷산 중턱에 큰 나무 상자를 쌓아 놓은듯한 네모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망바위”라 하여 옛날 불로써 서로 信號를 하던 곳이라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매점을 하고 있는 金潤秀씨가 일러준다.

여기서 飛仙臺쪽으로 500m 채 못가서 “矢劍谷”이란 골짜기가 있고 숲이 우거진 平地가 있는데 그곳을 “治馬場”이라고 옛날 神興寺誌에 쓰여 있었다고 崔九鉉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漢文으로된 神興寺誌는 지금은 紛失되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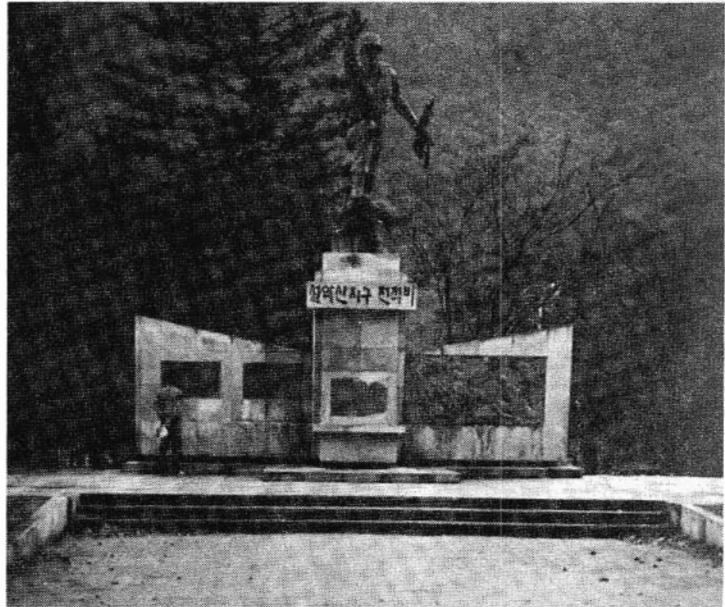
거기서 300m남짓 飛仙臺쪽으로 더 가면 “軍糧場”이란 花崗岩으로된 큰 碑石만한 標石이 서 있고 그 맞은편에 높고 큰 바위가 있는데 비가 와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바위를 옛날에 “軍糧岩”이라 불렀다 한다.

“停庫坪”이란 뜻도 文字 그대로 倉庫가 머문 곳이란 뜻이다. 옛날 物物交換時代 嶺東地方에서 난 海產物이 嶺西地方으로 運搬될 때 이곳을 지났는데 소금같은 무거운 물건들이 物量이 많을 때는 이곳에서 며칠동안 쌓여있을 때도 많아 이곳이 물건의 停庫場 역할을 했다 해서 地名을 “停庫坪”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곳은 小規模일지라도 옛날 어느 한때는 嶺東과 嶺西를 잇는 交通의 要衝地인 同時에 海產物의 集散地였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사람의 來往이 빈번하게 되니 酒幕이 있어야 했고 그러다보니 自然的으로 部落이 形成되는 것도 必然的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가고 사람은 떠나고 없으니 알 길이 막연하다.

物質이 豐饒로운 곳에 도적이 있기 마련이고 도적이 왕성해서 神興寺가 망했다는 이야기도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적들은 權金城에 근거를 두고 “시근골”을 통해 “停庫坪”을 來往했고 “망바위”에서 서로 연락을 했을 것이며 주로 夜陰을 타서 불빛을 이용했을 것이다.

“治馬場”이니 “矢劍谷”이니, “軍糧場”이니 하는 遺跡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도 도적을 막기 위해 화살과 칼을 만들어야 했고 武士들을 養成하기 위해 軍糧



미를 쌓아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모두가 다 一脈相通한 것들이다.

林慶業傳에도 淸나라와 싸워 敗戰한다면 自己는 雪嶽山에 들어가 도적이 되겠다 했으니 年代로 보아 적어도 3백여년전부터 도적들이 盛行했고 도적들 때문에 交通도 두절되고 住民들까지 떠나게 되어 部落은 폐허가 되고 人跡이 끊기니 雪嶽山은 脚光을 받지못해 숨은 名山이 되고 말았다는 主張도 이치에 맞는 말들이다.

“서베르린”에서 본 일인데 “動物公園”이 있다기에 동물이 노는 곳인줄 알고 일부러 찾아가 보았다. 동물이라고는 한마리도 보이지 않고 우거진 숲속에 넓고 푸른 잔디밭만 있었는데 공

원 입구 양쪽에 臘師가 개 두마리를 데리고 멧돼지와 들소를 창으로 잡는 모양의 동물상이 두개 서 있을 뿐이었다. 그곳은 옛날 독일 貴族들이 수렵하던 사냥터라 했다. 그들은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하찮은 사냥터까지도 산 역사의 교육장으로 活用하고 있었다.

日本에서는 호텔에서도 그 地域의 鄉土資料를 조사 기록해 두고 찾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한다.

우리는 이 소중한 자료들을 수록해 둔 市誌조차 없으니 국내에서 제일가는 觀光都市로서 아직 景勝觀光産業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감이 들어 悔恨의 情 禁한길 없다.



내고장 인물

前 대구고등법원장 金龍式
설악산 수문장 최구현

前 고등법원장 金龍式



청백리의 표상
前 대구고법원장
金龍式

「속초문화지」가 5호까지 발간되면서 내 고장의 선각자, 인물, 얼굴, 출향인사 등의 제하에 몇분 어른들이 소개 되면서도 실제 이 고장 속초시 출신으로 우리나라 광복 후 대구고등법원장까지 역임하신 고 김용식 전 원장님을 소개하는 분은 없었다. 왜냐하면 이 고장에 전입되어 사시는 분은 물론, 이 고장 토착민이라하더라도 심지어 경주 김씨 종인들까지도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본 문화지 「이 고장인물」란에 명사 한두분씩 실려서 소개될 때마다 필자만큼이나 그분을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대구고등법원의 자료협조에 힘입어 필자가 평소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 글을 투고하여

우선 지면에 남기고자 한다.

전 대구고등법원장 고 김용식씨는 1896년 11월 21일 이 고장 속초 설악산 기슭 도문동 2통(중도문2리 584번지)에서 가난한 농부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릴때부터 두뇌가 뛰어나게 명석하여 가히 천재라고 했는데 남달리 피나는 노력가로서 성장과정을 어렵게 살면서도 순 독학으로 학교 문턱 한번 가본일도 없이 한 나라의 고등법원장까지 오르게 된 것 하나면 보더라도 더 이상의 설명과 주석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필자의 어린시절 선친으로부터 「용식이는 학교문턱에 한번 가본일 신 한번 벗어논일 없으면서도 독학으로 입신양명 한 사람」이라고 가끔 기회 있을 때마다 극구 칭찬하며

본 받으라 일러주셨다. 그러니까 용식씨와 필자의 선친과는 같은 연배로서 어린 성장기를 한동리 이웃에서 살으셨다. 그 분 집이 중도문리 584번지이고 필자의 옛집이 585번지이니 옆집에서 선친은 이웃하고 살으셨다. 청운의 꿈은 커가고 독학하는 용식씨는 글은 배워야 겠는데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등잔불 기름도 없고하여 여름철에는 옆집마당에서 농부들이 모여 관솔불을 훤히 켜놓고 새끼꼬고 짚신 삼는데 자기집 거처하는 방에서 관솔불이 보이는 벽쪽을 크게 벽구멍을 내어 그 불빛 덕으로 글공부를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주경야독에다 형설의 공이 아니라 관솔불의 공이라고나 할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리 사람 대부분이 문맹자이고 글을 아는 사람이 몇분 안되는 시절이라 편지 대서는 온동리 것을 도맡아 써주고 했는데 이런 일화도 있다. 편지 써 줄 것을 동리사람들에게서 부탁 받으면 쓰고자 하는 사연을 다 듣고 나서 한지에다 붓글씨로 사연을 구구절절히 정이 넘치도록 다 쓴 다음 물을 떠오라고 하여 물을 떠다 주면 손에 물을 묻혀 편지의 지면마다 끌고루 털구기에 옆에서 지켜보는 동리사람들이 왜 편지에 얼룩지게 물을 뿌리느냐고 하면 하도 슬프게 써서 눈물이 편지 면마다 많이 흘렀다는 것을 표시함이라 하였다고 하여 글씨 솜씨와 글짓는 재주 또한 젊은시절부터 크게 뛰어났다고 전해오고 있다.

법조계에 몸담고 계실적에도 하루 24시간 책을 멀리하는 일 없이 식사중에도 책을 왼손에 놓고 보았으며 잠자리에서도 한손에 책을 쥐고 자다가도 눈만 뜨면 책을 보고 하였으며, 그런 생활습성이 임종시까지 계속되었다 함은 얼마나 그분이 평생을 배움으로 채웠겠는가.

그러니까 1929년 당시 32세의 청년기에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또는 경찰간부로 몸담아 일해 왔음을 약기하면서 해방되던 해 즉 1945년 11월 19일 광주지방방법원순천지원판사를 시작으로 1951년 대구지방법원장 1952년 부산지방법원장 1954년부터 대구고등법원장을 역임하다가 1958

3.15부정선거를 다루는 특검부장으로 임명되어 그 깨끗한 성품을 유감없이 발휘하던 그가 퇴임 후 남의 집 단칸 셋방을 얻어살며…….

년 12월에 정년퇴임하셨다.

또한 4.19후 3.15부정을 다루는 이 나라 특검부장으로 임명되어 그 깨끗한 성품과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판사시절은 물론 각급법원장 재직시에는 청렴결백하기로 이름나 가까운 친지나 이웃이 생활이 어렵게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염려해서 쌀가마라도 보내주면 당장 비서를 시켜 차에 실어 정중한 인사와 함께 되돌려 보내고 했다.

이 글을 쓰면서 고향출신의 어른이라고 후인으로서 의례적 글을 쓰는 예의상 과찬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을 자기에게 주는 보수외에는 공적이나 사적이나 일체의 아무리 명분있고 적은 부수입 따위까지도 손도 대지 않은 청백리 중에서 청백리였다. 정년퇴임후 관사를 비우고 돌아갈 집 한 칸 없어 남의 집 좁은 단칸세방을 얻어 살다가 생활고를 참고 견디다 못해 스스로 자결로 이 세상을 하직하였음은 당시 각 신문지사상에 대서특필 보도된 바 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이 이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그분이 얼마나 평생을 청빈하고 결백하게 살다 가셨는가를 알 수 있으리라.

이 세상을 하직하는 방법이 정상이 아니기에 자결부분을 쓰지않으려 주저도 했지만 기왕 당시에 신문에 보도되어 전국이 떠들석했던 사실이어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여기에 쓴다. 전날은 그만두고라도 1945년 11월 법관으로 출발하면서부터 고등법원장으로 정년퇴임 할 때까지 법관 14년간을 봉직하면서 당시 사회상에 물들지 않고 청청하고 고고하게 사시다 퇴임후 여생을 보낼 집한칸 없어 단칸 세방에서 고생하시다 인생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친지나 가까운

내고장 인물

사람들에게 구차한 사정 한번 포함이 없이 자결로 일생을 청산 하직했다함은 현직에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청백리의 표본이였는가를, 또 한인간으로 얼마나 끈고 고지식할 정도였는가를 백마디의 타설과 사족을 달 필요가 없다. 그야말로 우리모두의 사표이며 공직자의 자랑이요 상징이며 정도를 사는 강직 인생의 표본이며 이 고장 출신으로 장래는 이 분 이상의 관계에 큰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오늘 현재로서는 관계에서 최고 직위에 재임하셨고 그러면서도 당시의 사회상에 오염됨이 없이 청백리의 표본으로 깨끗하고 검소하게 살다가신 분이시다. 천학비재한 필자가 감히 고 김용식 전 원장님에 대하여 글을 쓴다는 것은 그분의

일생을 제대로 또한 많은 생애의 일들을 깊이 표현해 낼 수 있는 글재주와 그 분을 더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충분히 후인에게 전하고 남기지 못하는 우를 범함을 안타까이 생각하면서 비명에 가신 후에라도 그 유골이나마 고향산천에 돌아와 묻히지 못하시고 낯설은 타향객지 산천에서 영면하고 계시는 데도 누구 한 사람 무덤을 찾는 후손도 없는 외로운 고향에 명복을 삼가 두손모아 빌면서 아쉬우나마 후일 다시 보완할 기회가 있을 것을 기약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아울러 이 글 말미에 실은 자료를 보내 주신 대구고등법원장님과 관계관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고 김용식 전 대구고등법원장의 주요약력

1. 인적사항

성 명 김용식(金龍式)
생년월일 1896. 11. 21.
출 생 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읍 중도문리 584번지
학 력 입쌍천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 1929.9. 조선변호사시험합격

2. 경력

1945. 11. 1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판사
1951. 2. 17. 대구지방법원장.
1952. 2. 16. 부산지방법원장
1954. 10. 5. 대구고등법원장(제7대)
1958.12. 14. 퇴 직

(이상은 대구고등법원에 보낸 중인 존영관리 대장에 의하여 대구고등법원에서 보내온 자료임.)



필 자 : 이 건 석

- 속초시 재무, 사회, 새마을, 산업과장
- 양양군 감사, 내무과장
- 82년 서기관으로 명예퇴임
- 현재 속초시 지방행정동무회장.
총무처 행정상담위원
강원체신청 협력위원

雪嶽山과 崔九鉉



造化無窮함에 心醉無我的 仙境에 젖어든다는 雪嶽山이 太古의 가리움을 벗고 세상에 알려져 오늘의 觀光名所가 되기까지는 땀흘린 努力者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李達永(他界)氏와 崔九鉉씨가 바로 그분들이다. 여기에는 崔九鉉의 이야기가 되겠다. 崔氏는 故鄉이 高城이며 外金剛 溫井里에서 金剛山의 秘景을 寫眞에 담던 寫眞作家로서 활동하다가 6.25때 南下 束草에 定着 金剛山에의 그리움을 雪嶽으로 달렸다.

1956年 4月 雪嶽山을 金剛山 못지 않은 곳으로 世上에 알리고자 李達永氏와 함께 協議 끝에 우선 雪嶽山을 寫眞에 담는 일에 着手하였다. 그러나 雪嶽山은 6.25격전지로서 지뢰가 埋設 되어 있고 당시 공비 출몰 지역으로 軍의 도움이 必要하여서 一軍團으로 달려가고 襄陽郡廳으로 뛰어다니며 協助를 要請하여 入山할 수가 있었다. 崔氏는 山岳用寫眞攝影렌스를 구비하여 산짐승과 修道僧들의 발자국만이었던 미지의 정막강산 雪嶽山을 중형으로 누볐다. 미끄러지고 얽어지고 밤이면 바위틈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산을 오르내렸으나 地名이 確實치 않아 인제 쪽으로 가서 老人들을 만나 많은 것을 얻었으나 양양쪽에는 借問할 사람조차없어 神興寺內院庵에 나이 많은 女僧이 있었기에 參考 될 것을 문의한바 日政 때 神興寺主侍의 上子되는 少年僧이 있었는데, 2분이 8.15후 神興寺를 떠날때 神興寺誌를 가지고 갔으니 그분을 찾아 보라기에 수소문끝에 原州의 어느 寺刹에 있음을 알고 原州로 달려가 절을 찾아 다니다 만나서 神興寺誌를

求하니 雪嶽山 내용이 자세하여 그것을 土臺로 地名이 있는 것은 그대로, 없는 것은 作名을 하였다. 千佛洞方面의 文珠潭 二湖潭, 鬼面岩, 陽瀑, 天堂瀑, 念珠瀑, 土旺地, 계곡방면의 文潭瀑, 飛龍瀑, 玉女峯 權金地方面 集仙峰 望軍臺 등은 모두 崔氏가 命名한 것이다. 崔氏는 寫眞攝影과 同時探勝코스도 선택코자 내외 雪嶽의 峯谷을 빠짐없이 探查하고 本來의 地名은 그대로, 없는 것은 새로 作名된 地名으로 束草市 地名制定委員會에서 承認可決되었다. 太古같이 고요하기만 하였던 雪嶽은 崔氏를 만남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셈이다.

드디어 發行人 李達永 편집촬영 崔九鉉으로 된 “雪嶽山”이라는 사진첩이 1958. 10. 제작완성되었다. 그러나 資金이 없어 全量을 引受치 못하고 우선 몇권을 外上引受, 政府 關係要路에 配付 雪嶽山 開發을 호소하였으나 政府에서는 아름다움을 감탄할 뿐 休戰直後라 엄두도 못내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서울에는 外國人觀光團(英國皇室 亞細亞學會)一員이 와 있었다.

그들은 變산반도를 갈 豫定이었다. 李氏와 崔氏는 이들 觀光團 引受責任者인 밀라氏를 만났다. 그리고 雪嶽山 觀光을 권하였다. 밀라氏는 57年 繼祖菴 흔들바위 아래 岩上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새겨진 글이 發見되어 이를 본 사람들은 이끼가 낀



것으로 보아 30年은 못히 된 것이며 앞날을 예언한 것이라는 報導가 나가고 38以北地域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밀라씨는 軍糞차로 다녀간 사실이 있어 交通事情을 잘 알고 있었다. 90名이나 되는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갈 수 없다는 그의 주장에 옆에 있던 李達永氏가 지금은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道路가 擴張되었다고 말하여 가보겠다는 確約을 받고 가지고 갔던 雪嶽山 사진첩 몇권을 나누어 주고 急히 내려와서 一軍團長 宋將軍을 만나 事情의 急함을 알리고 協助를 要請, 工兵隊로 하여금 강선리와 장재터를 거쳐 河川의 돌을 치우고 고르게하여 神興

수소문 끝에 「神興寺誌」를 구하여 그것을 토대로 설악산의 모든 봉우리와 계곡에 이름을 붙여 설악산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일으켜 세우는데 큰 일익을 담당한 최구현씨는…….

寺까지 道路가 急造되었고 神興寺 누각과 僧房과 法堂을 宿所로 정하고 木枕과 담요가 準備되었다. 그들은 고르지 못한 길을 오느라 밤 늦으막이 到着하였다.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어둠이 거친 새벽 살며시 내미는 수줍은 靈峯의 姿態에 윈더 풀을 연발하였다. 울울창창 우거진 숲 나그네는 神仙이 되었는데 1박2일의 예정은 2박3일로연장이 되었고 그 후 3年間 連續 그들 學會는 雪嶽을 찾았다. 이래서 雪嶽山 觀光開發은 國內外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설악산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성장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최구현씨의 공로는 높이 평가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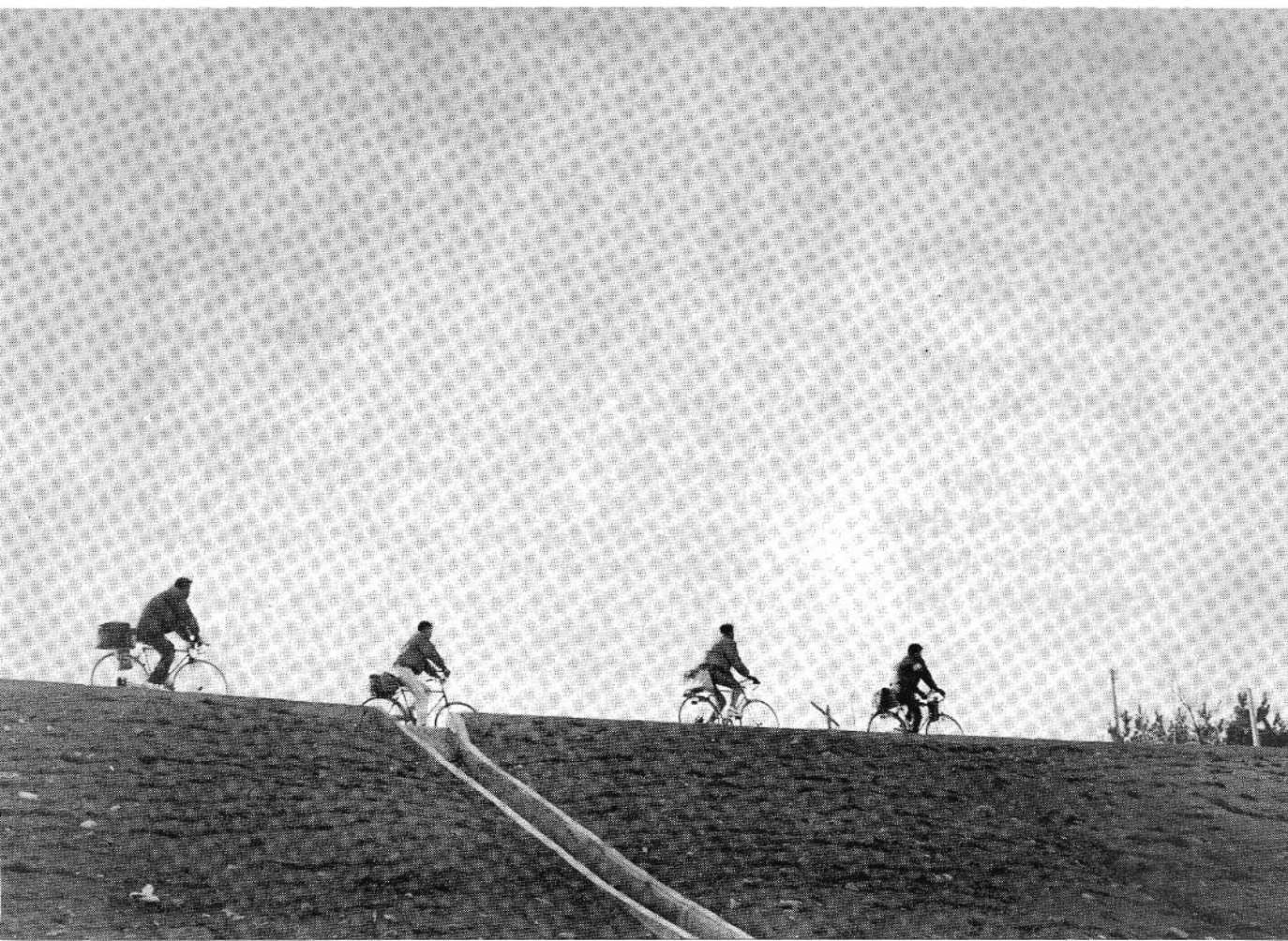


필자 : 고영화

- 전 속초문화원 이사
- 本誌 편집위원

그리운 내 고향

추억속의 그날들



추억속의 그날들

金斗萬/인하공전 교수



金斗萬 교수는
토성면 아야진 출신으로
속초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공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기계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고향 떠난지 30년이
지났건만, 그는 아직
더운 여름날 밤
바닷가 바위위에서
파도소리 들으며 잠들던
그 유년시절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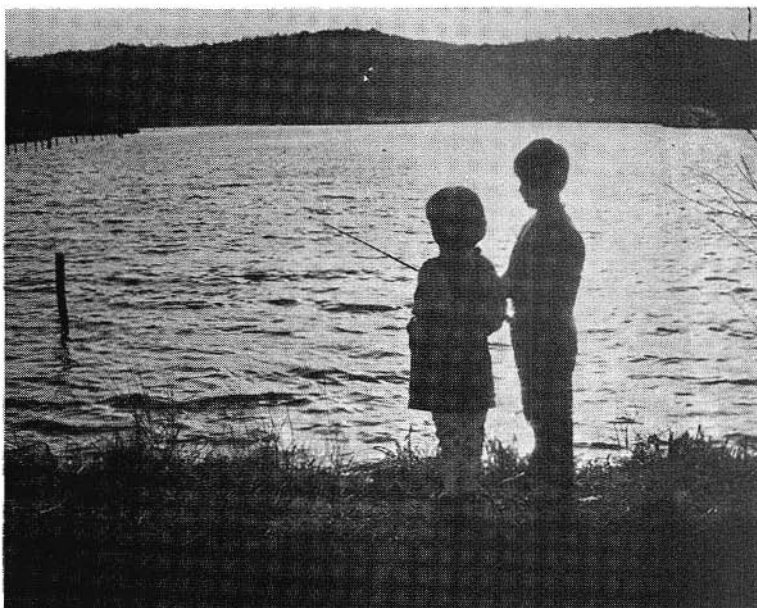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한적한 곳을 거닐 때는 항상 고향을 그리게 된다. 언제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고향의 향수를 지워 버릴 수가 없다.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먼 길을 두시간이 넘도록 걸어다닌 나로서는 그 6년간의 생활이 나에게 많은 상념을 안겨 주고 있다.

먼 설악의 영봉을 바라보며 영랑호를 보노라면 서글픈 생각이 앞선다. 모든 것이 사람의 손길에 의해 가꾸어져 있고 옛날같이 자연에 맡겨져 있지 못한 아쉬움인지도 모른다. 겨울이 되면 하얗게 얼어 얼음으로 덮힌 영랑호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즐거움과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신나게 뛰어 건너던 추억을 지금은 느껴 볼 수가 없다. 영랑호를 벗어나 사진리 고개를 넘는다. 옛날에는 그 고개가 어떻게나 높아 보였는지 아름답던 고개가 싫기도 했었다. 이제는 말끔히 포장된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다. 그 길을 나의 자동차로 지나노라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짜릿한 감을 느낀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걷던 생각과 어느 날 내리는 밤에 학교에서 수업이 늦게 끝나 혼자 바쁘게 걸어 가면서 무서움에 떨었던 생각도 놓칠 수 없는 추억들이다. 봉포호에 다다라서는 호숫가 한적한 곳에서 항상 쉬면서 씨야 할 숙제를 그 곳에서 하였으며, 물끄러미 호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를 꿈꾸었던 일들은 이제 모두 아름다운 추억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남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매년 한 두번 이상은 고향을 찾는다. 해마다 달라지는 고향의 모습에 서글픔과 동시에 자부심을 갖기도 하지만, 웬지 모르게 고향의 발전이 기쁘면서도 아쉬움을 더해 주는 것은 아름다운 고향의 자연이 훼손되어 가는 데 대한 생각이다.

또 하나 잊지 못 할 일은 여름이 되면 청간청 밑에서 해수욕을 하고, 깨끗한 개울물에 몸을 씻고, 청간정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책을 보기도 하던 그 짜릿한 추억이다. 청간정에 오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꼬마들은 쉽게 그곳에 올라 놀 수 있었고 공부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인가, 이러한 추억을 안고 청간정 밑을 가 보았을 때 실

영랑호를 지나
 사진리 고개를 넘으면
 봉포호에 다다른다.
 그 호숫가
 한적한 곳에 쉬면서
 나는 미래를 꿈꾸었다.



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염된 청간 개울물은 손을 담가 볼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마음에 상처를 안고 내 아이들을 달래며 돌아 왔었던 기억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

또 하나의 아름다움은 여름의 밤 바다를 마음껏 즐겼던 추억이다. 김신조 사건 이후에는 바닷가에 철망이 쳐지고 그 아름다운 바닷가의 출입을 통제 당해야 하는 서글픔이 있었다. 여름 밤 무더운 날에는 베개와 깔자리만 가지고 바닷가 바위 위로 간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워서 잠을 청했던 그 추억은 어느 곳에서도 느껴볼 수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아름다움이다. 다시 나의 고향 어린이들이 이러한 추억을 간직하며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표지作家



대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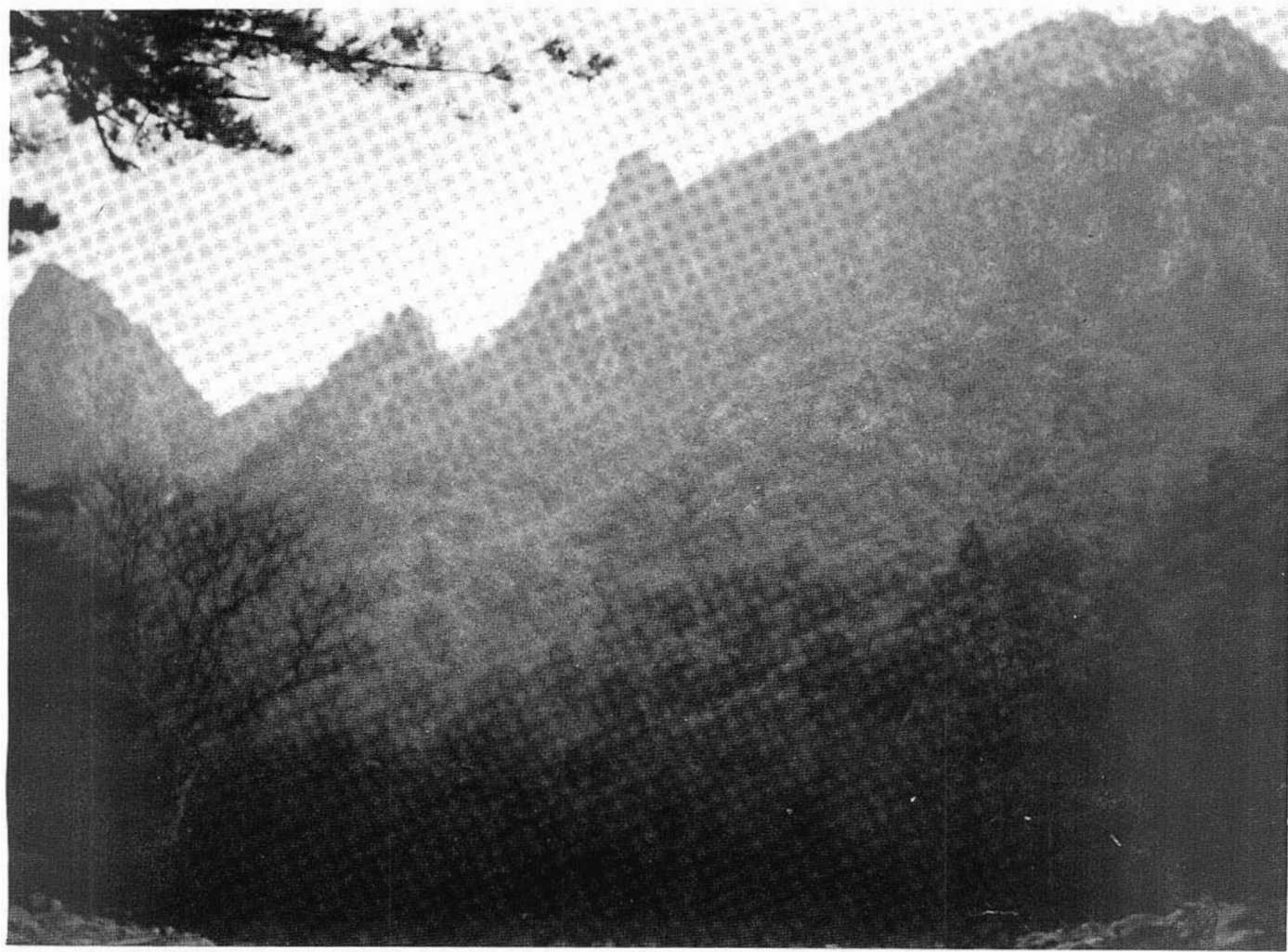
金光秀

약 력

- 咸興師範(44) 平壤美大(50)
 - 個人展 4回(79~84) 서울덕수미술관의
 - 日本아세아現代美展招待 韓國代表團長(83)
 - 韓國美術協會展(84~87)國立現代美術館
 - 咸南道民招待(80~89) 세종문화회관
 - 海外 美術界視察(83. 84. 87) 日本, 유럽
 - 韓國美術協會東洋支部長-中央美術學院長 歷任
 - 現 江原道展 招待作家·운영위원
 - 新紀會·院友會 운영위원
- 畫室 속초시 교동 로얄 APT 1차 B동 409호
T.0392-32-8322.

時 論

금강산 개발과 설악권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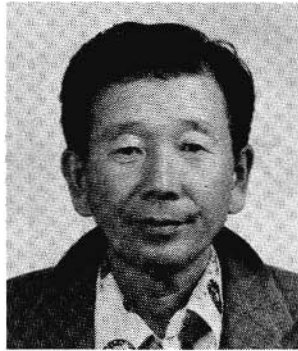


勸 善

사람의 一生이란 아침에 나서 저녁에 죽는 하루살이(蜉蝣)와 같이 짧은 生命을, 이 廣大하고 永遠한 天地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득한 푸른 바다에 뜬 한알의 좁쌀과 같은 조각배, 그 微少한 存在에 不過하다. 永遠히 다함이 없는 大自然의 攝理에 따라 삶을 開拓하고 不可思想하고 神祕한 天地造化에 依據 活動하고 몸부림 친다.

어느때는 마음의 심산에서 홀연히 긴 소리로 울부짖어 山川을 울리고 草木을 震動시키고 싶고 悄然한 느낌에서 마음이 슬퍼지고 心身이 긴장하여 두려워 지면서 오싹하여 머무를 수 없는 人生航路에 彷徨함은 國政에서나 行政에서도 엿볼 수 있다. 너무 빨리 너무 더디게 右往左往의 論難 論爭이 생기는 것도 우리의 成長過程일진데 肯定的인 部分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오로지 民主社會의 政治文化 社會文化 經濟文化 國民의 衣·食·住 文化를 찾으려고 하나 終着驛은 文化人の 國民이어야 한다.

옛날에 韓, 楚, 魏, 趙, 燕, 奇, 六國이 滅亡하고 秦國이 得國後에 阿房宮을 지어 놓고 너무도 호화방탕하고 國法



鄭鍾勳/前 文化院長

이 苛酷하여 人心에 背反을 當한 奏始皇의 마음은 날로 교만하고 완고하여 天下 사람으로 하여금 입으로는 不平을 못하는 代身 心中에 怨恨을 품고 憤怒를 참지 못하게 하였다. 드디어 奏皇은 끝끝내 爲世에 仁君이 못되고 族滅을免치 못했다. 六國이 滅亡한 것은 六國이 잘못하여 亡한 것이요, 秦나라 때문이 아니었고, 秦國이 族滅한 것은 秦國이 잘못하여 滅亡한 것이지 天下에 依해서 망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여기에 中國의 오랜 歷史의 傳統的인 精神文化를 찾아 볼 수 있다. 自國이 망한 것은 自國의 탓이지 他國을 怨望치 않았다. 自身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남의 허물을 꾸짖는데는 明哲하고, 비록 總明할지라도 自己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적으니라.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自身을 꾸짖고 自身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남을 생각해야 함은 보통 사람의 精神的 修養에 기인하는 것이라 깨달아야 하고 自身하여야 함은 勿論이다. 사람이 活動하는 때는 두가지 形이 있다. 卽 하지 않는 形(不爲者之形)과 하지 못하는 形(不能者之形)이다. 其中 前者의 形은 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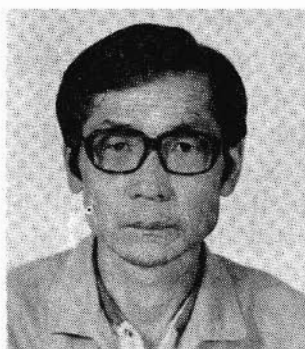
으려는 形인데, 이것이 바로 文化生活에 가장 重要한 沮害要因으로 看做된다. 倫理道德의으로 善하고 正直하고 親切 等은 하지 않으려는 것이지, 하지 못하여 實踐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善과 正直과 親切, 其中 한가지 만이라도 自己의 生命과 같이 生覺하고 初志一貫 한 瞬間도 잊지 않고 信俸하며 實踐에 옮긴다면 몸과 마음에 醇化되어 其外 惡行은 良心의 可責으로 쑥스럽고 부끄러워 行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文者는 貫通之器也라는 말은 文者로 이루어지는 有形의 文章은 無形의 道德을 꿰뚫는 道里라 하였다. 이 道인 文章이 깊이 達하지

**선과 정직과 친절,
그중 한가지만이라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초지일관 실천에 옮긴
다면 몸과 마음이 순
화되어.....**

않고는 道德에 깊이 사무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사람에게 한점 부끄럼없이 (仰不放天, 俯不放人) 善行한다면 期必코 幸福은 찾아 올 것이다. 꼭 幸福은 봄동산에 풀잎 같아서 그 사람을 卽席에서 보지 못하더라도 날로 더 成長하게 될 것이다. 大自然의 不可思議한 無形의 神秘性도 有形, 無形의 人間의 참된 善行으로 周하여 六感을 通하여 敢히 헤아릴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國家와 民族社會와 家庭을 爲하여 人格높은 文化人이 되어 民族魂과 더불어 先進文化 대열에 다 함께 參與하여야 하겠다.

물려줄 유산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평화스럽고 부끄러움없이 삶을 영위하도록 창조된 존재이지만 자신들의 교만과 욕구만을 충족해 보겠다는 오만에서 범죄하므로 화평을 잃고 고뇌와 수치심에서의 초조감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사는 인류들은 지나온 모순의 역사를 반성하고 현재를 정돈해서 보나온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혜가 희망인 동시에



윤중국/마을금고연합회

목표이기도 하다.

첫째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양육강식으로 역사를 점철했고 지나친 욕심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에게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악순환으로 되풀이 되어 왔다. 우리들의 조국, 국가, 지역사회, 개인 모두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부끄럽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후회하면서도 그것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그 모순은 영원히 고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본인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의 과거와 현실, 미래를 항상 생각할 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떠한 과거의 기반위에 세워진 지역인가? 민족의 분단으로 눈물로 얼룩진 서러운 처지에서 오고가는 길손으로의 삶을 찾아 이룩한 이 지역 특성이 아닌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들은 화합과 단결보다는 분열과 독주로 이기적이고 자기위주의 사고에서 일관해 왔고 애항보다는 임시정류장이라는 생각에서 두고온 환상의 고향만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의 인식치인 현실적 삶의 고향을 등한시 해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녀들이 장성하고 이제는 모든 유업을 물려주어야 하며, 물려받아야 할 순서의 장면이 엄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운 일이다. 아직 까지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집과 독주, 분열과 시기가 자리잡은 체 변화할 줄 모르는 구세대의 모순, 이러한 추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물려 주어야 할 세대들은 지난날의 고뇌와 모순을 빨리 버리고 자녀들의 고향이 된 이 지역을 내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정신적 지주를 보여 주어야 하고

**후손에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유산을 물려주기
보다는 올바른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이야 말로…….**

본을 보여줄 때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모두를 생각하는 모습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나의 생과 자녀들까지 기를 수 있게 한 이 지역의 고마움을 알아야 하며 행동으로 표시 되어야 하고 그 때 보답해야 할 일이다.

둘째로는 생존경쟁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고 이념을 초월한 자국이익을 위주

로 급변하여 가는 세계 환경 속에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지역도 이의 조류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좋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아직까지도 수도 서울을 잇는 국도가 5시간대를 넘는가하면 수복지구라는 약점을 핑계 삼아 정부차원의 투자기피 등 아직 옛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약점은 전주민의 단결된 힘의 부족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새 역사속에서 화합과 단결로 참다운 민주사회를 구축하고자 자기반성과 마음의 혁신을 가져오는 자세가 요구된다. 내가 아니면 안되고, 내편이 아니면 안된다는 구세대적 사고방식은 불식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이 지역이 총화단결하는 길이요, 이 지역의 모든 발전을 가져오는 길이라 본다. 이 지역 발전이 우리 모두의 발전이요, 모두의 발전이 나 개인의 발전이다. 후손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기 보다는 올바른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내가 나를, 내가 너를 사랑으로 타협하고, 자기를 상대방에 맞추려는 정신으로 또 이제는 구습을 탈피하고 새 역사를 감당하는 일원으로서의 모두의 힘과 마음을 합하여 다음 세대에 줄 유산을 정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받을 후배들도 받을 준비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항만 개발에 따른 제언

〈수산업협동조합〉

인류의 문화는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항만은 인간사회의 경제 사회문화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속초는 관광지로서 육상과 항공 및 해상을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해상은 연안어장의 형성으로 수산업의 전진 기지가 되고 있으며 화물의 해상수송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련의 시베리아 경제특구 선언으로 시베리아 개발과 철도의 화물수송과 함께 도내 굴지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해륙교통의 인터체인지와 터미널의 역할로 입지상 항만의 개발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운이 육상운송보다 유리한 경제성을 가진다고 볼 때 속초항만 운송 개발은 지역산업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초항은 항만 기능상 어항으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항은 현행 제도상 “어항이라 함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수역 및 육역과 어항시설로서의 …”라 규정하고 있으며 어항시설은 기본시설과 기능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해안기술, 생명공학 생태계 등이 망라된 개발계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쾌적한 해양레저·휴식공간의 기능과, 어민의 주업인 어업과의 마찰이 극소한 범위에서 관광 어항의 개발은 중요한 과제이다.

기본시설은 외곽시설(방파제, 방조제, 호안 등) 계류시설(물양장, 선착장, 안벽 등) 수역시설(항로 및 박지)로 나누며 기능시설은 수송시설, 항행, 보조시설, 어항시설용지, 어선어구보전시설, 보급시설, 수산물 처리 가공시설, 어업용통신시설, 선원후생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어업이라는 산업활동의 지원기지로서 어항의 입지가 어촌지역 자체를 특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어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인 기능과 서비스 기능이 어항을 중심으로 한 소정주구에서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적 취약점이 지적되고 이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아직 어항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부족한 실정을 지적합니다.

수산도시란 어항기능의 복합적인 내용을 표현하며 어촌 중심지의 개발은 어항의 개발과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없으며 어항의 개발은 어촌중심지 기능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행정, 교육, 보건, 의료, 교통, 유통의 중심이며 지역주민의 기본수요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된 각종 수산물의 양륙

기지임과 동시에 위관시설, 가공시설을 갖춘 경제적 생활 중심지를 말할 것입니다.

항만 및 어항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지역계획에 의거 수립되어 지방주민의 참여와 협조속에서 그 지역의 장기 발전을 종합적인 개발 속에서 점차 개발되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며 경제적 사회적 편익이 조화를 이루고 어촌의 자연환경과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항만과 상호보완적, 보충적, 유기적 관련성을 갖고 자연환경, 역사, 문화, 경제, 사회 및 자원 특성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항시설의 개발에는

1. 어항외곽시설인 방파제의 완전한 확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속초항은 동명동항만 개발 계획에 의하여 방파제의 축조로 청초호에 병목현상만 가중시켜 왔고 그 결과 청초호에 뛰어들던 물고기와 조개가 모두 폐사되었으며 현재는 폐수 저장탱크가 되어버린 현실이고 그로인해 우리 어민들은 선박의 스크류와 선저의 부식은 물론 선박엔진 부식도 더욱 가중시켜 직접적으로 어가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심화된 병목현상이 조석간만과 파랑작용으로 청초호를 정화하는데 육지에서 수천억을 들여 건설한 종말처리장 보다 더 큰 역할을 저해하는

**수산도시란
어항기능의 복합적인
내용을 표현하며
어촌 중심지의 개발과
어항의 개발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결과가 되었으며 해저토사의 이동, 퇴적, 침식과 저질 변화를 일으키고 영양염류 공급이 차단되어 어패류의 먹이가 되는 부유물의 발생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및 농·축산폐수·각종 산업폐수의 유입증가로 오염이 점점 더 심화되는 청초호인 폐수저장탱크에 구멍이 날 경우 우리연안 어민들의 생활터전이자 논과 밭인 공동어장, 양식장, 정치망에는 끊임없는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해저에 축적되고 또 축적된 유기물질은 어·패류를 오염시키고 분해되므로 영양염류가 용출되고 산소를 소비하여 저 산소 수역으로 변모하여 어촌생활

근거지를 잃게되고 말 것입니다.

2. 접안시설의 기능분리와 정비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접안시설은 어획물의 신속한 양륙, 준비, 휴식부두로 분리되어야 하나 현재의 실정은 2-3중 계류와 선박 출입으로 빈번한 접촉사고는 물론 부두가 연속적으로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황천시 혹은 성어기에 공간규모가 없는 실정이며 일일히 열거치 않아도 앞서 말한 기본 기능적인 면에서의 확충이 절실히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로운 것들에 대하여 과욕을 버리고 해안기술, 생명공학, 생태계 등이 망라된 개발계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쾌적한 해양레저, 휴식 공간의 기능과 어민의 주업인 어업과의 마찰이 극소한 범위에서 관광어항의 개발은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60. 70년대의 경제개발 방식은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토의 훼손이나 오염이 용인되었으나 2000년대를 향한 우리국가의 발전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에 있다고 할 때 국토발전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적 균형 배분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특성과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성장이 그 지역에 집적될 수 있도록 기본 수요충족 위주의 정주생활권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호 새마을금고의 오늘

우리 청호 새마을 금고를 소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동지구 설악산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한 속초시에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청초호와 동해바다와의 파벽제 역할을 하고 반도형으로 생긴 백사장이 바로 저희 마을 금고가 있는 청호동입니다. 곡식 한포기 심을 수 없는 순수한 해변촌으로서 6.25사변전에는 인가가 전무한 황무지로서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총가구수는 1,100세대에 5,0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회원 실태를 보면 정회원 620명 준회원(학생) 2,500명이 가입되어 있고 현재 총 자산은 10억원을 돌파하여 청호주민의 은행으로서 구실을 다하고 있습니다. 6.25후 수복하면서 북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한치라도 잃어버린 고향 가까이 있다가 귀향을 목적으로 주인없는 해변 백사장에 임시 판자집을 지어 살아온지 어언 35년이 되었습니다.

분단된 채, 고향만을 그리며 살아오는 청호동 주민들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청호동 땅은 항만부지니, 입항부지니 하여 35년의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지금



황화수 /

청호새마을금고이사장

까지 불하도 못받고 사유재산으로 성취도 못한 채 살고 있으며 경제가 고도로 발달된 오늘에도 주택개조나 신축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살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상은 대다수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또한 수산물 건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력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강력한 함경도 또순이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본 금고가 걸어온 발자취를 소개하면

1974년 12월 24일 국민운동으로 「잘살아보기운동」에 발 맞춰 초대 이사장이 41명의 회원으로 41,000원의 자산을 마련하여 청호새마을금고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금고라기보다 개인이 하는 계 형식으로 이사장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저축하여 왔으며 그 운영을 7년간이나 봉사하다가 병환으로 타계 했으며 2대 후임자로 인계자산은 6천만원 정도 후임 이사장은 1년 3개월을 운영하다가 자신없어 사의를 표하였고 3대 이사장도 역시 운영에 자신이 없어 사의 표명하여 자산운영을 책임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본인

은 감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회원이 저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게 되어 자신의 사업도 있고 하고 사양을 하였지만 회원들의 권유로 지역발전에 봉사하고 금고육성을 위해서는 꼭 맡아 주어야 한다는 권고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1984년 4월에 본인이 인수한 총자산은 약 1억원 정도며 그중 절반이 국민학교 학생들의 저축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은행없는 동떨어진 곳에 금고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한 바, 마을 주민들이 금고를 인식 못하고 불신만을 고집하는 까닭을 알고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으며 고리채 정리를 활발히 전개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점차적으로 안심하고 신뢰하여 마을금고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회관없이 동사무소 입구복도 한평 정도에다 책상을 놓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회관건립을 86년도 추진하였으나 부지마련이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난관에 부딪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87년 6월에 市의 협조로 부지마련은 했으나 시유지로서 행정문제상 불하를 받아야 했으므로 건축허가가 수속되지 않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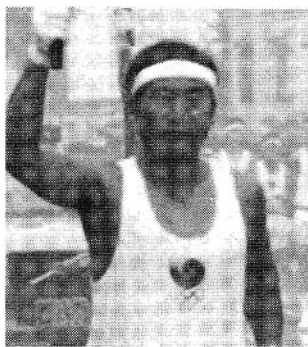
심하다 2년후 노력끝에 불하가 성취되어 건축케 되었습니다. 건축자금은 도지부의 저리융자를 받아(3,000만원) 자체자금 2,000만원 합 5,000만원으로 연건평 51평의 아담한 2층 건물을 완성하였습니다. 1층은 사무실로 이층은 회의실로 하였으나 우리 지역은 시내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없어 학생들의 도서관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도서관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마을노인회관에 월동용 연탄을 200장씩을 도와주고 국민학교 졸업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네 불우한 이웃돕기 사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 전주민이 화합과 단합으로 잘사는 마을로 매진 할 것입니다.

성화봉송의 영광을 다함께

올림픽 平和의 象徴인 聖火를 逢送하는 走者로 選擇된 幸運에 感謝를 드린다. 「1988年 8月 23日」 드디어 平和의 蠶室벌, 메인스타디움, 聖火臺에 點火되게 되었다. 長長 1만 6천 8백 86km에 이르는 거리를 걸쳐야 하였다. 航空機로 國際逢送이 1만 2천 3백 44km와 國內逢送 4천 1백 68km에 이어 採火國인 그리스國內 逢送이 3백 74km로 大長征을 걸쳤다. 첫 到着地, 濟州道에서 始作하여 2만餘名の 逢送走者들의 손에 손으로 이어진 聖火는 9月 11日 11時경에 드디어 우리고장 東草에 到達하였다. 새벽부터 억수같이 쏟아지는 초가을 빗줄기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으며 하얀유니폼으로 단장하고 까만 아스팔트 위에 堵列하여 聖火棒의 點火를 기다리는 走者들을 흠뻑 적셔 물주머니로 만들어 놓았다. 빗속에 어두운 하늘을 환히 가르면서 흠뻑젖은 9區間的 走者들이 불게 피어 오르는 蠶室벌을 들고 到着하였다. 우리는 聖火棒에 點火를 마치고 다음 走者팀을 向해서 달려나 갔다. 퍼붓는 빗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경순/속초문화원
감사

沿道에 惝惝 市民들의 물결 속을 누비며. 우리들은 舞臺 위에 演技人처럼 榮光스러운 感에 힘써여 활활 타오르는 聖火棒을 높이 들고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기쁘고 황홀해서 어쩔 줄 몰랐으며 아무 生覺도 없이 走馬看山 格으로 달렸다. 10區間的 市街와 낮익은 建物들과 沿道에 나온 환영人波들, 그리고 우측으로 펼쳐진 東海의 푸른 바다도, 내눈에는 한낱 필림속에 비취지는 파노라마에 불과하였다. 하늘도 祝福을 내리시는지 비는 여전히 즐기차게 내리는 데 힐끗 聖火棒의 불을 쳐다보니 이글거리는 불꽃은 千里라도 달릴 것 같은 心情에 精神이 새로와짐을 느꼈다.

나는 마음 속으로 祈願하였다. 太陽의 神이시여 내가 몸담아 살고있는 東草땅에 祝福을 내리소서, 8만餘, 東草市民들께서도 健康한 生活을 누리게 하소서, 日就月將하는 東草의 發展을 굽어 살피주시고 豐饒로운 都市로 자라나게 하소서, 太陽의 불을 또 한번 쳐다보았다. 東海의 光景과 沿道에서 환영하는 시민들의 환성을 뒤로 남기며 11區間的 走者앞에 到着하였다. 聖火棒을 하



늘높이 추켜올려 點火하는 瞬間 나는 경건한 자세로, 最初 헤라神殿에서 첫 採火者 女司祭인, 카테리나 디다스 칼루婦人께 마음속 깊은 感謝의 맺세이지를 띄웠다.

일찌기 印度詩人「타고르」는 아시아의 朝鮮을 일컬어 東邦의 燈燭이라 했으며 그 燈燭이 켜지는 날에 너는 東邦의 밝은 빛이 될 것이 라고 豫言하였다.

오늘날 大韓民國 서울蠶室벌의 競技場 하늘에 떠오르는 聖火는 東邦의 燄별로 昇華되었다.

제24회 서울올림픽大會에 불을 밝힌 聖火棒은 모두 2천 1백 56개가 소요 되었으며, 聖火棒은 淑明女子大學校「이우성」教授任께서 圖案設計하셨고, 韓國火藥측에서 製作生産하였다.

材質은 놋쇠로 만들었으며, 聖火棒의 길이는 52.1cm이다. 燃燒時間은 7分用과 10分用의 두種類로서 走者가 뛰는 거리에 따라서 事用하게 되었다. 그리고 本 聖火棒의 特徵은 分當 20mm의 暴兩와 初速 33m의 強風에도 견디며 영상 72도와 영하54도의 惡條件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完璧한 性能을 자랑하는 高度의 技術로 設計되어 製作된 것이다.

이번 聖火逢送 期間에 흐뭇한 事例가 走者팀에 있었는데, 太平洋을 멀다 않고 날아온 走者가 있다. 美國오레곤주 크레샴市 出身인 「SCOTT. MROHR」라는 분께서 서울올림픽을 成功的으로 치뤄지길 바라는 간절한 祝願의 聖火逢送을 하게 되어 더한층 이채로웠다.

우리는 수많은 沿道の 歡迎人波를 뒤로하고 無事히 聖火逢送의 使命을 마치고 귀가길의 車에 올랐다.. 나는 또한번 冥想에 잠겼다. 우리 東草 8만餘 市民을 대신하여 榮光스러운 일을 해냈고 이 고장에 또 하나 文化의 價値를 꽃피웠으며 後世에 길이 남을 新文化를 暢達 一翼을 擔當하였다는 召命感과 矜持를 永遠히 간직할 것이며 서울올림픽의 大行事가 無事히 成功的으로 마칠 수 있기를 두손모아 祝願하였다.

金剛山 開發과 雪嶽圈의 기능

1. 金剛山 開發 構想과 現況

金剛山은 한반도의 등뼈인 太白산맥의 중앙에 위치하여 江原道 淮陽, 通川, 高城, 麟蹄, 4개군에 걸쳐 南北의 길이는 60km 東西 40km, 그리고, 전체면적은 530km²에 달하면서 內金剛, 外金剛, 海金剛으로 나뉘어져 있다. 금강산은 조물주가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精誠과 技巧를 다하여 갈고, 깎고, 쪼아내고, 다듬어서 東方의 등불인 우리民族에게 마지막 선물한 절묘한 名勝地이다.

세계의 中央으로 가장 찬란한 文化를 갖고 中華를 노래하는 中國人들도 일찍이 願生高麗國 一見金剛이라 하지 않았던가? 꿈속에서만 그리던, 魂만이라도 살고 싶었던 금강산을 이제는 갈 수 있게 된다니, 가슴이 뭉클하다.

우리 韓民族의 지상과제인 統一大業을 이룩하기 위하여 南北韓은 모두 民族共同體意識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金剛山은 민족공동체意識 形成過程에서 필수적인 前進基地이다.

그러므로 南北韓 當局은 금강산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과 意志를 항시 표현해



임덕수 / 동우전문대 교수

왔다. 南韓에서는 1972年 7月 4日 南北共同 성명이發表되기전 金剛山 雪嶽山 地域 觀光도로 構想만을 극비리에 만들어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금강산과 설악산, 비무장지대 일부, 昭陽湖 및 東海岸일대를 단일 觀光圈으로 묶어서 世界的인 觀光휴양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진입도로망으로는 京元國道와 京春國道 및 國道 44번과 嶺東高速道路, 東海岸高速道路, 中央高速道路와 함께 昭陽湖舟運을 제시하고, 投資總額은 1억7천3백 16달러로 41.3%는 도로, 비행장,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하부구조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金剛山,雪嶽山연계개발 구상이 있는 후 1982年 2月 1日에는 統一院에서 南北統一을 爲한 20개 시범사업중 하나로 金剛山과 雪嶽山을 自由觀光地로 설정할 것을 北韓當局에 제시 하였다.

北韓에서는 80年代에 들어와서 만성적인 외화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觀光事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金剛山일대의 觀光施設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81年末 동석동~세존봉~천석대~구룡연~만물상

에 이르는 外金剛 순환등산로를 확장했고 원산, 금강산 간의 120km의 도로도 자갈로 포장 개수했다.

또한 금강산개발의 중심지인 溫井里에는 82年度에 客室160여개를 갖춘 12층짜리 조총련 전용, 관광호텔을 완공했으며, 신계, 양지(회상다리) 만경, 금수, 옥류교 등, 6개의 줄다리를 철다리로 교체, 보완했다. 北韓은 침체된 경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84년에 合營法을 제정하여 外國企業과의 合作投資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관광사업을 合作對象에 포함시켜 日本觀光業界와在美교포 실업인들을 유치하여 金剛山 일대의 관광개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87년에는 원산, 금강산 휴양지 국토종합건설 총계획을 마련하여 1단계로 금강산과 시증호, 명사십리 등지에 10여층 규모의 관광호텔과 위락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물상, 삼일포 사이의 6만평 부지에 10층 규모의 금강산 휴양소를 건설 중이다. 이와 함께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산, 송도원에 30여만평의 해수욕장과 인공호수, 경마장, 수증열차등의 위락시설을 건설하고, 通川의 侍中湖를 집중 개발해 제2의 동방식공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객들의 수송을 위하여 86年 9月 부터 元山~高城간에 여객선 은덕1호를 운항 시키고 있다.

**북한에서는 80년대에
들어와서 만성적인
외화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관광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금강산 일대의
관광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南北韓은 각기 높은 관심과 집중적인 投資를 金剛山에 하고 있다. 이러한 南北韓의 금강산에 대한 개발意志는 마침내 鄭周永현대그룹회장과 北韓대성은행 이사장겸 아시아 무역촉진회 고문인 최수길과 사이에 金剛山共同開發을 위한 議定書를 교환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勿論 이 議定書는 民間人들에 의한 合議書이나, 兩側共히 고위층과 事前協議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形式상으로는 民間차원이나, 실제로는 政府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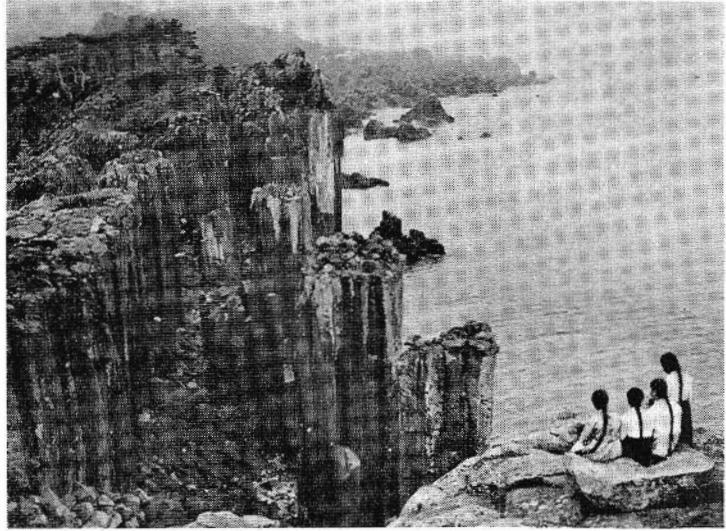
이번 合議議定書內容은 元山과 金剛山을 연계개발 明沙十里로 부터 通川의 侍中湖 및 총석정 금란지구 금강산을 잇는 金剛山圈을 世界的인 觀光圈으로 共同개발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投資規模, 호텔 및 위락 시설규모, 사용통화, 도로, 철도등 交通시설의 구체적 內容까지도 意見接近을 본 모양이다.

金剛山이 本格的으로 개발될 경우 雪嶽圈과의 연계개발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본다. 雪嶽圈에서 五臺山, 太白山, 周王山, 慶州, 釜山을 거쳐 濟州道에 이르는 韓半島, 東海岸 觀光코스를 개발하면 전천후 관광지대로 世界的인 觀光寶庫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雪嶽圈의 役割

雪嶽圈은 江原道 東草市와 襄陽郡, 麟蹄郡, 高城郡

금강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설악권과의
연계 개발은
필연적인 것이다.



에 걸쳐있는 總面積 354.6 km로 山, 바다, 호수, 온천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고루 갖춘 韓國第一의 국민관광휴양지로 連人員, 內國人 500 만, 外國人 4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승지다.

金剛山이 개발될 경우 전문가들과 기술진을 포함한 기초원자재 최신설비 기계와 자재등 많은 人的 物的 요소들이 적기에 効果的으로 金剛山에 投入돼야 할 것이다.

그럴경우 時空을 단축하면서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開發前進基地가 必要하다. 그 前進基地가 雪嶽圈인 嶺北地域으로 東草, 高城, 襄陽이라고 본다.

이곳은 金剛山과 가장 가까운 地域으로 陸上, 海上, 空路等, 金剛산과 연결할 수 있는 交通의 요충지다. 陸路의 경우에 東草에서 外金剛까지가 80km로 高速道路를 建設하여 달릴 때 40分거리다. 海上으로는 東草港에서

外金剛까지가 56km로 1시간이면 족한 거리다. 空路의 경우 東草비행장에서 長箭비행장까지 20分거리이므로 金剛산개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能률성과 효율성이 가장 높고 높은 곳이다. 특히 이곳은 北韓當局이 統一問題를 거론할때나, 南北協力方案을 모색할 때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美軍의 주둔이 없는 곳이다. 또한 東海岸 海路는 철책도 없고, 南北韓군대의 대치상태도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명분論이나 현실론으로 볼 때 北韓當局의 立場에서 볼때 한국과 교류 왕래지점으로 는 最適地라고 보인다.

이와같이 嶺北地域에 위치한 설악권은 金剛산개발 전진기지로서 막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現在 설악권의 位相은 너무나 초라하다. 설악권으로 통하는 陸路交通網은 釜山에서부터 東海岸을 걸쳐, 삼척, 강릉,

정부 당국은 설악권의
현재 모습을 직시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하고
지역주민들은 설악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속초로 이어지는 7번국도와
홍천, 인제를 경유하여 들어
오는 44번 국도로서 이들
도로들은 노퍽이 좁고 굴곡
이 심하여 항시 사고위험성
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
는 곳이다. 海上關門으로는
東草港, 臣津港, 大津港이었
으나 이들 항구는 內港으로
서 접안시설과 수용능력에
서 원시적이고 조악하기 그
지없다. 東草港의 경우 水深
이 5~7m로 大型선박이 접
안할 수 없다. 항공노선으로
는 속초비행장이 있으나 공
항시설이 미약할 뿐만 아니
라, 주변의 자연적 여건이
너무나 취약하여 확장할 수
도 없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7번국도와 44번국도를 4차
선고속도로화 해야 함은 물
론 東西高速電鐵도 東草를
終點으로 하여 빠른 시일내
에 착공할 필요가 있다. 東
草港도 鳥島 주변의 수심이
15m 이상이므로 현재의 방
파제에서 1,170m인 0.7마일
만 더 쌓으면 天然의 내항

으로 5만톤급 이상의 대형
화물선과 韓日간 페리호 취
항도 可能할 수 있다. 또한
雪嶽圈에 있는 4개의 湖水
와 金剛山圈의 4개 湖水를
東海를 通하여 연결할 경우
참으로 경승 중의 경승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東草의 靑草湖와 永郎湖, 高
城의 松池湖, 花津浦를 집중
開發하여 위락과 휴양시설
을 고루 갖추어 경우 海金剛
의 三日浦와, 영랑호 通川의
侍中湖와 동정호를 잇는 관
광유람선을 띄울 경우 상상
만 하여도 가슴이 뭉클하다.
항공노선도 政府가 發表한
바 있는 襄陽郡 손양면 鶴
浦리에 대단위 國際공항 신
축을 하루빨리 可視化해야
만 한다. 이밖에 설악권을
찾는 觀光客들의 欲求充足
에 맞는 施設과 설비 확충
이 시급하다. 이곳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들의 욕구가 요
즈음 크게 변하고 있다. 지
금까지는 精神的 靜的인 관
광으로 보고쉬는 관광이었

으나 이제는 肉體的 動的인 관광으로서 參與와 즐기는 관광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自然資源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人文資源으로 人爲的 觀光資源인 위락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곡하와이처럼 대단위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곳 여건에 맞는 해상스키장, 바다 낚시터 개발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요즘 이곳을 찾는 觀光客들은 대부분이 學生集團 아니면 家族單位觀光客들이다. 이들에게는 民俗村, 漁村, 박물관을 建立하여 情緒的 안정은 물론 教育文化 습득의 기회도 주어야만 한다. 觀光地의 使命은 지친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곳을 찾는 觀光客들에게 육체적인 피로도 풀고, 精神的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내일을 위한 희망찬 設計와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찾는 터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嶺北地域인 이곳 설악권은 現在 狀況에서도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 地域보다 重要하다. 향차 10억 불 이상이 소요되는 금강산 개발이 本格化 될 경우 그 前進基地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再論을 필요치 않는다. 政府當局에서는 설악권이 갖는 現在的 未來指向의 立場을 감안하여 集中的인 投資와 開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지난번 大統領선거 때의 公約 그 이후 여러차례의 政府當局의 發表들과 요

**설악권을 찾는
관광객들의 욕구가
요즘 크게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구경하는
정적인 관광에서
참여하는 동적인
관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즈음 당국의 개발의지의 표명을 綜合整理해 보면 7번 국도를 강릉에서 高城까지 4차선 高速道路, 東海高速電鐵, 44번 국도 확포장 및 新道路開設, 靑草湖 및 花津浦 集中개발, 東草港을 國際港으로 개발, 국제비행장신축, 東海岸 北端, 平和市 建設, 잼버리 배후도시로 시가지 정비 등등 꿈에서나 볼수있는 바의 理想的都市像이 곧 눈앞에 現實로 나타날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설악권에 꿈의 都市가 태어날 것 처럼 야단 들이다.

住民들은 모두가 꿈에 부풀어 오르고, 외지인들로 인한 不動產투기로 시내는 온통 범석이다. 제발 政府당국에 당부하고 싶다.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이곳 住民들과 이곳을 찾는 외래 觀光客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꿈 현실화 해야 한다.

地域開發은 政府當局의 意志와 地域住民들의 積極的인 參與가 調和를 이루어야 가장 알찬 發展이 이룩된다.

그러므로 地域住民들도 맡은바 機能과 役割이 있다. 몇가지 付託하고자 한다. 이곳 嶺北地域 雪嶽圈의 人口分布를 보면 現時點에서 東草市가 7만2, 천명이다. 고성군이 4만4천명, 양양군이 3만 6천명 모두 합쳐봐야 겨우 15만2천명이다.

그러나, 行政區域은 1개市 2個郡으로 나뉘어졌다. 住民들의 생활권과 생활양식은 하나이나 精神的인 意識과 情緒的인 感覺은 각각 다르다.

지역개발에 대한 要因的 要素는 共同으로 느끼면서 開發 목소리는 각각 다르다.

그러나, 嶺北地域은 地理的 條件과 資源分布狀態, 그리고 人的構成으로 볼 때, 환 설악권으로 하나로 묶어서 개발될 때 能率과 效率性이 더욱 極大化되어 地域 住民들에게 돌아가는 利益은 더욱 클 것이다. 勿論, 開發利益的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 상호간에 對立과 相衝點이 생길 수 있으나, 이것은 地域住民 全體 構成員들에게 共同利益이 되는 開發事業을 우선 순위로 개발할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15만 지역주민들이 상호 대립과 갈등 경원과 멀시, 그리고 이기주의와 배타성을 버리고 설악권의 主人이라는 共同體的 主人意識속에서 하나로 뭉쳐 환설악권 지역개발 委員會를 만들어 지역개발에 대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또한 지역개발은 地域住民들 스스로의 自律的 參與와 積極的인 協調를 바탕으로 한 調和가 없이는 不可能하다.

금강산과 설악산이 공동개발되어 남북 주민들의 자유왕래가 이루어질때 우리는 통일 염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住民들 스스로 감자바위니 岩下老佛이니 하면서 自身의 無氣力함을 탓하고 조롱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시점에서는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이곳을 찾는 內外 國人 모두가 설악권 지역 주민들은 정말로 선택받고 祝福받은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 스스로 배타적이 아닌 選民意識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主體性을 가지고 能動的인면서 進取的인 기상을 가지고 성취욕구에 불타는 住民像을 지녀야 한다.

이상과 같이 住民들의 위상이 변할때 雪嶽圈은 金剛山開發과 더불어 世界的인 전천후 人類의 휴양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금강산과 설악산이 공동개발되어 南北韓 住民들의 自由왕래가 이루어질 때 南韓사람들은 金剛山을, 北韓사람들은 雪嶽山을 찾을때 우리들이 살고있는 嶺北地域은 南北分斷의 상흔을 제일먼저 치유할 수 있는 統一病院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傳統과 설날의 是非



김보한/속초시 조양동

世界各國의 歷史古典마다 太初에 關하여는 神話傳說로 始作되지 않는 것이 없고 특히 開國始祖에서 關하여는 종종 神異한 說話가 짝하여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라 하겠다.

옛사람의 心理로서는 始祖의 由來와 出生은 凡人과 달라 神異非常한 樣으로 그들의 權威性을 維持하기 위한 手段으로 傳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5천년의 開國始祖說話形態의 傳來는 天神族說(桓雄說話, 北扶餘, 解慕宇傳說) 地神族說(西述聖母說話 및 濟州島三姓說話) 天地兩神族說(檀君 및 大加耶始祖傳說) 外來族說(箕子東來說, 昔脫解傳說) 卵生說(朱蒙 赫居世 알智 首露傳說) 등이 있으나 현재 文獻중 가장 오래된 史書로서는 三國遺事(卷一)에 所載된 것 이외에는 더 올라 갈 것이 없다 한다.

여기에 其 斷簡의 原文을 인용한다면

『魏書云 乃往二千載 有檀君王儉 立都阿斯達 經云無葉山 亦云白岳 在白州地 咸云在開城東 今白岳當是.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敬意天下 貪求人世 文知子意. 下親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人三個 遺往理之 雄

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妙香山 즉,太伯令) 神壇樹下 謂之神市……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時有一態一虎 同穴異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省略』

이라하여 天帝의 子 桓雄은 熊女와 結婚하여 檀君을 낳았다는 설이 오늘에 存傳하는 資料라 하겠다.

人類의 起源과 더불어 發生되는 信仰은 東西洋을 莫論하고 古代로부터 井泉樹木 太陽 등의 自然崇拜와 祖上崇拜等의 儀式이 行하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韓民族도 高句麗에서는 10월에 하늘에 祭祀하고 歌舞飲酒 하는 東盟의 行事가 있고 동쪽동굴의 수신이나 始祖神인 扶餘神, 高登神의 神廟를 設置하고 祭祀를 지냈으며 東明王 14年(B. C24)에는 王의 어머니 柳花가 죽자 동부여왕 金蛙가 太后의 禮로서 葬事를 지내고 神廟를 세우니 東明王이 使臣을 보내어 禮物를 드렸다는 記事에서 祖上神의 祠堂을 設立하는 制度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太祖王, 新大王, 故國王 등 歷代王들이 始祖의 祠堂에 祭祀를 드렸고 故國壤王 9년에는 國社(社稷壇)를 세우고 宗廟를 修理하였다고 한다. 百濟에서도 溫祖王元年(BC18)에 東明王廟를 始祖의 祠堂으로 세우고 溫祖17년에 國母의 祠堂을 세워 祭祀드린 이래 宗廟制度가 마련 溫祖 38년에는 天地에 祭祀하는 祭壇을 쌓았고, 新羅에서는 2代 남해왕 3年(AD6)에 始祖인 赫居世의 祠堂을 세웠으며 8세기후인 惠恭王때에도 諸侯의 宗廟制度에 따라 5廟를 設置, 37代 善德王에 이르러 社稷壇을 設置하여 祭祀하였으니, 各기 其나라의 꿈과 信仰이 있어서 其꿈을 實現하기 爲해 努力하며 삶을 營爲해 나가면서 民族文化 發展을 圖謀 其時代의 價値基準을 提供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其文化의 基礎理念과 思想이 縮減되어져 國家民族의 隆盛時에는 燦爛한 文化의 發展이 있었고 衰退할때에는 其傳統마저도 사라져 가고 마는 것은 많은 高僧들이 代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文化는 BC565年頃 印度의 釋迦誕生과 BC551年頃 中國의 孔子誕生으로 因한 信仰이 그 바탕이 되어 歸一心源의 佛敎의 本質과 克己復禮의 儒敎의 思想, 無爲自然하는 道敎의 哲學文化가 17C 西歐文明이 傳來될 때까지 韓國文化發展의 媒介로 展開되어 왔으나 韓國의 뿌리깊은 文化의 思想은 檀君始祖의 建國理念인 弘益人間精神이라 하겠다.

여기서 暫時 李氏朝鮮의 儒佛仙思想 文化는 且置하고 韓國近代의 基督教傳來와 文化의 價値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朝鮮王朝가 襄退期를 超來한 것은 1592(宣祖25)~1598년까지의 壬辰倭亂과 1636(仁祖14)~1937년의 丙子胡亂으로 나라 全體가 荒廢期를 맞이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民族의 危機와 災亂속에서도 政治의 支配階層의 政權爭奪을 일삼는 싸움과 集權層은 長期集權慾 및 族伐政治를 劃策하여 不腐를 招來케 했고 社會에는 貧富의 隔差와 이에 따른 庶民層의 生活權 危脅이 일어나자 朝鮮王朝는 改革의 必要性과 새로운 理念이 要請되었던 것이며, 正統主義였던 德治主義 朱子學을 再檢討하고 새로운 理念을 찾고자 하는 疏外된 南人 學者들에 依해 觀念的인 空理論을 批判하고 政治, 經濟, 社會의 改革을 뒷받침할 새로운 學問인 實學과 함께 西學이 傳來되었던 것이다.

이때 李承薰은 芝峰類說에서 伊太利의 中國 宣敎師 「마테오리치」를 紹介하고 天主實義에서도 內容을 要約解說 하였으며 英祖末期부터는 朝廷에서 물러난 李家煥, 丁若鏞, 權日身 등이 天主學에 熱中하여 學問으로부터 漸次 信仰의 境地에 이르게 되었다. 最初로 天主敎에 入敎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李承薰으로 그는 1785年(正祖7)父親 李東郁을 따라 北京을 訪問 北京敎區의 그라몽(Grammont)神父로부터 洗禮를 받고 다음해 聖書와 聖像을 갖이고 歸國한 后 信仰運動이 強化되어 最初의 天主敎會가 서울 金範禹의

집에서게 되어 信徒數가 늘어나게 되었으니 우리나라는 宣敎師의 傳道없이 學者들에 依한 自發的인 研究로 成立한 것이 世界敎會史上의 特徵이라 하겠다.

이렇게 信仰運動이 表面化됨에 따라 朝廷에서는 迫害를 加하기 始作하였다. 正祖는 比較的 天主敎의 彈壓을 삼가 했으나 固陋한 朱子學에 사로잡힌 朝廷의 臣下들은 天主敎가 忠孝의 思想에 反하고 君臣의 道를 어지럽게하며 社會의 倫理를 紊亂케 한다고 主張, 1791年(正祖 15)에 辛亥邪獄, 1801年(純祖1年)에 辛酉邪獄(丁若鏞等 300余名殉敎)을 이르켰으며 1839年(현종5)에 己亥邪獄을 이르켜 수많은 宣敎師와 信徒들이 死形을 當하였다.

그러나 信徒의 活動은 繼續되어 1845年 金大建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最初의 神父가 되어 傳道하다 1846年 25세의 나이로 殉敎를 當하고 其後 大院君의 執政으로 迫害는 加一層 甚하였다. 이 迫害로 丙寅 辛未의 두 洋擾와 南延君墓盜掘事件으로 朝廷은 더욱 感情的으로 發展 各處에 斥和碑를 세워 迫害를 甚하게 가했었다. 其後 大院君의 沒落으로 1882年 美國과 修好條約을 맺음으로 斥和碑를 없애며 韓日合邦때까지는 天主敎 活動이 自由를 얻게 되어 敎區가 擴張되었었으나 合邦後 敎會建物の 증발 敎會系統의 學校閉鎖 등 日帝의 彈壓속에 1945年 解放을 맞아 1962년에는 노기남, 서정길 主敎가 韓國最初의 大主敎로 昇品되었으며 1969年 김수환 大主敎가 한국최초로 樞機卿으로 昇品되어 오늘에 이른 天主敎 傳來의 過程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天主敎보다 100余年後에 傳來한 基督教은 1885年(高宗22) 4月 5日이 韓國改新敎歷史의 記憶할 만한 날로서 監理敎開拓者인 아펜셀러(Herry, G. Apperceller)牧師夫婦와 長老敎를 開拓한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牧師가 처음으로 仁川에 上陸한 날이다.

아펜셀러는 貞洞 第一監理敎會와 陪材學堂을 設立하고 宣敎와 教育에 힘썼으며 언더우드 亦是 새문안長老敎會를 세우고 宣敎와 教育에 힘써 1915년에는 延禧專門學校를 設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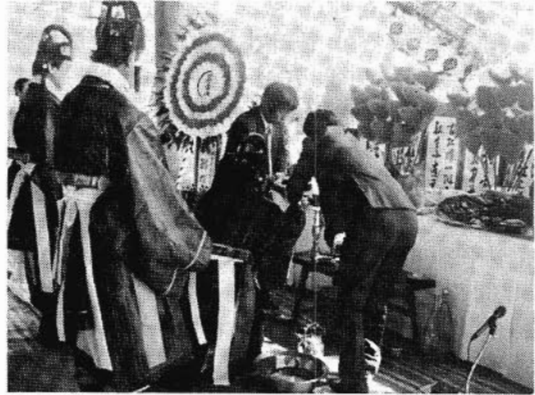
아펜셀러와 함께 韓國改新敎의 三大事業인 宣敎活動과 敎育, 그리고 醫療事業의 基礎를 形成하게 되었다.

특히 宣敎事業은 敎會擴張運動에만 置重한 것이 아니고 文化運動도 함께 擔當하였으니 첫째로 舊韓末까지의 一般敎育인 官史가 되기 爲한 書堂敎育을 止揚하고 西歐式 敎育方法을 導入 現代敎育文化의 發展을 갖어왔고, 둘째로, 한글을 發展시키고 普及한 基督敎의 聖書와 讚送歌를 出版한 文書運動이라 하겠으며, 셋째로는 敎會마다 基督青年會를 組職 青年文化形成의 基盤을 이룬 YMCA運動이며 넷째로 儒敎의 保守主義 社會속에서의 韓國 女性들에 對한 社會參與와 敎育機會를 열어준 것이라고 하겠다. 마지막 다섯째로는 漢方 醫學에서 西歐現代醫術을 導入 主要都市에 病院을 設置한 醫療事業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西歐의 文明을 信仰 및 宗敎的 則面에서 概括的으로 傳來過程을 살펴 보았으나 民族魂을 살리기 爲한 뜻에서 燦爛했던 文化遺産을 考察하여 보기로 하자. 三國時代로 올라가서 高句麗의 壁畫 君王들의 石墓, 巨大한 碑石(廣開土王碑) 百濟의 武寧王陵, 百濟觀音像, 佛敎 및 學術, 技術의 日本傳播, 新羅의 花郎道 慶州佛國寺, 石窟庵 靑銅鍾 薛聰의 「史讀」를 代表的으로 들 수 있고 高麗時代에는 八萬大藏經 佛像, 佛畫, 靑磁 三國史記와 李朝時代에는 書籍刊行(百科事典, 地理學, 佛敎經典, 法典, 史籍, 高麗史 등) 測兩器 한글制定 백자 景福宮의 創建 등 世界的으로 자랑할 만한 歷史의 遺物들이 其時代의 全盛期에 꽃피워 있었던 것임을 볼 수 있다.

今般 政府에서는 舊正 或은 民俗의 날로 부르던 陰曆 1月 1日을 固有的의 名節인 「설」 날로 定하여 連3日間의 休日로 決定 發表하였다.

모든 國民들이 歡迎하며 설날의 連休에 對하여 즐거워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創世記 2章1節에서 3節까지는 이렇게 쓰여 있다. 「하나님이 天地萬物을 다지으시고 일곱째날이 이룰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므로 일곱째날에 安息하시고 그날을 福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送舊迎新의 첫날에 쉬는 것을 누가 마다할 이 없겠고 歷史깊은 傳統의 설날에 잊었던 美風良俗을 되찾는 우리 固有的의 風習을 누가 反對할 분이 있을까 마는 요즈음 5共非理니 光州事態니 地自制實施니 또한 中間評價니 하여 이번 措置를 中間評價와 結付시키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참으로 世論이 구구하여 國論統一이 아쉬운 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이란 定義는 새해의 正月초하룻날이라 한다. 語源은 「섭다」「슬프다」의 뜻에서 온 것이라 六堂 崔南善 先生은 풀이하고 있으나 明文치가 않다.

「설」은 한해가 바뀌어 새해의 첫날에 1年 동안의 無事함을 祝願하기 爲해 근신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하고 때문에 古書에는 慎日 또는 槍刀라 記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월의 처음인 上子, 上辰, 上午, 上亥 날에 모든 일을 忌愼하여 舉動을 함부로 하지않은 風習에 있었기 때문이다. 「설」날은 祖上에 祭祀하고(차禮) 省墓를 가기도 한다. 또한 男女老少가 설빔을 입고 歲拜를 하며 歲饌을 즐긴다. 親知相面時에는 德談을 나누기도 하고 옛날 士大夫집에서는 查頓間에 問安妃를 보내기도 하며 高官大爵의 兩班집에서는 옷칠한 쟁반을 두어 訪問客의 명함을 받는데 세함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承政院에서는 文官들에 新年詩를 짓게하고 圖書署에서는 君王의 長壽를 祈願하는 神仙의 그림을 마치고 親交間에는 歲畫를 交換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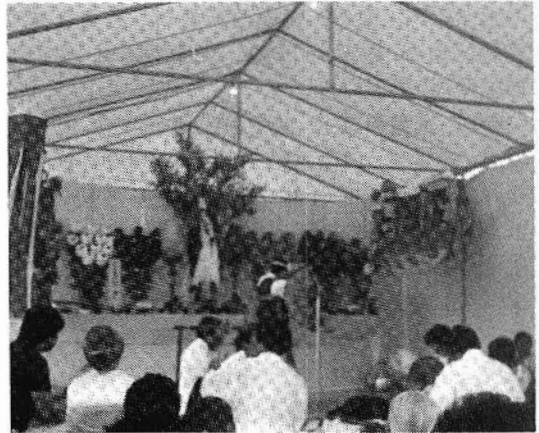
民家에서는 金, 甲 두將軍(諸葛亮 주유 또는 四天王)의 鬼神뎐은 그림을 문설주에 붙

이는데 이를 문배라 했고 壁에다 鷄虎의 그림을 붙혀 災殃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朝廷에서는 臣下들 中에 70세 以上에게 쌀, 고기, 소금 등을 주며 신하로서 80세 一般人으로 90세 以上은 官職을 一等級上向하고 백세 以上은 1品階를 昇進시켜 政治에 관여케 하였으며 또한 三災가 드는 사람은 三頭鷹畫를 문설주에 붙이고 설날 첫소리를 듣는 것으로 1年間을 點치는데 이를 聽讖이라 하였다. 또한 1年内 내 빗을 때 빠진머리를 모아 설날 저녁에 태워 병을 물리치는 風習도 있었고 僧侶들이 북을 치면서 마을로 다니는데 떡 한 개로 世俗의 떡 2개와 바꾸는데 이를 法鼓라 하여 이 떡을 어린이에게 먹이면 天然痘를 豫防한다는 뜻도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놀이로는 널뛰기 연날리기 율놀이 복조리사는 풍습 등으로 多樣하였으며 地方文化行事로 廣州에서는 日月에 祭祀하고 濟州島에서는 山川에 祠堂을 세워 보름까지 祭祀를 드리는데 神靈의 깃발을 들고 雜鬼神을 쫓는다는 行事에는 사람들이 다투어 돈과 재물을 던져 굿을 請하는데 이를 花盤이라 하였다.

以外에도 1年間 月例行事가 그치지를 않았으니 1월은 설날 立春 十二支日 2월은 中和節, 驚蟄, 清明, 寒食, 3월중 3日 穀雨 4월 初八日 5월 端午, 太宗兩降日(5.10) 6월 流頭三伏 7월 七夕 百中節(7.15) 8월 秋夕 9월 重陽節 10월 午日 11월 冬至 12월 臘日(扶餘의 迎鼓祭) 등으로 民俗이 傳해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民俗이 西歐文明과 科學의 發達로 迷信的인 要素가 있는 것은 急速히 衰退하여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나 우리의 固有한 風習을 陳腐한 옛것이라고 모두 排斥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디까지나 우리민족의 主人意識을 잃지 말아야겠다.

이번 설날은 1894年(高宗31) 日本이 淸日戰爭을 일으키고 趙義淵 等 親日派을 움직여 大院君을 攝政토록 하고 閔氏勢力을 追放한 後에 金弘集을 首班으로 하는 內閣을 組織케 하여 7月 27日에는 軍國機務處를 設置 官制, 稅制 等 內政의 改革을 試圖하였으나 失敗이를 廢止하고 大院君을 淸나라와 內通했다는 嫌疑를 씌워 逐出한다음 박영호 서광범



등을 歸國入閣시켜 洪範 14條를 制定 內政을 干涉하였던 甲午改革 다음해에 親露世力을 除去하기 爲해 日本公使 미우라(三浦梧樓)가 大院君을 再推載하여 閔妃를 殺害한 乙未事變이던 1895年 8月 第3次 金弘集 內閣을 發足시켜 同年 11月 17日을 開國 505年 1月 1日로 하고 陽曆을 쓰기로 한 以來 93年만에 正式으로 復活된 우리의 설이라 하겠다. 或者는 舊正의 概念을 肯定하면서 설을 지키자면 陰曆을 使用하여야 固有의 설이지 陽曆을 使用하면서 陰曆之元日을 지키자는 것은 二律背反이라 不當하다고 評하기도 하는가하면 國慶日에 關한 法律이나 各種記念日等에 關한 規定에도 明文化되어 있지않은 事項은 政治性이 內在된 政府善心이라하고 하는가 하면 全世界가 陽曆을 使用하는데 經濟大國으로 浮上하는 韓國이 陰曆을 基準 설날로 定하는 것은 政府樹立後 禁하였든 二重過歲가 아니냐는 등 陽曆 1月1日은 설이 아니고 어떻게 呼稱 할 것이냐는 論談이다.

여기서 우리는 曆法에 對하여 簡單히 考察하여 보자.

曆은 東西洋을 莫論하고 古代부터 始作되며 中國에서는 百姓에게 農事의 播種과 耕作의 時期를 가르쳐 주었다고 傳한다.

이것은 天文氣象의 運行과 變化를 科學的으로 觀測 正確한 日時를 算出(朔日 立春, 冬至, 日食, 月食)하여 冊曆을 만들어서 農耕에 必要한 年間의 適時를 提示하는 重要한 意義로 생긴 것이라고 한다. 季節에 關해서는 月을 本位로 해서 算出할 수 없으므로 太陽의

運行에서 考案한 것이 24節로 夏至, 冬至의 二至. 春分 秋分の 二分. 立春 立夏 立秋 立冬等の 四立을 中心으로 24季節의 이름이 華北의 氣候에 依據하여 붙혀진 이름이기에 우리나라에는 꼭 알맞지는 않으나 假令 立春이라면 現在の 陽曆으로는 2月 4日(或은 5日)로 固定되어 있다.

西洋에서도 여러나라에서 曆이 만들어졌으나 대개는 太陰曆이었는데 오직 이집트만이 太陽曆이었다고 한다.

이는 나일江이 初夏頃 每年 定한드시 洪水를 일으키므로 洪水를 미리 알기위하여 太陽曆이 만들어진것이라고 한다.

現在の 使用하고 있는 太陽曆은 이 이집트曆의 흐름을 본뜬 것이라 하며……. 中國의 皇帝天子는 하늘의 뜻을 天文現象으로 하늘의 理法을 主唱하는 것이 曆法으로서 曆을 公布하는 것이 天王의 大權에 속하고 其政府의 曆을 쓰는 것이 其支配下에 따르는 것이라고 매우 重視하였다고 한다.

王朝가 바뀔 때마다 새 曆法이 制定되었고 太陰太陽曆(太陰曆에 24節氣를 가미한 것)의 骨格은 멀리 殷의 時代에 올라가지만 BC104年 前漢의 武帝때 太陰曆이 採用되면서부터 中華民國이 成立될 때까지 實로 10余回의 改曆이 행하였다고 한다.

中國曆의 發達過程을 보면 前漢때에는 殷曆, 太初曆, 三統曆, 後漢때에는 四分曆乾, 象曆, 魏代에는 景初曆晉 代에는 三紀甲 子元曆宋代에는 元 曆 齊代에는 大明曆 唐代에는 戊寅元曆 麟德曆 大衍曆 五紀曆 宣明曆 元代에는 援時曆 明代에는 大統曆 崇禎曆(西洋曆採用) 清代에는 時憲曆(西洋曆採用)으로 王朝마다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前漢 武帝의 太初元年(BC104年)에 施行된 太初曆의 組職은 1年을 365日 4/1로 하고 1月을 29日 940분의 499로하며 19年에 7個의 閏月을 두었고 76年에 其周期를 完成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며 世界的으로 보아 曆法의 起源은 中國과 바빌로니아에 있다고 한다.

西洋에서는 이집트의 太陽曆以外에 바빌로니아 유다야 그리스 아라비아등에서 太陰曆이 發達되었고 印度에서도 같았다고 한다.

西洋曆에서 재미있는 것은 로마에서는

BC750年頃 로물루스왕의 시대에는 1年을 304日로 했는지의 理由는 잘 모르지만 嚴寒期의 61日은 겨울의 蟄居期로서 除外하여 세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로마왕은 BC701年 이 曆法을 改正하여 야누알리우스(문호신, 야누스의 달)와 웨이불알리스(역병신, 웨이불리스의달)와를 연말에 추가해서 다시 30일의 달은 29일로 고치어서 1년의 일수가 355일의 역을 만들었다. 역병신의 달이란 이달에 達할 즈음에 감기 기타 역병이 일어나기 쉽다고 그러하였는지는 모르나 29일로 한것은 달의 주기에 맞추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직 이 일수는 일대양보다 10일 남짓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調節하기 위해서 1年 間隔으로 마케토니아스(惠月), 20일 또는 21일이라 부르는 閏月을 2月 23日과 24日 사이에 넣었다고 한다.

율리우스 카이잘은 이집트 遠征結果 이집트의 훌륭한 太陽曆을 알았다. 이집트는 1年을 365日로 하고 이것을 30일씩의 달 12와 5일의 나머지 날로 나누고 있었다. 그것으로 알렉산드리아의 曆學者 소시케네스의 助力을 얻어 로마曆을 改正하였다 한다.

이것에는 아니알리우스를 正月에 놓고 以下 웨이불알리우스에 이어 各 달의 일수는 各各 現行曆과 같이 30, 31일과 같이하여 4年마다 閏日을 1日 웨이불알리우스의 23일과 24日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쾨디일리스의 달은 自己의 生月이라는 理由로 율리우스로 改名하여 이 曆法을 율리우스曆이라 하였다. 이 율리우스력의 1年은 365, 25일로 이 曆法과 太陽年의 實際와의 差는 0.0078로 400年間에 約 3日의 誤差로 되어 曆과 秀節과 그만큼 엇갈린다고 한다. 10세기에 이차가 쌓이어 12가 되었으므로 로마法王 글레고리 13世(帝位 1572~1585)는 1582年 10月 5日부터 10月 14日에 이르는 10日間을 曆에서 덜어 10月 4日의 翌日을 15日로 함과 同時에 閏日을 3回 덜기로 했다.

西曆年號가 4로 나누어지고 또 3으로 나누어질 경우 其答이 4로 나누어지지 않은 해는 平年으로 한다는 現代의 曆法은 이때 된것으로 글레고리오曆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採用하고 있는것이다. 西洋의 太陽曆



에서 지금의 月名은 大體로 율리우스력에 의하고 있지만 西로마帝國의 율리우스왕이 7월은 自己의 이름을 따서 켈달리스를 율리우스로 고치게 하였고 계속해서 로물루스 어거스트왕은 이집트를 8월에 征服한 것을 記念하기 위하여 쉐틸리스를 어거스트로 고치게 했으며 더욱 2月만을 28일로 한 理由는 아무데도 없지만 같은 율리우스왕은 疫病神인 2月에서 1을 깎아 自己가 태어난 7월에 1일을 더하였고 어거스트도 其先例에 따라 2月에서 1일을 가져다 8월을 31로 고치어 2月은 이렇게 차츰차츰 빼았기어 28일로 되어 現代까지 曆法上의 愧話 가 된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新羅文武王 14年(674) 正月에 大奈麻德福이 入唐하여 曆術을 배워 만들었는데 이것을 麟德曆이라 하였다. 高麗太祖 때에는 唐의 宣明曆을 썼고 忠宣왕 때에 고치어 授時曆을 썼으며 恭珉王 19年(1370) 使臣 成淮得이 明의 大統曆을 頒賜 하였다.

朝鮮朝 孝宗4年(1653)에 비로서 時憲曆이 행해졌고 숙종 34年(1708)에 時憲曆 五星法(木 火 土 金 水)을 썼으며 英祖元年(1725)에 고치어 新修時憲七政法을 썼다고 한다.

정조6年(1782) 書雲觀에 命하여 千歲曆을 篇纂하였고 高宗31年(1894) 겨울 11월에 泰西太陽曆을 썼고 時憲曆을 參考하였으며 光武元年(1897) 1월에 時憲曆을 改正하여 詔勅으로 明詩曆을 中外에 領布 하였으며 同 8年에 千歲曆을 改正하여 萬歲曆이라해서 中外에 刊布했다 한다.

中國唐代의 長慶2年(822)에 徐昂이 만든

太陰曆인 宣明曆이 823년부터 71年間 쓰여졌는데 1年の 길이를 365, 2446일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使用하였을 것으로 生覺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曆法의 利用은 東西洋을 莫論하고 王朝마다 改用하였음을 살필진데 우리가 民族의 正氣와 傳統을 되살리는 政府의 措置는 適時에 當然하다고 하겠으나 前記에서 論旨하였드시 曲解의 素地를 마련해주는 說得力은 不足한 것 같다. 우리는 西歐文明의 傳來로 X-Mas를 쉬고 있다. 이는 基督教人들의 行事로 예수님에 對한 誕日을 記念하기 위해서 이다. 聖書는 生日祝賀에 對해 단지 두번 언급하고 있다. 創世紀 40:20-22에는 제삼일은 바로 의생 일이라 바로가... 잔치할 때에..... 바로의 술말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러라. 또 마태 14:6-10에는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宴席 가운데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데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니라.....라고 하였을 뿐 예수님의 탄일에 대하여는 一句의 言及이 없으며 예수께서도 못박히시기 전날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며 나를 記念하라 하셨지(누가복음:22:) 自身의 誕日을 기념하라 하시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風習(或은 傳統)에 따라 1500年間이나 (세계적으로) X-Mas는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로마인들이 좋아했던 農神祭의 祝祭가 12月17일에 始作되어 無敵太陽의 誕生日인 12月 25일에 끝났다.

제4世紀 4/2 分期中 언젠가 로마 教會에서 12月 25일이 義로운 太陽의 誕生日을 祝賀하는데 멋진 날이 될 것이라 判斷하여 X-Mas가 생겨난 것이라고 US카톨릭誌는 밝히고 있다.

이 農神祭祝賀行事는 冬至(WIHTER, SOLSTICE)에 열렸는데 솔스티스의 英語의 單語는 두개의 라틴어 단어 즉 솔(태양신의 이름)과 시스테레(멈추다)에서 由來했다 한다.

冬至는 日照時間이 점점 짧아지는 일이 멈추고 反對로 점점 더 길어지기 始作하는 때이며 古代 율리우스曆에 따르면 冬至날이 12月 25日이었다고 한다.

또한 로마 아우렐리아누스(274年)는 同年 12月 25日에 太陽神(미트라)을 帝國의 으뜸가는 守護神으로 宣布했다고 신카톨릭 백과사전은 알려준다. 때문에 X-Mas의 根源은 人間이며 聖書의 一部가 아님을 알 수 있듯이 教職者들은 農神祭의 世界를 教會안으로 들여 왔으며 12月 25日은 太陽神 미트라와 탄생일로 看做 되었다고 브리테니카 百科事典은 指摘하고 있다. 이와같은 信仰人들도 風

習에 따라 傳統을 行하는 마당에 5千年 韓民族의 傳統인 설날을 쉽사리 버릴 수 있겠는지 政府에서는 現文公部를 文化部와 公報處로 分類한다는 좋은 消息이다.

大宇그룹에서도 企劃調整實傘下에 企劃文化部를 新說 社內 精神文化運動을 主導한다는 반가운 消息이다.

앞으로는 설날을 契機로 民族의 正氣와 슬기를 結集하여 各種 藝術祭 美術展, 詩畫展, 심포지움 同好人씨클, 教育 캠페인 등 多樣한 行事가 民俗과 함께 展開되어 和合의 場이 될 수 있도록 政府는 配慮해야 하고 모든 國民이 힘을 써야 할 때이다.

靑草湖 매립

—정화나,

■ 매립반대

靑草湖를 살리자

동문성/재향군인회장

崔正植의원에 의해 提示된 것으로 밝혀진 「靑草湖 매립후 신시가지건설구상안」이란, 오염된 靑草湖를 매립, 그 부지분양금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國際港규모의 新港을 건설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다.

崔의원은 구체적으로 東明港방파제에서 1천1백60m 떨어진 鳥島까지를 연결하는 등 방파제 2천2백m를 축조하며 암벽·물양장도 만들어 국제규모의 新港을 건설하고 청초호를 매립해 인구 15만명이 살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50여만평의 청초호를 매립, 평당 1백만원씩 팔면 신항건설매립비를 제하고도 1천5백20억원이 속초시민의 이익금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宅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市民들에 이익이 된다는 崔의원 의 주장에는 언뜻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현재 속초시의 실정으로서 靑草湖를 매립해야 할만큼 심각한 宅地難을 겪지도 않고 있으며 市民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조건이면 아무 것이나 마구잡이식으로 일을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나 마구잡이식으로 일을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崔의원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崔의원은 지구당내부에서 당원들에 의해 「靑草湖매립후 신시가지 구상안」이 제기되었다고 볼수도 있는데 이경우 이 「案」이 좋다고 생각되어 그것을 접수했다라도 우선 먼저 당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 案을 심의하고 그 내용이 다듬어진 다음에는 市民 公聽會를 열어 이 案에 대한 진지한 의견개진과 찬·반토론을 통해 市民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에 이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崔의원은 東草 市民들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좋을 이 같은 「靑草湖매립안」에 대해 정작 그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할 東草 市民들은 내용조차 전혀 모르고 신문보도를 통해 그 실상을 알게됐다는 것은 그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

찬반誌上 논의

매립이나—

주지하다시피 靑草湖는 국립공원 설악산과 인접해 있고, 영랑호와 쌍벽을 이루는 관광 자원이다. 녹음이 우거진 설악산과 백설에 파묻힌 설악의 그림자가 靑草湖에 드리운 자태를 지켜본 사람은 그 누구나 靑草湖 매립의 허구성을 증명 할 것이다.

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의 靑草湖는 생활하수와 각종 오수로 그 오염도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崔의원께서는 議政活動을 통해 靑草湖를 되살리기 위한 정화예산이나 靑草湖가 湖水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다할수 있는 제반조치들을 중앙정치무대를 통해 강구함이 마땅할진대 이런문제들은 접어둔채 고려의 가치조차 의심이 되는 「靑草湖매립안」을 불쑥 들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남들은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없는 湖水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아득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自然湖水를 매립하자는 생각은 정말 빗나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지하다 시피 靑草湖는 국립공원 설악산과 바로 인접해 있고 永郎湖와 쌍벽을 이루는 속초시 소재의 汽水湖로서 영동지방의 名物이요 관광자원이다. 녹음이 우거진 雪嶽山과 白雪에 파묻힌 설악의 그림자가 靑草湖에 드리운 자태를 지켜본 사람은 그 누구나 청초호매립발상의 허구성을 증명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靑草湖는 雪嶽圈域의 관광지 일환으로 신속히 개발되고 더욱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속초시민들은 다가오는 2천년대를 바라보며 앞으로 들어서게 될 東西高速電鐵의 유치와 可視圈에 들어온 金剛山과의 觀光交通등에 대비, 靑草湖가 보다 종합관광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바라건대 政府도 東草圈이 산업항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北方政策에 따른 중요한 몫을 다하게 하는 한편 靑草湖는 國民觀光地로서 편의시설과 충실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종합적 개발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과감한 투자로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8만 속초시민들은 한결같이 희망하고 있다.

靑草湖 매립

■ 매립찬성

束草에 신항을 건설하자

전상기/강원산업사

지역사회의 개발이라는 문제에는 輿와 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은 그 누구의 구상이든간에 면밀히 검토되고 수렴되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崔正植 민주당의원이 밝힌 新港, 신시가지 건설계획에 대해서 면밀한 타당성검토 조차 하지 않고 그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청초호 정화계획만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관계당국자들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속초는 지금 새롭게 비약적으로 발전해나갈 계기를 맞고 있다. 즉 민주화시대, 북방시대를 맞아 속초는 북양어업의 전진기지, 북방교역의 전초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곳이다. 이에 가장 시급한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 만큼 현대적 시설을 갖춘 국제적 규모의 신항의 건설작업이다. 바로 이러한 현대적 신항의 건설이 우리 속초시 발전의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 현대적 속초新港을 건설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어항으로서의 가치도 호수로서의 가치도 상실해버린 청초호를 매립하여 여기서 확보되는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해운항만청과 속초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청초호 정화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천1백억원 이상이다.

이 사업에 정부당국이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89년도에는 삭제되었고 90년도에는 겨우 3억원 정도만 계상해 놓고 있는 것만 보아도 당국자들이 말하는 청초호 정화계획이 얼마나 허위에 찬 공약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뒤에는 청초호에서 보트를 타고 청어

찬반誌上 논의

최근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청초호 매립 논의에 대해 本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방안은
오히려 간단하다.
극심하게 오염된
청초호를
매립하여,
확보되는 부지를
매각된 재원으로
동명항에 신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어항으로도, 관광자원으
로도
그 가치를 모두 상실해
버린 청초호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이다.

를 잡겠다는 시당국자의 말은 너무도 환상적인 구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문제의 해결방법은 오히려 간단하다. 극심하게 오염된 청초호를 매립하여 확보되는 부지를 매각, 그 재원으로 東明港에서 鳥島, 鳥島에서 靑湖洞을 연결하는 방파제를 건설하여 대규모 무역선과 카페리호등이 접안할 수 있는 현대적 新港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속초항은 부산항과 원산항의 중간에 위치한 새로운 상업항구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정치단체의 당리나 당략이 어떻게 옳은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계획이 진정으로 속초시민을 위하고 속초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가를 잘 판단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 객관적으로 속초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가 속초시나 속초시변영회 또는 속초시상공회의소에 의해 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통해 진정으로 속초의 이익을 생각하고 속초를 사랑하는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어 찬·반토론을 통해 이 문제가 다수의 속초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秀色嶒嶸太古顏，四時常雪立雲間。
天下名山云幾處，此山覽後更無山。

己巳年晚春節

廬嶺山詩題

芝峰



志

李昌燮

親民如祥

己巳年晚春

芝峰



志

束草文藝



불꽃놀이

— 설악제 전야에 —

朴明子



하늘로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어떤 願의 모습인가

가슴 속 소용돌이 끓고 끓어서
드디어 하늘 꼭두로 머리 풀고 치솟는
사랑의 말. 말.

참고 참아 더는 참을 수 없어
불수록 솟구쳐 오르는 뜨거운 가슴

차마 말로는 못다한 정이 영글고 영글어
허공 중에 깨어지는 아 아 구슬 발

무량 시공 중에 흩어지는
꽃잎 꽃잎

눈물 머금은 뜨거운 꽃잎이다.

쥐 (21)

김영준 / 詩人



아름답게 살 수 없을까
충치처럼 더 깊이 씹어들며
잇몸 드러난 하수구로 흘러들며
혈관 끝으로 꽃들을 불러내며
우리 가진 것 모두
깨부수며 살 수 없을까

새여 나무여
빈 하늘 건너 하얗게 무너지는 하늘빛아
빠다귀처럼 우리가 표백되어 갈수록
빠다귀처럼 우리가 표백되어 갈수록
떠나는 모든 이와 더불어
아름답게 살 수 없을까

봄의 운명

張承鎭 / 詩人



잔인한 바람이 불었다.
명든 풀잎들 사이로
바다의 험한 얼굴 보였다
꽃잎이 쪼개져 날아 가고
모든 뿌리들 기둥들이
파랗게 신음했다.
끈질기게 내미는 풀꽃들의 주먹
슬리고 찢겨 결국
바다로 삼켜졌다.
무조건 투항한 땅 위로
눈 덮힌 산의 안개가 걸어 내려왔다.
한때는 안개의 세상인 듯 했다.
그러나 어느날 더운 바람 불고
바다는 쓰러진 기둥들과
뾰힌 뿌리들로 무성하게 출렁였다.
그렇게 여름날은 왔다.
웃자라기 시작한 기억없는 풀들과.

콜 니드라이

지 영 희

죄짓는 인간의 여섯날들에
속죄하는 신의날 하루
헤브라이언들이 콜 니드라이를 부르며
그러하였듯
활로 제마디마디 깎아야만
온 몸 울려지는
첼로의 선율에
죄를 지운다.
거짓 속죄한 죄까지
하루내내 울리어 죄를 지운다.
처음본 빛속에 녹아흐르는 원죄와
씩지않고 허영게 영키는 비닐같은 날들
인간의 껍질속에 갇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별과 나무를 위해
하늘이 내내우는
신의 날 하루
헤브라이언들이 그러했듯
깎여진 여섯날을 울려
콜 니드라이를 부른다.

생선장수

이덕수/교동국교 교사

비가 뿌리고 있었다.
중앙시장 뽁뽁히 늘어 놓은 상자밑으로
빗물이 흐른다.

언손 가락 비비다
몇 번인가
몸뚱이 속 동전 몇 개
지폐 몇장 더듬으며,

자식놈
교납금 독촉으로
맥없이 쫓겨오던 날
유난히 노랗던 하늘을 떠올린다.

뱃전을 기어오르다 멍든
정갱이가 아려오고
쫄쫄대는 고무신
늘어붙은 속옷을 떼려 어깨를 들썩이며

퍼런
퍼-런 목줄 돌우어 소리친다.
“아마이, 쾌기 삼세”.

죽개 권 손 가늘게 떨며
오가는 이들의 표정을 훑치며

생선장수
내 홀어머니는

저무는 날
그득찬 상자쪽만

쿵
쿵
가슴치듯 내려찍고 있었다.

독자투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

장운식/속초시 동명동

그렇게
찬란하고 희열에 찾던
지나간 날들을
지루하지 않게 바삐도 흐르더니.
이렇게
가혹하고 비정한 현실은
외롭고 억센 저항속에 비틀거리며
그나마
오늘살다 오늘 죽어도
초로 인생이라
눈물짓지 않게
아무도 모를 내일을 향해
언제나
희망찬 부푼 가슴으로
풍설의 고뇌랑 깊이 묻어라.

시 장

속초상업고등학교
3학년7반 김미자

햇빛 한자락
풀먹인 동네이귀 쌓아올린 5일장
어머니 따라 가 볼거나.

어설피게 흘러 나오는
유성기 음따라 마디마디 닿은 손뻐
동네 토박이군 타지 남정네들
불러대는 닿는곳이 즐비 하다네.

고물장수 쟁쟁거리는 소리 지나
고향이 남쪽인 친구 아버님을 뵈며.....

일찍부터 발동기를 돌리며
산까치 첫울음 몰고 오셨으리라.
쌈니다. 싸요!
푸름한 단감을 내보이며

아!
앞마당 탕자나무 울타리에
곱게 말려 동지 선달 긴밤에
한개 두개.....

이곳은 아름답다
구수한 마음이 있어 흐뭇하다.

벼가락 사이사이 비쳐진 노을에
돌아눕는 교동의 하늘은
빨갭게 달아 오른다.
다음 장날에도 가련다.

시 장

속초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영선

굽어진 허리춤에 동여 맨
내 삶의 주머니가 무겁다

뽕오얀 새벽
팔딱거리는 생선을
수레에 가득히 싣고
달려가는 어수선향 터전

한 푼을 더 받고
한 푼을 더 깎기를 위하여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한숨 섞인 소리들

오늘은 얼마나 별었나
콩나물을 사고 돌아서는
이웃집 새댁을 보내고
슬며시 허름한 내 돈주머니에
손을 넣어 본다

으앙
그 사이를 못참아
울음을 터뜨리는 아가의 얼굴에도
우리네 사람들의 얽히고 섞힌
실타래 같은 이야기가 배어 있고
젖을 물리며 잠시 눈을 붙이는
생선 아줌마의 가슴속에는
무엔지 서러움이 되어 번져 가는
저녁 노을이 내려 선다

나 무

속 초 상 고
1학년 김주희

부서치는 햇살 아래에서
하늘을 향하여
꿈을 키우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 있으나
채울 가슴이 없어
서러움이 넘쳐도 흐느낄 수 없습니다.

이따금 새들이 날아와 지저귌에
아쉬운 여운 남긴 그 자리에
찬비가 내리고,

빛으로 안락했던 자리에
거센 바람이 불어
가지가 꺾이고 휘어지는 고통이 있을 지라도,

오늘도 고독을 삼키며
외로운 꿈을 심고
그렇게 셧습니다.

나 무

설악여자중학교
1학년 박지현

아름답고 눈부신
예쁜
웃 입고

푸른 하늘 아래
자랑스런
두 팔 벌린

우리의 알뜰한
살림꾼

악의 세상도
모른채
천진 난만케
곧은 정기
곧은 기상을
한껏 펼치고

아름답고 곧게
쭉~쭉~
자라

우리의
어린 친구

그 아름답고
고은 마음을
은 세상에 떨칠

우리의
푸른 친구

시 장

속초여자중학교
3학년 김동연

“에휴, 오늘도…… 잠이나 자야겠다. 어김없이 나를 실망에 빠뜨리는 토요일 이젠 토요일이 싫다. 그러다가는 불현듯 무엇이 생각났는지, ‘뭐 먹을 것이 없을까?’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간다. 냉장고에 머리를 들여밀고 ‘혹시나 여기에 아님 여기에’ 하며 구석구석 비닐봉지에 싸인 것을 하나하나 다 끌러보고 뒤져보아도 역시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래 아무래도 잠이나 자야겠군.’ 언제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는 날 무언가 애써 찾다가는 결국은 잠이나 자버리는 토요일, 난 토요일 수업을 일찍 끝마치고 즐겁게 집에 오면 나를 따뜻하게 반겨 맞아주는 그런 엄마를 원한다. 갑작스런 비에 우산을 가져다 주느니 보다는 비에 흠뻑 젖어 벌벌 떨고 있는 내게 수건을 내주고 감촉 좋은 마른 옷을 꺼내주시는 그런 엄마, 눈오는 겨울 퐁퐁 언 발을 녹여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엄마는 말이다. 그래 내가 국민학교 3학년때까지는 그랬었다. 그러나 지금 엄마는 집에 없다. 나를 따뜻이 맞아

주실수도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은 조그만 가게를 내셨지만 작년까지도 쓰리도록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시장바닥에 앉아 배추장사를 하셨다. 지금 이만한 가게에서 좁지만 조금 편히 일할 수 있으신 것도, 우리가 맘껏 군것질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지난날 엄마의 쓰라린 노고덕택일런지도 모른다.

난 이렇게 시골벽적인 시장에 사는 것이 싫었다. 일요일 오후면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고 집앞에서 즐넌기나 자전거도 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속초시 사람을 다 모아놓은 듯 시골벽적 봄비는 시장에서 어찌 이런것들이 가능하랴?

언제나 시장의 시끄러운 생활에 대한 불만만 가지고 있던 내게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은 작년 겨울이었다. 유난히도 차가운 바람에 몸을 잔뜩 움추리고 떨어지지 않는 발을 무의식중에 바삐 걸으며 시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우리반 도덕부장 경옥이가 서 있었다. 부르려고 했으나 놀라운 사실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칙칙한 색 몸뚱에 싸구려 털잠바를 잔뜩 끼입고 생선장사를 하고 계신 아주머니께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옥이는 언제나 맑고 명랑했으며 공부도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아주머니들은 잔뜩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팔아달라고 하셨다. 비린내나는 손을 싸늘한 땅바닥에 썩썩 문질러 닦으시고는 활기차게 웃으시며 농담을 건내셨다. 때로는 사람들과 천하고 심한 상소리를 퍼부우며 싸우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경쟁인 것을 나는 몰랐다. 아늑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부잣집의 땃땃한 보일러 공기보다는 이 훈훈하고 구수한 삶의 뜨거운 생기가 한겨울을 녹이기엔 삶의 뜨거운 생기가 한겨울을 녹이기엔 더 충분했다.

난 엄마에게 정신없이 달려갔다. 죄송함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막 도착했을 때 엄마는 배추값이 비싸다고 가려는 손님을 잡고 계셨다. 엄마를 차마 부를 수 없었다.

‘엄마, 엄마…….’

속으로 수없이 엄마를 되뇌어 부르고 있을 때 엄마는 나를 보고 추운데 빨리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다.

이젠 나의 일요일 아침은 활기차다. 시장의 생기있고 시끌시끌하게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들은 일요일 아침

내게 활기와 생명을 불어 넣어 준다. 사람들의 분주히 일하는 모습은 아침 등교길 나에게 새희망을 부풀게 해 준다.

온통 전깃줄이 쳐진, 거미

줄 같이 삭막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은 가슴 아프다. 문화시설이 좀 뒤떨어지더라도 자연과 호흡하며 인정을 느끼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시 장

속초중학교
2학년 김인우

언젠가 새벽 일찍 시장에 나온 적이 있었다. 거기에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 엿보이는 것 같았다.

생선을 파시는 아주머니도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에게서 나는 부지런함과 삶의 애착심을 느꼈다. 그 짝맞 나는 생선도 그 아주머니의 손 속에서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으리라 믿는다. 묵직한 손이기는 하지만 그 손에서는 아마도 내일의 희망을 위한 힘이 샘 솟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그 아주머니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걷다가 한 할머니를 보았다. 허리가 굽어지신 아주 초라한 모습이셨다. 그 할머니께서는 야채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다. 꽤 늙어 보이시는 그 할머니의 상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셨다.

‘나에게도 저런 할머니가 저 멀고도 먼 북쪽에 살아가게 실까’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도는 것이었다.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6.25동란 때 남쪽으로 못 나오셨기 때문이었다.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을 참고 나는 또 걸었다. 걷다 보니 환해 지기 시작했다.이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모여 들기 시작했다. 장보기 위해 오시는 아주머니 가게 문을 열기 위해 부랴 부랴 나오신 아저씨, 모두가 자기 할 일을 착실하게 해 나가시는 분들이시다.

시장은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곳이다.

이번엔 오후에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갔었다.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과일과 생선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샀었다. 그 물건들을 사면서 나는 또 하나의 시장의 고마움을 느꼈다. 만약 시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 생선은 바다에서 과일은 과수원에 가서 가져와야 할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장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란다.” 그 말씀을 들어서인지 시장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된다. 시장의 고마움을 뒤늦게 알아서인지 나는 자꾸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고 싶어졌다.

생선을 파시는 그 아주머니의 묵직한 손과 야채를 파시는 할머니 그리고 분주하게 모여든 많은 사람들, 그 물건값에 대한 흥정소리 모두 또 한번 듣고 보고 싶어진다. 삶의 활력소 같은 이 시장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시장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 일 것이다. 요근래 느껴 보지 못했던 이 즐거움, 시장이란 곳에서 이러한 기쁨을 느낄 줄이야 나는 몰랐다. 모처럼 느낀 이 즐거움과 삶의 애착심을 나는 나의 가슴 속에 꼭 남겨 두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즐거움 일 것이다.

나 무

속초상업고등학교
1학년 김미령

내방 작은 창가론 금빛 햇살이, 울타리 너머론 소나무의 잔물결이, 오솔길 옆에 조로롱 심어진 코스모스의 신선한 울동, 작은 나무위에 앉아 그 고운 목소리로 아침을 알리는 작은 새들의 합창, 창문만 열면 언제나 푸른 신선감을 줄 수 있는 소나무의 그 은은하고 향기롭게 피어나는 유연한 자세에서 문득 생각나는 일이다. 중학교 3학년 고입시라는 무거운 압박감에서 나의 정신과 육체는 늘 억눌려 생활했다. 설악산에 걸터누운 안개가 사라지기에 너무나도 이른 시간, 자명종의 하품소리에 부시시 눈을 떠 엄마의 정성은 뒤로 미루고 많은 인파속에서 가까스로 끼어 학교로 향하는 것이 하루일과의 시작이었다. 교실문을 열면 친구들의 깔깔거리는 웃음보다는 누렇게 뜬 친구들의 얼굴이 시야에 딱 들어차 늘 게으르게 생활하는 나의 마음은 더 조급해왔고 학습과제를 엄청나게 내시는 학과 선생님들이 알뜰게만 느껴졌다. 친구들의 사이에서도 예전처럼 청명한 웃음과 밝은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무엇인

가 쫓기는 것 같고 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서 생기는 경쟁심에서 인지 교실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의 공부하라는 말이 듣기 싫어 미칠것만 같았고 책상앞에 앉으면 탄 잡념이 들어 도저히 스스로 내자신을 이끌어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생활을 보내는 사이, 여름방학은 서서히 시작되었고 나의 무질서한 생활은 내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내자신을 떨쳐버리고 싶었고 단 1분이라도 이시간 속에서 벗어나 맘껏 자유란 단어를 들먹이고 싶었다. 여름방학은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흘러갔다. 개학이 채 3일도 안남았을 때 내마음은 더욱 초조하고 불안했다. 여름방학동안 도서관에서 열심히 온정열을 책장에 담았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하고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았다. 굳은 마음으로 책상앞에 앉았으나 이내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막힌 가슴을 뚫어버리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 커다란 소나무의 웅장함을 보면서 조금 가슴이 트이는

가 싶더니 이내 초조해졌다. 조금까지만 해도 맑던 하늘이 금새 먹구름으로 뒤덮여 이 세상을 집어 먹을 것만 같은 기세였다. 10분쯤 지났을까 이내 세상은 비로 얼룩져 뿌옇게 흐려졌다. 조그마한 나무들은 뿌리채 뽑히고 늘 나의 위안이 되어왔던 소나무도 이 세찬 비에는 견딜수 없는지 아픔을 토해내고 있었다.

“조금만 참아다오. 조금만…….”

내눈에는 이슬이 맺히며 입에서는 하느님 소리가 절로 흘러나왔다. 얼마쯤 지났을까, 그렇게 힘센 위력으로 이 세상의 파스함에 지쳐버리고 하늘에는 색동저고리 빛깔을 한 고운 무지개가 방긋 웃고 있었다. 울타리 주위로 숨쉬던 파아란 생명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비로 인하여 다친 가지들을 치료하듯 소나무는 잔 바람에 고통을 씻겨버리고 예전과 다름없이 은은하고 향기로운 내음을 풍기고 있었다. 신선한 내음으로 내게 손짓하는 소나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다. 지금껏 내 갈길을 비판적으로만 생각하고 회피하려 했던 내 행동과 이 귀중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했던 일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 인내라는 열매를 굳은 뿌리에 담고 언제나 청명함을 자아내는 소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좀더 밝고 적극적으로 내삶을 밝혀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금빛햇살이 석양에 비치 자리를 찾아 날아가 버렸다. 의 교훈어린 밀어를 들으면
 어 부서질려고 한다. 오후내 조용한 가운데 소나무와 나 서 햇님은 그 빛을 잃어가
 내 소나무에 등지를 틀고 만이 얼굴을 맞대고 있다. 고 어둠만이 밀려온다.
 노래하던 새들도 따스한 잠 소리없이 전해오는 소나무

한장의 귀한 옛사진을 찾습니다.

本 文化院에서는 市誌 편찬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市誌 편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문화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의 종류

- 문헌자료 : 향토사, 지명, 인물등에 관한 기록
- 사진자료 : 속초의 옛풍물, 인물 등을 찍은 사진

2. 수집기간

~89년 12월 30일까지

※ 사용한 자료는 되돌려 드립니다.

속 초 문 화 원

束草文化院 임원



院 長 池 一 權

- 대청 정화공사 대표
- 前 한국일보 기자
- 前 「속초문화」 편집주간
- 속초시 중앙동 469-15

부원장 崔 龍 文

- 속초고등학교 총 동창회장
- 前 서울신문기자
- 「4년제 대학」 유치추진위원장
- 속초시 동명동 250-5번지

이 사 李 泰 亨

- 동우전문대 교수
- 前 속초중학교 교감
- 노인학교 강사
- 속초시 동명동 523

이 사 金 鵬 海

- 문화인쇄사 대표
- 로타리클럽 회원
- 前 사회정화협의회 부회장
- 속초시 동명동 4/2

이 사 金 喆 燮

- 민족통일 속초시 협의회 운영위원
- 前 JC회장
- 前 대청산악회장
- 속초시 중앙동 468-144

이 사 李 小 石

- 요식업 조합장
- 前 대한생명보험 속초지사장
- 서예가
- 속초시 청학동 635-30

이 사 朴 明 子

- 교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평통 자문위원
- 前 새세대육영회 속초시대표
- 속초시 교동 780-118

이 사 張 皓 奎

- 연극협회 속초지부장
- 예총 속초지부 사무국장
- 조광 상운 대표
- 속초시 중앙동 11동 2반

이 사 金 基 明

- 「프로스펙스」대리점 경영
- JC 회원
- 속초고등학교 총동창회 이사
- 속초시 동명동 15/4

감 사 李 光 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종합버스터미널 관리소장
- 속초시 금호동성진주택 9동 306

감 사 崔 敬 順

- 화신상회 대표
- 라이온스클럽 총무
- 속초시 중앙동 496-55

束草文化院 회원명단

고 문

성 명	직 위	주 소	전화번호
정종훈	前文化院長	청학동 482-37	32-9492
김용구	前文化院長	동명동 513-52	33-3368
김종록	前文化院長	동명동 530-10	32-1557
장현영	前文化院長	중앙동 11/2	33-5013

회 원

성 명	직 위	주 소	전화번호
尹弘烈	문인협회지부장·소설가	교동16/3	33-1155
李相國	시인(설악문우회)	교동아파트 2동 508호	32-8586
李聖善	시인(물소리 시낭송회)	동명동 513-54	33-3743
崔在都	희곡작가	중앙동 12/3	33-1354
朱廣河	소설가·외향선원	동명동 427번지	32-6283
辛沅夏	전 연극협회지부장	금호동 26/3	33-4300
장규호	연극협회 지부장	중앙동 11/2	33-5013
최신영	청봉극회	금호동 8/3	33-3707
고준규	청봉극회	설악동 지구 5동	34-7533
朴長健	극단 "대 "	청학동 6/4	33-3057
김영복	미술협회지부장	금호동 16/3	33-4180
金光秀	미협고문	청학동 중앙미술학원	32-8022
張世煥	전 미협지부장	중앙동 468-65 백경사	32-1278
鄭元澈	서예가	교동 780-169 10/6	32-4909
金秀鐵	서예가	중앙동 3/5	33-2282
嚴柱天	서예가	중앙동 473-25	33-3066
池應準	설악서예학원장	교동럭키아파트 6동 506호	32-8217
金珠鎭	서예가	금호동 4/1	33-1234
金榮鳳	목공예·대백공예사	영랑동 대백공예	33-5664
崔春永	속초사진동우회·속초시청	교동 6/1	33-5515
金正日	청봉사진동우회·신우사	중앙동 475-24	32-8028
崔洛珉	청봉사진동우회	설악동 주택 83/3	34-7019
李來鉉	청봉사진동우회·상업은행	조양동 우성연립 101호	32-6564
全泰極	청봉사진동우회·대포Hits	대포동 4/3	33-4424
嚴湘彬	청봉사진동우회·속초상고	금호동 14/7	33-1919
양숙희	한국무용가·속초무용학원장	금호동 1/6	33-3913
이진우	성악가. 동우전문대 교수	노학동 동우전문대	32-6552
裴基雄	성보건축사 대표	동명동 253-6	33-5397
朴益勳	전국교장·노인학교장	교동 6/5	33-5468
林德洙	동우전문대교수	교동 767-133호	32-8032
崔琳圭	동우전문대교수	노학동 산 244 동우전문대	32-6551
李鍾旭	양양향교 총무	조양동 8/1	32-6531
朴淳牛	양양향교 장의	노학동 2/1	32-2895
金在燮	영랑약국	영랑동 137-6/3	33-2416
尹鍾九	현대약국 새마을운동속초지회장	동명동 466-58	33-2533

束草文化院 회원명단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李虎舜	전 교교장	동명동 514-12	33-3034
鄭鍾勳	전 국교장	청학동 482-37	32-9492
吳濟政	교동국민학교장	노학동 620	32-0925
尹東萬	영랑국민학교장	영랑동 163-1	32-6212
崔五圭	중앙국민학교장	영랑동 11/4	33-1608
李沅宰	동우전문대교수	노학동 244 동우전문대	32-6551
金正祐	전 기자·농업	장사동 2/4	.
池一權	전 한국일보 기자	중앙동 469-15	33-5100
董文星	전 조선일보기자	동명동 450-22 4/4	33-3721
崔龍文	전 서울신문기자(국제방역공사)	동명동 250	33-3233
金兌泳	市 정책자문위원장	조양동 923	33-3620
金亨東	상공회의소장	동명동 253-3 5/5	33-3576
李成哲	(주)새강원관광 대표	금호동 11/4	32-6943
安國俊	이북5도민회장	금호동 1/4	33-3687
徐東石	항운노조 위원장	교동 769-22	33-5300
金鵬海	문화인쇄소 대표	동명동 450-39	33-2021
강수길	관동인쇄소·양양유도회원	교동 664-76	33-2384
李源益	전 상공회의소장	중앙동 468-27	33-2462
咸泳泰	현대슈퍼	금호동 473-46	33-3456
金致龍	유일택시	금호동 16/3	33-3847
李起榮	강원전업사	동명동 450-181	33-2130
韓高本	농업, 市 정책자문위원	장사동 1/2	33-3780
高榮和	영동철물대표, 전 文化院 이사	영랑동 5/3	33-5374
鄭仁燮	우리포인트, 전 文化院 이사	금호동 479-11 1/3	33-2909
崔敬順	화신상회	중앙동 496-66 7/4	33-3668
尹有根	설악가방	중앙동 6/6	33-4882
金裕子	정화숯불갈비	대포동 산 34-1	33-4539
沈丙燮	전 속초시 사회과장	동명동 569-2	33-3186
李光春	평통위원	교동 627-50 14/4	33-3920
崔相圭	속초시 경우회장	동명동 7/1	33-3593
李建錫	지방행정동우회장	동명동 469-36	33-3987
文龍翼	전 농지개량조합장	동명동 450-300	33-3589
金普漢	공무원	조양동 1398-6	33-4042
呂錫昌	전 동장	청호동 587	33-4184
崔泓舜	전 동장	동명동 469-33	33-3671
姜龍祥	전 공무원	중앙동 5통 3반	33-3068
黃壽福	사회정화위원회장	중앙동 2/6	33-2237
李蘭植	전 동장	조양동 6동 1반	32-1210
李榮一	시민서점 대표	금호동 479-26	32-3751
全秀吉	반도패션 속초지점 대표	동명동 427번지	33-6349

東草文化院 회원명단

성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元有石	물치정유소 대표	대포동 236-12번지	32-6855
李文杓	전업사 대표	청학동 4통 2반	33-3883
金亨鎭	평화양행 대표	중앙동 476의 83	33-4441
金喆燮	전 JC 회장	중앙동 468-144 1/5	33-2292
黃炳瓚	명동코너 대표	중앙동 473-112	33-2136
金淸浩	동아횃집 대표	중앙동 1통 1반	33-5407
김영파	전 로타리클럽 회장	장사동 624-7	33-5090
심정현	강원일보 출판부 속초주재차장	동명동 466	31-4881
김기명	"프로스펙스"대리점 경영	동명동 15/4	32-8518
李小石	요식업 조합장	청학동 635-30	32-8074
이태형	전속초중학교교감, 동우전문대학교수	동명동 10/3	33-3618
박명자	교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교동 780-118	33-2177
한기학	연예협회 속초 지부장	중앙동 8통 5반	33-4595
홍철	연예협회 회원	청학동	33-2840
이선철	연예협회 회원	금호동 16통 3반	32-7681
오세권	연예협회 회원	금호동 성진주택 2동 202호	32-3695
김동만	연예협회 회원	동명동 중앙연립나동 303호	32-1861
윤병정	상업	중앙동 472-89	33-3042
박종현	시인, 고성고등학교	교동 주공아파트 2-506	33-8705
주상훈	향토사학자, 속초고등학교	송하아파트 2동 207호	33-7494
탁창식	향토사학자, 속초고등학교	교동 대양빌라 가동 303호	33-6406
김중호	약사, 충정장학회 이사장	금호동 484-7	33-2211

편집위원

주간 : 李 建 錫
위원 : 朴 益 勳
 高 榮 和
 金 光 秀
간사 : 최 재 도

束草文化

제 5 호

〈비매품〉

1989. 6. 30 인쇄

1989. 7. 10 발행

발행인 : 池 一 權

발행처 : 束 草 文 化 院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雪嶽山 케이블카



雪嶽文化財團



理社長 會長

理事長 韓 丙 起
代表理事長 崔 澤 琳



代表理事 社長

文化財團

1971년 8월 31일 韓丙起氏 私財로 設立
1988년말 現在 연 1,192名의 中·高·專門大生에
總 97,433,000원의 장학금을 지급

商號：雪嶽觀光(株) 케이블카
本社：江原道 束草市 雪嶽洞 170番地
電話：34-7362, 7365
支社：서울시 江南區 新沙洞 577의 5 영도빌딩 403호
電話：548-1829

2천년대 직업사회를 주도할 중견인재를 배출하는

동우전문대학



우암관(본관)

■ 설치학과

- 경영과
- 전자계산과
- 세무회계과
- 사진영상과
- 행정과
- 양식과
- 관광과
- 치기공과
- 식품영양과
- 치위생과
- 유아교육과
- 간호과
- 여성교양과

東 宇專門大學은 1981년 낙후된 영 북부 지역의 교육·문화발전을 위하여 현재 학장이신 전재욱 박사께서 본대학을 설립하신 후, 지금까지 13개 학과의 폭넓은 전공영역을 설치하고, 중견직업인을 육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이미 5천여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재학생 3천여명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東宇專門大學